조 선 어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ㄱ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ㄴ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ㄷ	다	댜	더	뎌	도	됴	두	듀	드	디
ㄹ	라	랴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
ㅁ	마	먀	머	며	모	묘	무	뮤	므	미
ㅂ	바	뱌	버	벼	보	뵤	부	뷰	브	비
ㅅ	사	샤	서	셔	소	쇼	수	슈	스	시
ㅇ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ㅈ	자	쟈	저	져	조	죠	주	쥬	즈	지
ㅊ	차	챠	처	쳐	초	쵸	추	츄	츠	치
ㅋ	카	캬	커	켜	코	쿄	쿠	큐	크	키
ㅌ	타	탸	터	텨	토	툐	투	튜	트	티
ㅍ	파	퍄	퍼	펴	포	표	푸	퓨	프	피
ㅎ	하	햐	허	혀	호	효	후	휴	흐	히

조 선 어

(류 학 생 용)

1

초 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68—평양

차 례

김일성장군의 노래

1.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2.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3. 로동자 대중에겐 해방의 은인
민주의 새조선엔 위대한 태양
이십개정강우에 모두다 뭉쳐
북조선 방방곡곡 새봄이 온다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글자와 발음

1. 조선말의 자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기윽) (그)	(니은) (느)	(디읃) (드)	(리을) (르)	(미음) (므)	(비읍) (브)	(시읏) (스)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응) (으)	(지읒) (즈)	(치읓) (츠)	(키읔) (크)	(티읕) (트)	(피읖) (프)	(히읗) (흐)

ㄲ	ㄸ	ㅃ	ㅆ	ㅉ
(된기윽) (끄)	(된디읃) (뜨)	(된비읍) (쁘)	(된시읏) (쓰)	(된지읒) (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아)	(야)	(어)	(여)	(오)	(요)	(우)

ㅠ	ㅡ	ㅣ	ㅐ	ㅒ	ㅔ	ㅖ
(유)	(으)	(이)	(애)	(얘)	(에)	(예)

ㅚ ㅟ ㅢ ㅘ ㅝ ㅙ ㅞ

(외) (위) (의) (와) (워) (왜) (웨)

2. 조선말의 발음

1) 모음자의 발음

ㅏ ㅓ ㅗ ㅜ ㅡ ㅣ

[ɑ] [ɔ] [o] [u] [ɯ] [i]

ㅐ ㅔ ㅚ ㅟ

[ɛ] [e] [ø] [y]

ㅑ ㅕ ㅛ ㅠ ㅒ ㅖ ㅢ

[i̭ɑ] [i̭ɔ] [i̭o] [i̭u] [i̭ɛ] [i̭e] [ɯ̭i]

ㅘ ㅝ ㅙ ㅞ

[ṷɑ] [ṷə] [ṷɛ] [ṷe]

련 습

ㅏ—ㅐ,	ㅓ—ㅗ,	ㅚ—ㅟ,
ㅓ—ㅔ,	ㅜ—ㅡ,	ㅗ—ㅜ.
ㅗ—ㅚ,	ㅐ—ㅔ,	
ㅜ—ㅟ,	ㅔ—ㅚ,	

ㅏ—ㅓ—ㅗ—ㅜ.
ㅐ—ㅔ—ㅚ—ㅟ.
ㅣ—ㅟ—ㅡ—ㅜ.
ㅔ—ㅚ—ㅗ.
ㅐ—ㅓ—ㅏ.
ㅟ—ㅜ—ㅚ—ㅗ.
ㅣ—ㅏ—ㅑ　ㅣ—ㅓ—ㅕ.
ㅣ—ㅗ—ㅛ　ㅣ—ㅜ—ㅠ.
ㅑ—ㅕ—ㅛ—ㅠ.

ㅣ—ㅐ—ㅒ, ㅣ—ㅔ—ㅖ
ㅑ—ㅒ, ㅕ—ㅖ, ㅒ—ㅖ

ㅗ—ㅏ—ㅘ, ㅜ—ㅓ—ㅝ
ㅗ—ㅐ—ㅙ, ㅜ—ㅔ—ㅞ
ㅘ—ㅝ, ㅙ—ㅞ
ㅘ—ㅙ, ㅝ—ㅞ
ㅡ—ㅣ—ㅢ.

ㅐ—ㅔ—ㅚ—ㅟ
ㅘ—ㅝ—ㅙ—ㅞ
ㅑ—ㅕ·—ㅒ—ㅖ.

ㅐ—ㅚ—ㅙ
ㅔ—ㅖ—ㅞ

아이, 여우, 오이, 우유.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애 얘
에 예 외 위 의 와
워 왜 웨

왜 웨

2) 자음자의 발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k] [n] [t] [r] [m] [p] [s]

ㅇ ㅈ ㅊ ㅋ ㅌ ㅍ ㅎ

[ŋ] [ʧ] [ʧʻ] [kʻ] [tʻ] [pʻ] [h]

ㄲ ㄸ ㅃ ㅆ ㅉ

[k̇] [ṫ] [ṗ] [ṡ] [ʧ̇]

련 습

ㅁ—ㄴ—ㅇ—ㄹ; ㅂ—ㅃ—ㅍ
ㄱ—ㄲ—ㅋ; ㄷ—ㄸ—ㅌ
ㅈ—ㅉ—ㅊ; ㅅ—ㅆ—ㅎ

ㅂ—ㅃ—ㅍ—ㅁ
ㄷ—ㄸ—ㅌ—ㅅ—ㅆ—ㄴ—ㄹ
ㅈ—ㅉ—ㅊ—ㄷ
ㄱ—ㄲ—ㅋ—ㅇ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ㅃ

3) 조선말의 글자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ㄱ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ㄴ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ㄷ	다	댜	더	뎌	도	됴	두	듀	드	디
ㄹ	라	랴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
ㅁ	마	먀	머	며	모	묘	무	뮤	므	미
ㅂ	바	뱌	버	벼	보	뵤	부	뷰	브	비
ㅅ	사	샤	서	셔	소	쇼	수	슈	스	시
ㅈ	자	쟈	저	져	조	죠	주	쥬	즈	지
ㅊ	차	챠	처	쳐	초	쵸	추	츄	츠	치
ㅋ	카	캬	커	켜	코	쿄	쿠	큐	크	키
ㅌ	타	탸	터	텨	토	툐	투	튜	트	티

ㅍ	파	퍄	퍼	펴	포	표	푸	퓨	프	피
ㅎ	하	햐	허	혀	호	효	후	휴	흐	히
ㄲ	까	꺄	꺼	껴	꼬	꾜	꾸	뀨	끄	끼
ㄸ	따	땨	떠	뗘	또	뚀	뚜	뜌	뜨	띠
ㅃ	빠	뺘	뻐	뼈	뽀	뾰	뿌	쀼	쁘	삐
ㅆ	싸	쌰	써	쎠	쏘	쑈	쑤	쓔	쓰	씨
ㅉ	짜	쨔	쩌	쪄	쪼	쬬	쭈	쮸	쯔	찌

련 습

개—게—괴—귀—과—괘

내—네—뇌—뉘

대—데—되—뒤—돼

래—레—례—뢰

매—메—뫼—뭐

배—베—뵈—봐

새—세—쇠—쉬—솨

재—제—죄—쥐

채—체—최—취

캐—케—쾌

태—테

패—페

해—헤—혜—회—휘—희—화—훠—홰

깨—께—꿰

때—떼—뛰

빼—뻬

쌔—쎄
째—쩨



ㄱ—가구, 거기, 고기, 그, 기계, 아가, 여기.
ㄴ—나, 너, 누구, 누나,오누이.
ㄷ—가다, 구두, 개다, 도구, 어디, 오다.
ㄹ—거리, 나라, 노루, 노래, 다리, 오리, 우리, 유리.
ㅁ—거미, 고무, 나무, 다리미, 마디, 마루, 머리, 모두, 모이, 무기, 무우, 미래, 어머니, 이마.
ㅂ—나비, 바다, 버드나무, 벼, 보다, 보위, 부모, 비, 비누, 비료, 배.
ㅅ—가시, 교과서, 기사, 기수, 도시, 마시다, 서리, 소, 소나무, 소리, 수도, 시, 세계, 세수대야, 의사.
ㅈ—고지, 기자, 기지, 모자, 무지개, 바지, 사자, 자,자기, 자다, 자리, 자모, 자주, 자위, 저, 저기, 주다, 주사, 주소, 지구, 지도, 지리, 지우개, 아버지, 의지.
ㅊ—고추, 기차, 기초, 부채, 차, 차단, 차비, 차이, 주체, 치다, 치마, 체계.
ㅋ—코, 코끼리, 크다, 키.

ㅌ—기타, 나타나다, 타다, 토대; 투지, 외투.
ㅍ—모표, 파, 파다, 파도, 포도, 포수, 푸르다, 피, 피다, 피리, 우표.
ㅎ—구호, 기후, 사회주의, 하나, 하루, 허리, 혀, 호미, 해, 화보, 화가, 회의
ㄲ—도끼, 토끼, 까다, 까치, 꼬다, 꼬리, 꼬마, 끼다.
ㄸ—따다, 또, 띠, 떠다.
ㅃ—고뿌, 나쁘다, 빠르다, 빠지다, 빼스, 뼈, 뿌리, 오빠.
ㅆ—싸우다, 쏘기, 쏘다, 쓰다, 씨.
ㅉ—짜다, 쪼이다,찌다.

× ×

고기—거기, 고리—거리,
내—네
마리—머리, 모기—무기
서리—소리
모표—모표, 파도—포도
도끼—토끼, 가다—까다
고리—꼬리, 기다—끼다
지다—찌다—치다, 자다—짜다—차다
시—씨, 가지—까지—까치
당—땅—탕

4) 받침있는 글자와 그 발음

하+ㄱ=학 새+ㅇ=생 (학생)

여＋ㄴ＝연　피＋ㄹ＝필　(연필)
하＋ㄱ＝학　스＋ㅂ＝습
자＋ㅇ＝장　　　　　　(학습장)

련 습

—조국, 국가, 무력, 력사, 위력, 세력, 토지개혁, 개척, 조직, 제국주의, 폭로, 유격대, 북쪽, 국기, 국제, 국내, 뜨락또르, 책, 기숙사, 대학, 교탁.

—천리마, 조선, 인민, 인민군대, 군관, 전사, 민족, 군사, 원쑤, 반제, 반미, 자본가, 전투, 백두산, 전기기관차, 단어, 신문, 산, 눈, 손, 근로자, 전차.

—듣다, 싣다, 굳다.

—빨찌산, 건설, 길, 달리다, 별, 달,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교실, 연필, 만년필, 칼, 칠판, 하늘, 즐겁다, 울리다.

—원수님, 마음, 힘, 힘차다, 사람, 누님, 봄, 여름, 밤, 곰, 범, 염소, 구름, 군함, 금, 임무, 념원, 기쁨, 침략.

—자립, 계급, 과업, 사업, 독립, 탄압, 압박, 억압, 집, 학습, 복습, 삽, 톱, 덥다, 춥다, 아름답다.

· 뜻[뜯], 옷[옫], 비옷[비옫], 빗[빋], 낫[낟], 웃다[욷따].

· 정치, 경제, 창립, 희망, 행복, 동지 , 동무, 자랑, 영예, 혁명, 당, 수령, 항일무장투쟁, 유일사상, 투쟁, 총, 창, 승리, 영광, 자동차, 승용차, 땅크, 비행기, 태양, 공장, 농촌, 자력갱생, 혁명정신, 초상화, 천리마동상, 공산주의, 손풍금, 형제, 방, 책상, 걸상, 전등.

—낮[낟], 맞다[맏따].

—빛나다[빋나다], 쫓다[쫃다], 빛[빋], 꽃[꼳].

—부엌[부억], 남녘[남녁], 동녘[동녁].

—밭[받], 밑[믿], 같다[갇따], 맡다[맏따].

늪[늡], 잎[입], 옆[엽], 높다[놉따], 덮다[덥따].

—좋다[조타], 놓다[노타], 넣다[너타].

제 1 과

우리 나라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우리 나라

산에는 금은보화
바다에는 물고기

넓고 푸른 들에는
오곡이 물결치네

아름다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 우리 나라

모두다 일하고
모두다 공부하네

오각별 공화국기
푸른하늘 높이 날리네

아름다운 우리 나라
천리마 우리 나라

백두산의 혁명정신
가슴속에 살아있고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
온세상에 빛나네

발 음

△좋은〔조은〕
△넓고〔널꼬〕
△물고기〔물꼬기〕
△물결〔물껼〕
△혁명〔형명〕
△빛나네〔빈나네〕

단 어

나라
아름답다→아름다운
참
좋다〔조타〕→좋은〔조은〕
산
금
은
보화
바다
물고기
넓다〔널따〕→넓고〔널꼬〕
푸르다→푸른
들
오곡
물결〔물껼〕
물결치다
사회주의
모두
다
일하다
공부하다
오각별
공화국기
하늘
높이(←높다)
날다→날리다
백두산
혁명〔형명〕
정신
가슴
  가슴속에
살다
있다
  살아있다
사상
세상
온세상
빛나다〔빈나다〕

단어만들기

△물고기→물+고기
△물결, 바람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제주의, 애국주의, 제국주의

△일하다, 공부하다, 혁명하다.
△혁명정신, 혁명사상.
△온세상, 온나라, 온세계.
△살아있다(살다+있다), 물결치다(물결+치다).

회 화

○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과서와 학습장입니다.
○ 저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연필과 지우개입니다.
○ 이것은 연필입니까?
—이것은 연필이 아니고 만년필입니다.
○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와 칼입니다.
○ 저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칠판과 칠판지우개입니다.
—이것은 책상이고 저것은 걸상입니다.
○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문입니다.
○ 저것은 무엇입니까?
—출입문입니다.
—전등입니다.

형태바꿈

△ 우리 나라(명사) < 가—는 (우리 나라가, 우리 나라는) / 의 (우리 나라의) / 에 (우리 나라에)

△ 공부하(다)(동사) < ㅂ니다(공부합니다) / 고 (공부하고) / 네 (공부하네)

△ 아름답(다) < 습니다(아름답습니다) / 고 (아름답고) / 네 (아름답네)

卌 아름다운

수 사

1	하나	(일)	제 1 과
2	둘	(이)	제 2 과
3	셋	(삼)	제 3 과
4	넷	(사)	제 4 과
5	다섯	(오)	제 5 과
6	여섯	(륙)	제 6 과
7	일곱	(칠)	제 7 과
8	여덟	(팔)	제 8 과
9	아홉	(구)	제 9 과
10	열	(십)	제 10 과

련 습

1. 다음 문장들을 정확히 발음하여보시오.

1) 우리 나라는 아름답습니다.
우리 나라는 참 좋습니다.
산에는 금은보화가 많습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습니다.
들에는 오곡이 물결칩니다.

2)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나라입니다.
모두다 일합니다.
모두다 공부합니다.
공화국기에는 오각별이 빛납니다.
오각별은 붉습니다.
공화국기가 하늘 높이 나붓깁니다.

3) 우리 나라는 천리마의 나라입니다.
우리들의 가슴속에 원수님의 혁명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원수님의 혁명사상은 온세상에 빛납니다.

2. 본문을 학습장에 다섯번 쓰시오.
3. 본문을 외우시오.

제 2 과
우리 기차 달린다

기차가 달립니다. 이것은 전기기관차입니다.

자동차가 달립니다.

기차와 자동차는 많은 짐을 실었습니다. 이것들은 경제건설장과 국방건설장으로 갑니다.

뜨락또르가 달립니다.

뜨락또르는 우리의 사회주의협동벌을 갈아번집니다.

비행기들이 날아갑니다. 이것은 인민군대의 비행기입니다.

배들이 갑니다. 이것은 인민군대의 군함입니다.

인민군대의 비행기와 배들은 조국의 하늘과 바다를 지킵니다.

단 어

기차	실다→실었다(과거)
이것	경제
달리다	국방
전기기관차	건설
자동차	건설장
많다→많은	가다
짐	뜨락또르
협동벌	군함
갈아번지다	조국
비행기	하늘
날아가다	바다
인민군대	지키다
배	

단어만들기

△ 건설장, 운동장, 경기장, 광장, 비행장, 정거장.
△ 협동벌, 협동농장, 협동화.
△ 갈아번지다(갈다+번지다).
△ 날아가다(날다+가다).

회 화

○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 동무는 대학생입니까?
—예, (저는) 대학생입니다.
○ 동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의 이름은) 영철입니다.
○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합니다)
○ 건강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 편안히 주무십시오.
—다녀가십시오.
○ 수고하십시오.
—잘 다녀가십시오.

문 법

1) —가(이), —는(은)

품 사	받침이 없을때	받침이 있을때
명사	기차가, 기차는	학생이, 학생은
수사	하나가, 하나는	둘이, 둘은
대명사	우리가, 우리는	그들이, 그들은

2) —를(을)

품 사	받침이 없을때	받침이 있을때
명사	기차를	학생을
수사	하나를	둘을
대명사	우리를	그들을

3) —와(과)

품 사	받침이 없을때	받침이 있을때
명사	기차와 자동차	하늘과 바다
수사	하나와 셋	둘과 넷
대명사	나와 너	이것과 저것

4) —로(으로)

품 사	받침 《ㄹ》이 있을때 받침이 없을 때	받침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명사	만년필로, 학교로	건설장으로
수사	둘로, 하나로	다섯으로
대명사	우리들로, 나로	이것으로

5) —입니다

명사 }
수사 } + 입니다
대명사 }

이것은 교과서(학습장) 입니다.

이것은 하나(둘) 입니다.

우리(그들) 입니다.

6) —ㅂ니다(습니다)

동사 }
형용사 } + —ㅂ니다(습니다)

품 사	받침이 없을 때	받침이 있을 때
동사	갑니다	읽습니다
형용사	푸릅니다	아름답습니다

7) —들

명사 }
대명사 } + 들

품 사	단 수	복 수
명사	군대, 학생	군대들, 학생들
대명사	그, 이것	그들, 이것들

※ 소리 바꿈

△ 기차는 짐을 싣습니다. (현재)

기차는 짐을 실었습니다. (과거)

△ 비행기가 납니다. (현재)

비행기가 날았습니다. (과거)

뜨락또르가 논밭을 갑니다. (현재)

뜨락또르가 논밭을 갈았습니다. (과거)

※

[주어]—[술어]

기차가 달립니다.

[주어]—[보어]—[술어]

비행기는 하늘을 지킵니다.

[주어]—[상황어]—[술어]

기차는 건설장으로 달립니다.

수 사

11	열하나	(십일)
12	열둘	(십이)
13	열셋	(십삼)
20	스물	(이십)
30	서른	(삼십)
40	마흔	(사십)
50	쉰	(오십)

련 습

1. 다음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여보시오.

기차	달립니다.
자동차	실었습니다.
기관차	지킵니다.
뜨락또르	

2.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1) 무엇이 달립니까?
   2) 기차와 자동차는 무엇을 실었습니까?
   3) 기차와 자동차는 어디로 달립니까?
   4) 뜨락또르는 무엇을 합니까?
   5) 인민군대의 비행기와 배들은 무엇을 지킵니까?
   6) 무엇이 날아갑니까?

3. 다음 빈자리에 알맞는 말을 써넣으시오.
   1) 자동차가…… 이것은 우리의 ……
   2) 기차와 자동차는…… 짐을 ……
   3) 뜨락또르는 우리의 …… 갈아번집니다.
   4) 비행기들이 ……
   5) 비행기와 …… 조국의 …… 바다를 지킵니다.
4. 다음 빈자리에 알맞는 토를 써넣으시오.

△ 1) 기차… 달립니다.
   2) 비행기… 날아갑니다.
   3) 학생… 갑니다.
   4) 하늘… 높습니다.

△ 1) 책상… 걸상
   2) 교과서… 학습장
   3) 창문… 칠판
   4) 지우개… 연필
   5) 로동자… 농민
   6) 선생님… 학생
   7) 모자… 구두

△ 1) 나는 신문… 봅니다.
   2) 그는 교과서… 읽습니다.
   3) 우리는 본문… 씁니다.
   4) 나는 모자… 씁니다.

△ 1) 기차와 자동차… 많… 짐… 실었습니다.
   2) 뜨락또르… 우리… 사회주의협동벌… 갈아번집니다.
   3) 비행기와 배… 조국… 하늘과 바다… 지킵니다.
   4) 기차… 자동차… 경제건설장… 국방건설장… 갑니다.

5. 다음 단어들에 《—입니다》, 《—ㅂ니다(습니다)》를 붙이시오.
   1) 이것은 <u>기차</u>
   2) 저것은 <u>비행기</u>
   3) 기차는 <u>달리다</u>
   4) 비행기는 <u>날아가다</u>
   5) 자동차는 많은 짐을 <u>실었다</u>
   6) 우리는 책을 <u>읽다</u>

제 3 과

천 리 마

이것은 천리마동상입니다.

천리마동상은 만수대우에 있습니다.

천리마동상은 높습니다.

로동자와 농민이 천리마를 탔습니다.

로동자는 남자입니다. 그는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붉은편지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농민은 녀자입니다. 그는 벼단을 안았습니다.

우리 나라는 천리마의 나라입니다.

우리 인민은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를 빨리 건설합니다.

천리마는 공산주의로 힘차게 달립니다.

영철동무는 학교에 다닙니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합니다. 그는 천리마기수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장에 다닙니다.

그의 어머니도 공장에 다닙니다.

영철동무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천리마기수입니다.

그의 형님은 인민군대입니다. 그는 《붉은기중대》군인입니다.

온가정이 모두 천리마를 탔습니다.

발 음

△ 천리마〔철리마〕 △ 벼단〔별딴〕
△ 붉은기〔불근기〕

단 어

천리마동상	인민
타다	빨리
로동자	공산주의
농민	힘차게
남자	학교
녀자	다니다
전체	김일성종합대학
당원	천리마기수
보내다	공장
조선로동당	농장원
중앙위원회	형님
붉은편지	붉은기
쳐들다	중대
벼	군인
벼단	가정
안다	

단어만들기

△ 종합대학, 공업대학, 공장대학, 건설대학, 의학대학, 기계대학, 수산대학, 농업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

△ 벼단, 곡식단, 나무단.

회 화

① 동무는 무엇을 읽습니까?
—(저는) 책을 읽습니다.

② 동무는 본문을 씁니까?
—예, (저는 본문을 씁니다)

③ 동무는 무엇으로 씁니까?
—(저는) 만년필로 씁니다.

○ 동무는 본문을 외웁니까?

—예, (저는 본문을 외웁니다)

○ 이것은 교실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교실입니다.

○ 교실정면에 김일성원수님의 초상화를 모시고있습니다.

○ 교탁앞에는 누가 서계십니까?

—선생님이 서계십니다.

○ 선생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선생님은) 글을 가르쳐주십니다.

○ 학생들은 무엇을 합니까?

—(학생들은) 글을 배웁니다.

—(학생들은) 공부합니다.

○ 창문은 어데 있습니까?

—(창문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 출입문은 어느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다.

○ 책상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책상우에는) 책과 학습장과 만년필이 있습니다.

○ 필갑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와 칼과 연필이 있습니다.

문 법

1) —에, —에게

명사 / 수사 / 대명사 } + —에, —에게

품 사	비활동체 《—에》	활동체 《—에게》
명사	학교에 갑니다.	형님에게 줍니다.
수사	셋에 둘을 합합니다.	—
대명사	—	그에게 줍니다.

2) —에서, —에게서

품 사	비활동체 《—에서》	활동체 《—에게서》
명사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형님에게서 받습니다.
수사	셋에서 둘을 뺍니다.	—
대명사	—	그에게서 받습니다.

3) —도

명사 / 수사 / 대명사 } + 도

—아버지도 천리마기수입니다.

—우리들도 천리마기수입니다.

4) —고, —이고

동사 / 형용사 } + 고, 명사 / 수사 / 대명사 } + 이고

—모두다 일하고 공부합니다.

—하늘은 높고 푸릅니다.

—아버지는 로동자이고 어머니는 농장원입니다.

—이것은 셋이고 저것은 다섯입니다.

※

[주어] — [보어] — [상황어] — [술어]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빨리 건설합니다.

[주어] — [상황어] — [보어] — [술어]

나는 학교에서 조선말을 공부합니다.

[주어] — [상황어] — [보어] — [상황어] — [술어]

나는 학교에서 조선말을 재미있게 공부합니다.

수 사

60	예순	(륙십)
70	일흔	(칠십)
80	여든	(팔십)
90	아흔	(구십)
100	백	(백)
101	백하나	(백일)
102	백둘	(백이)
200	이백	
300	삼백	
400	사백	
500	오백	
600	륙백	
700	칠백	
800	팔백	
900	구백	

련 습

1. 다음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여보시오.

천리마동상	힘차게
높습니다.	종합대학
천리마를 탔습니다.	붉은기
빨리	붉은편지

2.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천리마동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2) 누가 천리마를 탔습니까?
   3)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4) 우리 인민은 천리마를 타고 무엇을 건설합니까?
   5) 천리마는 어디로 달립니까?
      어떻게 달립니까?
   6) 영철동무는 어디에서 공부합니까?
   7) 영철동무의 아버지는 어디에 다니십니까?

   8) 영철동무의 어머니는 어디에 다니십니까?
   9) 영철동무의 가정에서 누가 인민군대입니까?
   10) 영철동무의 가정에서 누가 대학생입니까?
   11) 영철동무의 가정에서 누가 천리마를 탔습니까?
3. 다음 빈자리에 알맞는 말을 써넣으시오.
   1) 천리마동상은 만수대… 있습니다.
   2) 우리 나라는 … 나라입니다.
   3) 우리 인민은 천리마를 …
   4)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건설합니다.
   5) 천리마는 공산주의로 … 달립니다.
   6) 영철이는 학교에 …
4. 다음 빈자리에 알맞는 토를 써넣으시오.
   1) 그는 공장… 다닙니다.
   2) 그는 공장… 일합니다.
   3) 그는 기숙사… 삽니다.
   4) 나는 종합대학… 공부합니다.
   5) 책상과 걸상은 교실… 있습니다.
   6) 나는 선생님… 묻습니다.
   7) 나는 동생… 《김일성선집》을 줍니다.
   8) 동생은 형님… 교과서를 받습니다.
5. 다음 말로 짧은 문장을 지으시오.
   1) 빨리
   2) 힘차게
   3) —에, —에서

제 4 과

네 철

조선은 맑은 아침의 나라입니다.

조선의 일년은 네철로 나누입니다.

네철은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봄은 따뜻합니다.

거리와 마을, 산과 들에서는 눈이 녹고 강에서는 얼음이 풀립니다. 압록강 물결우에 떼목이 내립니다. 여러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핍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버들가지는 가볍게 춤을 춥니다. 뜨락또르는 밭을 갈고 농장원들은 씨를 뿌립니다. 관개수가 논밭을 적십니다. 모내기가 시작됩니다. 농장벌에는 붉고 푸른기발이 나붓깁니다.

해마다 4월이 오면 더많은 사람들이 유서깊은 만경대를 찾아갑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은 덥습니다. 뜨거운 해별이 내려쪼입니다. 비가 자주 오고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번개가 치고 우뢰가 웁니다. 넓고 넓은 벌판에는 오곡이 싱싱 자랍니다. 농장원들은 논밭에서 김을 맵니다. 즐거운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혁명전적지를 답사하고 명승지를 견학합니다. 바다가에서 헤염도 치고 배를 타면서 몸을 단련합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하늘은 높고 푸릅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고 나

무들에는 빨간 단풍이 듭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을의 협동벌에 곡식이 여물고 온갖 과실들이 무르익습니다.

농장원들은 풍년을 노래하면서 가을걷이를 합니다. 학생들은 새학년이 시작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갑니다. 9월 9일에는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합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옵니다. 찬바람이 불고 흰눈이 내립니다. 거리와 마을에 흰 눈꽃이 핍니다. 눈보라가 일고 강물이 얼니다. 얼음판에서는 스케트를 타고 눈우에서는 스키를 탑니다. 농민들은 새해 농사차비를 합니다. 날씨가 춥지만 건설장에서는 쉬임없이 로동자들이 집을 짓습니다. 사람들은 즐겁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니다.

발 음

물결〔물껼〕
떼목〔떼목〕
해별이〔해벼치〕
단련하다〔달련하다〕
가을걷이〔가을거지〕

단 어

일년	눈
철	녹다
봄	강
따뜻하다	얼음
거리	풀리다
마을	떼목

내리다
여러가지
꽃
활짝(부)
피다
봄바람
불다
버들가지
가볍게
춤
  춤추다
발
갈다
농장원
씨
뿌리다
벌
  농장벌
붉다
기발
나붓기다
해마다
오다
사람
마음
모내기
시작되다
관개수
논밭
적시다
고향
찾아가다
여름

덥다
뜨겁다
해별
내려쪼이다
비
자주
소나기
쏟아지다
번개(~치다)
우뢰(~가 울다)
벌판
싱싱(부)
자라다
김
매다
즐겁다
방학
학생
바다가
헤염(~치다)
배
타다
몸
단련하다
혁명전적지
답사하다
명승지
견학하다
가을
지나다
서늘하다
나무
빨갛다

단풍(~이 들다)
서리
곡식
여물다
곤충
벼알
무르익다
풍년
노래하다
가을걷이
새—새롭다
학년
즐겁다
창건
기념일
뜻
  뜻깊게
맞이하다
겨울

차다
희다
눈꽃
눈보라
얼다
강물
얼다
얼음판
스케트
스키
새해
농사
차비(~하다)
날씨
쉬임없이
집
짓다
희망(~차다)

단어만들기

봄바람, 여름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 찬바람.
가볍게, 무겁게, 즐겁게, 기쁘게, 재미있게.
혁명전적지, 명승지, 휴양지.
가을걷이, 가을갈이.
농사차비, 저녁차비.
빨갛다, 말갛다, 노랗다, 거멓다.
쉬임없이, 끊임없이.
체육장, 작업장, 운동장, 회의장.

표 현

얼음이 풀리다	우뢰가 울다
떼목이 내리다	눈보라가 일다
소나기가 쏟아지다	스케트를 타다
번개가 치다	

회 화

○ 오늘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덥습니다.

—오늘은 무더운 날씨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선선합니다(서늘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습니다.

—오늘은 날이 맑게 개였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렸습니다.

—하늘에는 검은구름이 낮게 드리웠습니다.

—오늘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히 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붑니다.

—오늘은 비(궂은비, 가랑비, 보슬비, 안개비)가 옵니다.

—오늘은 눈이 내립니다.

—오늘은 눈보라가 칩니다. (입니다)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고 우뢰가 웁니다.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붑니다.

○ 오늘은 몇도입니까?

—오늘은 낮기온이 25도입니다.

—오늘은 령하 5도입니다.

문 법

1) —면(으면)

동사 }
형용사 } + 면(으면)

—봄이 가면 여름이 옵니다.

—비가 오면 비옷을 입습니다.

—여름에 바람이 불면 서늘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외투를 입습니다.

2) —면서(으면서, 이면서)

동사 }
형용사 } + 면서(으면서)　　명사 + 이면서

—우리는 학교에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본문을 읽으면서 새단어를 찾습니다.

—우리 형님은 로동자이면서 대학생입니다.

3) —지만(이지만)

동사 }
형용사 } + 지만　　　　명사 }
수사 }
대명사 } + 이지만

쓰(다) + 지만 → 쓰지만

읽(다) + 지만 → 읽지만

작(다) + 지만 → 작지만

소년 + 이지만 → 소년이지만

4) —기시작하다. 동사 + 기시작하다.

쓰(다) + 기 시작하다 → 쓰기 시작하다.

읽(다) + 기 시작하다 → 읽기 시작하다.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1) 봄날은 어떻습니까?

2) 여름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3) 학생들은 방학 때에 무엇을 합니까?

4) 가을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5) 협동벌에서 농민들은 무엇을 합니까?

6) 9월 9일은 무슨 날입니까?

7) 겨울날씨는 어떻습니까?

8) 겨울에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2. 다음의 형용사를 규정형으로 고치시오.

아름답다	꽃		
붉다	기발	크다	공장
희다	종이	작다	집
푸르다	바다	검다	칠판
덥다	여름	밝다	전등

3. 괄호안에 있는 동사를 변화시켜 문장을 만드시오.

1) 농민들은 풍년을(노래하다) 가을걷이를 합니다.

2) 봄이 (가다) 여름이 옵니다.

3) 해마다 4월이 (오다) 유서깊은 만경대를 찾아갑니다.

4) 그는 학교에 (가다) 단어를 외웁니다.

5) 학생들은 방학이 (되다) 혁명전적지를 답사합니다.

6) 근로자들은 (일하다) 배우고 (배우다) 일합니다.

7) 본문을(읽다) 문장을 외웁니다.

8) 예비반을(졸업하다) 대학에 갑니다.

9) 선생님이(들어오다) 학생들은 일어섭니다.

10) 학생들은 체육을(하다) 몸을 단련합니다.

4. 다음의 두 문장을 하나로 련결하시오.

1) 날씨가 춥습니다. 몸을 단련합니다.

2) 지금은 여름입니다. 오늘 날씨는 선선합니다.

3) 그는 책을 읽습니다. 나는 신문을 봅니다.

4) 산과 들에는 눈이 녹습니다.
강에서는 얼음이 풀립니다.

5) 뜨락또르는 밭을 갑니다. 농민들은 씨를 뿌립니다.

6) 따뜻한 봄바람이 붑니다. 버들가지는 가볍게 춤을 춥니다.

7) 비가 자주 옵니다.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8) 이것은 신문입니다. 저것은 화보입니다.

9) 낮은 밝습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10) 날씨가 춥습니다. 건설장에서는 로동자들이 집을 짓습니다.

11) 그는 축구선수입니다. 배구도 잘 합니다.

12) 밤은 깊습니다. 공장에서는 기계가 돌아갑니다.

5. 다음 단어들로 문장을 만드시오.

1) 협동벌, 관개수, 흐르다.

2) 농민들, 즐겁다, 일하다.

3) 일요일, 우리들, 혁명박물관, 가다.

4) 평양에는, 많다, 대학, 있다.

5) 그, 그림, 보다, 말하다.

6) 봄, 오다, 모란봉, 아름답다, 꽃 피다.

6. 다음의 토로 문장을 지으시오.

—에	—면서
—에서	—지만

수 사

1,000 천

10,000 만

100,000 십만

1,000,000 백만

10,000,000 천만

1,968 (천구백륙십팔)

25,703 (이만오천칠백삼)

463,825 (사십륙만삼천팔백이십오)

제 5 과

세상에 부럼없어라

1. 하늘은 푸르고 내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2. 우리 힘 꺾을자 그 어데 있으랴
풍랑도 무섭지 않네
백두의 넋을 이어 빛나는
내 조국 두렴몰라라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3. 동무들 다 같이 노래를 부르자
손풍금소리 맞추어
천리마 나래펴는 내 조국
백화가 만발하였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발 음

좋네〔존네〕 않네〔안네〕
같이〔가치〕 넋을〔넉슬〕

단 어

부럽다(형) 내→나의
부럼=부러움(명) 손풍금
소리
울리다
울려라(명령)
화목하다(형)→화목하게
살다→사는
한없이
좋다→좋네
품
친형제
힘
꺾다
꺾을 자
어디→어데
풍랑
무섭다
넋
잇다→이은, 이어
두렵다(형)
두렴=두려움(명)
모르다→몰라라
같다(형)
같이(부)
부르다
부르자(권유)
맞추다
나래
펴다
나래펴다
백화
만발하다→만발하였네(과거)

단어만들기

△ 부럽다→부러움 두렵다→두려움
즐겁다→즐거움 기쁘다→기쁨
무섭다→무서움 슬프다→슬픔

△ 손풍금소리, 노래소리, 나팔소리, 종소리
△ 친형제, 친아버지, 친동생

표 현

넋을 잇다 나래펴다

회 화

○ 오늘은 며칠입니까?
—(오늘은) 9월 7일입니다.
○ 래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래일은) 일요일입니다.

○ 모레는 며칠입니까?

—(모레는)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기념일입니다.

○ 글피는 무슨 요일입니까?

—(글피는) 화요일입니다.

○ 그글피는 무슨 요일입니까?

—(그글피는) 수요일입니다.

○ 어제는 무슨 요일이였습니까?

—(어제는) 금요일이였습니다.

○ 그저께는 무슨요일이였습니까?

—(그저께는) 목요일이였습니다.

○ 그그저께는 며칠이였습니까?

—(그그저께)는 9월 4일이였습니다.

○ 한주일은 며칠입니까?

—이레입니다.

○ 새학년도는 언제 시작되였습니까?

—9월 초하루에 시작되였습니다.

○ 동무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1946년 10월 10일입니다.

○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한달 남짓하게 남았습니다.

문 법

1) 토가 줄어진 형태

—우리의 아버진(는) 김일성원수님

—우린(는) 어제 나물(를) 심었습니다.

2) 토가 없는 형태(절대격)

—내 마음(은) 즐겁다

—손풍금소리(에) 맞추어

—손풍금소리(를) 울려라

—동무들(아) 다 같이 노래를 부르자.

3) 조선말의 격체계

격	받침이 없을 때	받침이 있을 때	례	비고
주격	—가	—이	바다가, 하늘이	
속격	—의		바다의	
대격	—를	—을	바다를, 하늘을	
여격	—에, —에게		바다에, 형님에게	비활동체, 활동체
위격	—에서, —에게서		바다에서, 형님에게서	비활동체, 활동체
조격	—로	—으로	바다로, 산으로	받침<ㄹ>인 경우에는<로>
구격	—와	—과	바다와, 하늘과	
호격	—야 —여	—아 —이여	바다여, 산아	

4) 조선말의 계칭과 식

—하늘은 높습니다. (높인말, 서술식)

—하늘은 높습니까? (높인말, 의문식)

—하늘은 높다. (낮춘말, 서술식)

—노래를 부르십시오. (높인말, 명령식)

—노래를 부르라. (낮춘말, 명령식)

—노래를 부르네. (보통말, 서술식)

—노래를 부릅시다. (높인말, 권유식)

—노래를 부르자. (낮춘말, 권유식)

계칭 \ 식	서술식	의문식	명령식	권유식
높인말	—ㅂ니다(습니다) —아(어)요. —지요, —오(소)	—ㅂ니까? (습니까?) —아(어, 여)요? —지요? —는가요? —ㄹ(을)가요?	—시오 (으시오) —아(어, 여)요	—ㅂ시다 (읍시다)

계칭＼식	서술식	의문식	명령식	권유식
보통말	—네 —ㅁ세 (음세)	오(소)? —는가? —ㄹ(을)가?	—오(소) —구려 —게	—ㅂ시다 (읍시다) —세
낮춘말	—다 —는구나 —지	—느냐? —니? —랴(으랴)?	—아(어, 여)라 —거라 —너라 —려므나 —아(어)	—자 —지 —아(어 여)

5) 조선말 동사의 시칭

① 종결형(접속형)의 시칭

동사	현재	과거
가다	간다 (가고)	갔다 (갔고)
받다	받는다 (받고)	받았다 (받았고)
보다	본다 (보고)	보았다 (보았고)
오다	온다 (오고)	왔다 (왔고)
먹다	먹는다 (먹고)	먹었다 (먹었고)
주다	준다 (주고)	주었다 (주었고)
쓰다	쓴다 (쓰고)	썼다 (썼고)

② 규정형의 시칭

동사	현재	과거	미래
주다	주는 책	준 책	줄 책
받다	받는 책	받은 책	받을 책
보다	보는 책	본 책	볼 책
읽다	읽는 책	읽은 책	읽을 책

1) 어간의 모음이 《아, 야, ㅗ》일 때에는 《았》으로 된다.

받다	받아	받았다
밝다	밝아	밝았다
얇다	얇아	얇았다
보다	보아	보았다
좋다	좋아	좋았다

2) 어간의 모음이 《ㅓ, ㅕ, ㅜ, ㅡ》일 때에는 《었》으로 된다.

넓다	넓어	넓었다
먹다	먹어	먹었다
겪다	겪어	겪었다
주다	주어	주었다
붉다	붉어	붉었다

3) 어간의 모음이 《ㅣ, ㅐ, ㅔ, ㅚ, ㅟ, ㅢ》일 때와 어간이 《하》일 때에는 《였》으로 된다.

기다	기여	기였다
개다	개여	개였다
베다	베여	베였다
되다	되여	되였다
쥐다	쥐여	쥐였다
희다	희여	희였다
하다	하여	하였다

그러나 받침이 있을 때에는 《었》으로 된다.

걸다	걸어	걸 었 다
심다	심어	심 었 다
읽다	읽어	읽 었 다
맺다	맺어	맺 었 다

※ 주의

가다	가	갔다
사다	사	샀다
서다	서	섰다
켜다	켜	켰다
크다	커	컸다
쓰다	써	썼다

련 습

1) 본문에서 토를 찾고 그것이 어떤 토이며 어떤 뜻인지 말하시오.

2) 다음 글에서 토를 찾고 그 뜻을 말하시오.

종이 울립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들은 다 같이 일어섰습니다. 우리들은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어제 준 숙제를 합시다. 학습장을 펴서 책상우에 놓으십시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들의 숙제를 모두 보시였습니다.

《오늘은 다음과를 공부합시다. 교과서 45페지를 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선생님이 먼저 읽으시였습니다. 우리들은 큰소리로 따라 읽었습니다.

다음은 번역입니다. 모르는 단어의 뜻은 선생님이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강의가 끝날 시간이 되였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공부한 본문과 래일 공부할 본문에서 숙제를 주시였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우리들은 기숙사에서 오늘 배운 단어와 래일 배울 단어를 외웁니다.

3) 다음 단어의 반대말을 쓰시오.

좋다　　모르다

있다

4) 본문을 외우시오.

제 6 과
두 아동단원

악독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을 강점하고 부모형제들을 마음대로 학살하고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날 두 아동단원은 일제놈들에게서 무기를 빼앗을 임무를 받고 강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있었습니다.

이때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일제순사놈이 걸어오고있었습니다. 이놈은 긴 칼과 권총까지 차고있었습니다.

일제순사놈은 강을 건너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인민들을 못살게 구는 이놈은 신발을 벗고 강을 건너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은 사방을 살펴보다가 고기잡이를 하는 두 어린이를 발견하고

《야! 어서 빨리 와서 나를 업어라!》하고 큰 소리

를 쳤습니다.

두 아동단원은 잠간동안 무엇을 생각하다가 그놈을 업고 강을 건너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아동단원이 그놈을 업고 강에 들어섰습니다. 다른 아동단원은 그놈의 다리를 쳐들고 따라갔습니다.

강한가운데까지 왔습니다. 순사놈을 업은 아동단원은 미끄러지는척하면서 그놈을 깊은 물속에 처넣었습니다. 순사놈은 《어푸어푸》하면서 허위적거렸습니다.

뒤에서 순사놈의 다리를 잡고 따라가던 아동단원은 재빨리 권총과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 다음은 긴칼로 그놈의 골통을 내려깠습니다.

두 아동단원은 그놈을 물살이 빠른곳에 처넣었습니다.

이리하여 두 아동단원은 총과 칼을 가지고 항일유격대를 찾아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아동단원들은 항일유격대를 도와 용감히 싸웠습니다.

단 어

악독하다
강점하다
마음대로
학살하다
무기
빼앗다
임무
아동단
아동단원

어느날
강
　강가〔강까〕
잡다
　고기잡이
멀다 (형)
멀리 (부)
　멀리서
겁다

옷
입다
일제
순사
　순사놈
걷다
　걸어오다
길다
칼
　긴칼
권총
차다
건너가다
다리
신발
벗다
압박하다
착취하다
항상
자기
사방
살펴보다
발견하다
어린이
어서
업다
잠간동안
생각하다

목적
들어서다
쳐들다
따라가다
가운데
미끄러지다
깊다
물속
처넣다
어푸어푸
허위적거리다
뒤
잡다
재빨리
다음
골통
내리까다
물살
빠르다
항일유격대
찾다
산속
들어가다
돕다→도와
용감하다
싸우다
～척하다(～체하다)

단어만들기

△ 강가, 바다가, 길가, 호수가.
△ 순사놈, 미국놈, 일제놈.

△ 잠간동안, 오래동안, 얼마동안, 한참동안.
△ 따라가다, 따라오다, 따라읽다, 따라잡다.
△ 내리까다, 내리치다, 내리쏘다, 내리뛰다.
△ 산속, 물속, 마음속, 머리속.
△ 처넣다, 처박다.

표 현

△ 미끄러지는척하다.
△ 큰소리를 치다.

회 화

○ 지금은 몇시입니까?
—8시입니다.
—9시입니다.
—10시 43분 21초입니다.
—정각 1시입니다.
—1시 반입니다.
—2시 10분전입니다.
—아침 6시입니다.
—낮 1시입니다.
—저녁 7시입니다.
—밤 11시입니다.
○ 동무는 몇시에 일어났습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 동무는 몇시에 아침밥을 먹었습니까?
—저는 7시부터 7시반 사이에 아침을 먹었습니다.
○ 강의는 몇시에 시작됩니까?
—8시 반에 시작됩니다.
○ 강의는 몇시에 끝났습니까?
—11시 40분에 끝났습니다.
○ 몇시간후에 강의가 시작됩니까?
—한시간후에 시작됩니다.

○ 몇분전에 강의가 끝났습니까?
—30분전에 강의가 끝났습니다.
○ 기숙사에서 학교까지는 몇분 걸립니까?
—한 15분쯤 걸립니다.

× × ×

—오전 11시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15분전 12시입니다.
—5분전 1시입니다.
—시계가 빠릅니다.
—시계가 뜹니다.

문 법

1) —다가 △ 동사+다가
가(다)+다가→가다가
읽(다)+다가→읽다가

2) —아(어, 여)서
동사, 형용사 + 아(어, 여)서
가(다)+아서→가서
보(다)+아서→보아서
읽(다)+어서→읽어서
주(다)+어서→주어서
쥐(다)+여서→쥐여서
밝(다)+아서→밝아서
붉(다)+어서→붉어서
희(다)+여서→희여서

3) —려(으려)고 하다
동사+려(으려)고 하다.
쓰(다)+려고 하다→쓰려고 하다

읽(다)+으려고 하다→읽으려고 하다

4) —아(어, 여, 이여)야 하다

명사+여야(이여야) 하다

동사 }
형용사 } 아(어, 여)야 하다

받다→받아—받아야 하다

보다→보아—보아야 하다

밝다→밝아—밝아야 하다

좋다→좋아—좋아야 하다

오다→와 —와야 하다

넓다→넓어—넓어야 하다

주다→주어—주어야 하다

들다→들어—들어야 하다

길다→길어—길어야 하다

읽다→읽어—읽어야 하다

하다→하여—하여야 하다

가다→가 —가야 하다

서다→서 —서야 하다

크다→커 —커야 하다

쓰다→써 —써야 하다

5) —지 않다

동사 }
형용사 } +지않다

모르(다)+지않다→모르지 않다

무섭(다)+지않다→무섭지 않다

멀(다)+지않다→멀지 않다

6) —기로 하다

동사+기로 하다

쓰(다)+기로 하다→쓰기로 하다

읽(다)+기로 하다→읽기로 하다

7) —는 척하다 동사+는 척하다

쓰(다)+는척하다→쓰는척하다

읽(다)+는척하다→읽는척하다

8) 소리바꿈

① 《ㄷ》—《ㄹ》

듣다 듣고 듣는 듣습니다 듣지않다	들으니 들으려고 들으며 들으시오 들어, 들었습니다
걷다 걷고 걷는 걷습니다 걷지 않다	걸으니 걸으려고 걸으며 걸으시오 걸어, 걸었습니다
묻다 묻고 묻는 묻습니다 묻지 않다	물으니 물으려고 물으며 물으시오 물어, 물었습니다

② 《ㄹ》—《ㄹㄹ》

오르다 오르고 오르며 오르지만 오릅니다	올라 올라서 올랐습니다
모르다 모르고	몰라 몰라서

모르며 모르지만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흐르다 흐르고 흐르며 흐르지만 흐릅니다	흘러 흘러서 흘렀습니다

③ 《ㄹ》—O

알다 알고 알며 알려고 알았습니다	아는 압니다 아십시오 아오
살다 살고 살며 살려고 살았습니다	사는 삽니다 사십시오 사오
열다 열고 열며 열려고 열었습니다	여는 엽니다 여십시오 여오
불다 불고 불며 불려고 불었습니다	부는 붑니다 부니 부오

긷다 긷고 긷며 긷지만 긷었습니다	긴 깁니다 기니 기오
멀다 멀고 멀며 멀지만 멀었습니다	먼 멉니다 머니 머오

※ 수자 읽는법

하나	—첫째	—일월	—하루	—한시
둘	—둘째	—이월	—이틀	—두시
셋	—셋째	—삼월	—사흘	—세시
넷	—넷째	—사월	—나흘	—네시
다섯	—다섯째	—오월	—닷새	—다섯시
여섯	—여섯째	—류월	—엿새	—여섯시
일곱	—일곱째	—칠월	—이레	—일곱시
여덟〔여덜〕	—여덟째	—팔월	—여드레	—여덟시
아홉	—아홉째	—구월	—아흐레	—아홉시
열	—열째	—시월	—열흘	—열시
열하나	—열한째	—십일월	—열하루	—열한시
열둘	—열두째	—십이월	—열이틀	—열두시
스물	—스무째			

련 습

1. 다음 단어를 정확히 발음하여보시오.

칼 목적
권총 착취
압박 살펴보다

큰 소리를 치다　　　　　찾아.
미끄러지는척하다　　　　유격대
처넣다

2.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1) 두 아동단원은 강가에서 무엇을 하고있었습니까?
2) 이때 멀리서 누가 걸어오고있었습니까? 이놈은 무엇을 차고 있었습니까?
3) 강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였습니까? 일제순사놈은 어떻게 강을 건너가려고 하였습니까?
4) 두 아동단원은 왜 일제순사놈을 업고 강을 건너가기로 하였습니까?
5) 두 아동단원은 일제순사놈을 업고 가다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6) 두 아동단원은 일제순사놈들에게서 빼앗은 총과 칼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3. 다음 단어의 반대말을 말하시오.

멀다	멀리
좁다	빨리
걷다	
크다	(옷을)입다
깊다	(신을)벗다
빠르다	(모자)를 벗다

4. 다음 문장에서 빈자리에 알맞는 토를 써넣으시오.

1) 두 아동단원이 강가… 고기잡이… 하고있었습니다.
2) 두 아동단원은 잠간동안 생각하… 그놈… 업… 강… 건너가… 하였습니다.

3) 순사놈… 업… 아동단원은 미끄러지… 척하… 그놈을 깊… 물속… 처넣었습니다.
4) 아동단원은 긴 칼… 그놈… 골통… 내리갔습니다.
5) 두 아동단원은 총… 칼… 가지… 유격대… 찾… 깊… 산속… 들어갔습니다.
6) 여기에는 다리가 없… 강을 건너가… 신발을 벗… 합니다.
7) 용감한 두 아동단원은 일제순사놈… 깊… 물속… 처박… 그놈

… 총과 칼… 빼앗았습니다.

5. 다음의 빈자리에 알맞는 말을 써넣으시오.

△ 본보기

…학생→학교에 가는 학생

1. …두 아동단원
2. …일본순사놈
3. …목적
4. …한 아동단원
5. …다른 아동단원

△ 본보기

나는 신문을…→나는 신문을 봅니다

1. 두 아동단원은 고기잡이를 …
2. 일제순사놈은 긴 칼과 권총까지 …
3. 두 아동단원은 잠간동안 무엇을 생각하다가 …
4. 한 아동단원이 그놈을 업고 …
5. 순사놈을 업은 아동단원은 미끄러지는척하면서 …
6. 순사놈은 《어푸어푸》하면서 …
7. 다른 아동단원은 재빨리 권총과 칼을 …
8. 그 다음은 긴 칼로 일제순사놈의 골통을 …
9. 두 아동단원은 그놈을 …
10. 두 아동단원은 총과 칼을 일제순사놈에게서 …

6. 다음 문장에서 밑줄을 그은 말들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 말하시오.

1) —이놈은 긴 칼과 권총까지 차고있었습니다.
—강한가운데까지 왔습니다.
2) —나는 학교까지 갑니다.
—나는 너무 기뻐서 손벽까지 쳤습니다.
3) 그러나 이 강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아동단원은 그놈의 다리를 쳐들고 따라갔습니다.
4) —순사놈은 긴 칼과 권총까지 찼다.
—어제 우리는 운동장에서 뽈을 찼다

7. 다음 말을 가지고 문장을 지으시오.

멀리서	…까지
처넣다	…다가
미끄러지다	…면서
빼앗다	…려고 하다
허위적거리다	…기로 하다
살펴보다	…아(어여)야 하다.

8. 본문을 여러번 읽고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여보시오.

어린동무 노래부르자

1. 자유의 강산에서 우리 자라고
평화의 락원에서 꽃피려하는
새나라 어린동무 노래부르자
세상에 부러울것 그 무엇이냐

2. 창공에 밝은 달 찬란한 그 빛
바다에는 밝은 달 명랑한 그 빛
바다에는 별들이 꼬리쳐 놀고
푸른 들엔 양떼들이 무리져있다

3. 동무들 어린 군인 노래부르자
로동주권 굳게 잡은 자유의 터에
영원한 자유 평등 모두 찾으려
온세상 어린이여 다들 오너라.

제 7 과

우리 집

우리 집에는 모두 여섯식구가 살고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님과 누님 그리고 나와 녀동생이 있습니다.

해방전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제놈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받았습니다. 학교문앞에는 꿈에도 가보지 못했으며 제 이름자도 쓸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해방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은덕아래 우리 가정에도 배움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따라 일하면서 공장대학을 졸업하시고 오늘은 천리마기계공장의 직장장으로, 도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일용품공장 놀이감직장에서 완성공으로 일하고계십니다.

형님은 조선인민군 지휘관으로서 조국보위의 초소에 믿음직하게 서있습니다. 형님은 원쑤 미제승냥이놈들을 때려부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공화국영웅이 되였습니다.

평양기계대학 통신학생인 누님은 아버지와 같은 공장에서 선반직장 천리마기수로 일하고있습니다.

나는 지금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4학년에서 공부하고있습니다.

래년에 누님과 나까지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가정에는 기사, 전문가가 3명이나 됩니다.

인민학교에 다니는 녀동생은 모범소년단원이며 최

우등생입니다. 체육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98개의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에서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공부하고있습니다. 특히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배합하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동방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였습니다. 더우기 대학생들과 고등기술학교 학생들은 나라에서 장학금까지 받으며 행복하게 공부하고있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어느 가정, 어느 누구 할것없이 다 이런 행복을 누리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주인은 일제시기 지주, 자본가들에게서 압박받고 천대받던 로동자, 농민들입니다.

그러나 일제시기에는 놀고 먹는 일제놈과 지주, 자본가들이 근로자들을 착취하며 《주인》노릇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이 피땀흘려 이룩해놓은 열매는 일제놈과 지주, 자본가들이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근로자들은 하루 12~14시간씩 일을 하였지만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잘 살수 없으며 공부도 할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5성상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시여 일제놈과 지주, 자본가놈들을 때려부시고 나라를 찾아주셨습니다.

원수님께서 찾아주신 우리 나라에는 착취하는 사람도 없고 착취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공장과 농촌에서 그리고 모든 일터에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하고있습니다.

발 음

△ 근로자〔글로자〕
△ 먹는다〔멍는다〕
△ 그렇기때문에〔그러키때무네〕
△ 굶주리다〔굼주리다〕
△ 없으며〔업스며〕
△ 일자리〔일짜리〕

단 어

식구
누님
모두
동생
　너동생
해방
　해방전
　해방후
압박
문
　문앞
꿈
보다
　가보다
—지 못하다
자기→제
이름
　이름자
은덕
활짝
열다—열리다
교육
체계
　교육체계
따르다
공장대학
졸업하다
천리마기계공장
직장장
인민회의
도인민회의
대의원
계시다(존)→있다
일용품공장
놀이감직장
완성공
조국보위
초소
믿음직하게
서있다
지휘관
지나다→지난
조국해방전쟁
원쑤
미제
승냥이
싸움
공화국영웅
기계
통신
　통신학생
같다→같은

선반직장
지금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4학년
기사
전문가
모범
오늘
소년단원
최우등생
체육
잘
각급
인구
해당하다
돈
한푼
일반교육
기초기술교육
기술의무교육
동방
장학금
처음으로
실시되다
행복하다
주인
지주
자본가
세상
받다
버림받다
천대받다

아들
딸
먹다
놀고먹다
일제놈
노릇
피
땀
흘리다
이룩하다
열매
빼앗아가다
그렇다
—기때문에
헐벗다
굶주리다
이러한→이런
—ㄹ(을)수 없다
경애하다
수령
성상
간고하다
무장투쟁
항일무장투쟁
전개하다
때려부시다
주다
찾아주다
착취받다
들이다
인민학교
더우기
북반부

어느
할것없이
행복
누리다
없다

농촌
다르다→다른
모든
일러

단어만들기

△ 압박받다, 착취받다, 천대받다, 억압받다.
△ 굶주리고있다, 일하고있다, 공부하고있다.
△ 기계공장, 일용품공장, 전기기관차공장, 자동차공장, 뜨락또르공장.
△ 기계직장, 선반직장, 주물직장, 놀이감직장.
△ 최우등생, 우등생, 연구생, 실습생, 졸업생.
△ 작업반장, 직장장, 위원장.
△ 빼앗아가다, 가져다주다.

표 현

꿈에도 가보지 못하다. 　　돈을 들이다.
제이름자도 쓰지 못하다. 　　행복을 누리다

회 화

○ 동무는 몇살입니까?
—(저는) 스물한살입니다.
○ 동무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저의 생일은) 1948년 2월 8일입니다. 이날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창건된 날입니다.
○ 동무는 몇살에 인민학교에 들어갔습니까?
—(저는) ××살에 인민학교에 들어갔습니다.
○ 동무는 몇살에 중학교를 마쳤습니까?
—저는 ××살때 중학교를 마쳤습니다.
○ 동무의 형님은 몇살입니까?
—저의 형님은 스물다섯살입니다.
○ 동무의 동생은 몇살입니까?
—아직 어립니다. 겨우 여섯살입니다.

○ 아버지의 나이는 몇이십니까?

—쉰넷입니다.

○ 동무의 가정은 식구가 몇입니까?

—여덟입니다.

○ 누구누구입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님, 남동생과 녀동생이 있습니다.

○ 할아버지는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올해에 일흔아홉이십니다.

○ 할아버지께서는 건강하십니까?

—예, 아주 건강하십니다.

○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고계십니까?

—전기기관차공장 로동자입니다. 올해에 공장대학을 졸업하시게 됩니다.

○ 어머니는 무엇을 하십니까?

—식료공장에서 천리마작업반장으로 일하고계십니다.

○ 형님은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저의 형님은 인민군대입니다.

○ 누님은 무엇을 합니까?

—공업대학에서 공부합니다.

○ 동생은 몇살입니까?

—열다섯에 났습니다.

○ 그럼 중학교에 다니겠군요.

—예,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 모두가 일하고 배우는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문 법

1) 도움토

① —만

명사 }
수사 } +만
대명사 }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지주, 자본가들만 잘 살고 근로자들은 잘

살수 없다. (제한)

② —부터, —까지

명사 }
수사 } +부터, 까지
대명사 }

—학교부터 기숙사까지

—대학생들은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공부한다. (포함)

—재단여부터 외우시오. (출발)

③ —나(이나)

명사 }
수사 } +나(이나)
대명사 }

—신문이나 잡지를 주십시오. (선택)

—만년필이 없으면 연필이나 주시오. (양보)

—우리 가정에는 대학졸업생이 네명이나 됩니다. (강조)

※
우리 —는 / —도 / —만 / —부터 / —까지 / —마저 / —조차 —갑니다

2) 존칭토, —시(—으시), —이시

품 사	받침이 없을때	받침이 있을때
명사, 대명사	어버이이시다	수령이시다
동사, 형용사	주시다, 크시다	받으시다, 높으시다

※ 말씀하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잡수시다.

3) —ㄹ(을)(일)수 없다(있다)

품 사	받침이 없을때	받침이 있을때
명사, 수사, 대명사	로동자일수 있다	학생일수있다
명사, 형용사	줄수 있다 될수 있다	받을수있다 높을수있다

4) —기 때문에

동사, 형용사 } + 기 때문에

명사, 수사, 대명사 } + 이기때문에

오(다) + 기때문에 → 오기때문에

읽(다) + 기때문에 → 읽기때문에

높(다) + 기때문에 → 높기때문에

로동자 + 이기때문에 → 로동자이기때문에

학생 + 이기때문에 → 학생이기때문에

5) —지 못하다

동사, 형용사 } + 지못하다

쓰(다) + 지 못하다 → 쓰지못하다

읽(다) + 지 못하다 → 읽지못하다

높(다) + 지 못하다 → 높지못하다

비교 { 나는 오늘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6) —가(이), —로(으로) } 되다

명사, 수사 } —가(이), 로(으로)되다

기사가 되다

기사로 되다

영웅이 되다

영웅으로 되다

7) 인칭대명사

인 칭	계칭 / 수	높인말	보통말	낮춘말
1인칭	단수	저(제)	나(내)	나(내)
	복수	저희 저희들	우리, 우리들	우리, 우리들
2인칭	단수	〔당신〕	자네, 그대	너(네)
	복수	〔당신들〕	자네들, 그대들	너희, 너희들
3인칭	단수	그		
	복수	그들		

※ 수자를 읽는법

1) 분수를 읽을때 —《일, 이, 삼, …》체계로 읽는다.

례: $\frac{2}{3}$(삼분의 이), $\frac{1}{10}$(십분의 일)

2) 소수를 읽을때 —《일, 이, 삼, …》체계로 읽는다.

례; 0.01(령점 령일)

4.5 (사점 오)

234.56(이백삼십사점 오륙)

3) 계산의 단위로 되는 명사(단위명사)의 앞에서 —《하나, 둘, 셋, …》체계로 읽는다. (100이하에서)

례: 닭 2마리, 20마리(두마리, 스무마리)

나이 3살, 30살(세살, 서른살)

옷 4벌, 40벌(네벌, 마흔벌)

사과 5개, 50개(다섯개, 쉰개)

책 6권, 60권(여섯권, 예순권)

알곡 7톤, 70톤(일곱톤, 일흔톤)

비행기 8대, 80대(여덟대, 여든대)

4) 시간을 나타낼때 —《시》는 반드시 《하나, 둘, 셋, …》체계로

읽고 《분, 초》는 《일, 이, 삼, …》체계로 읽는다.

례: 4시 (네시)

7시 25분(일곱시 이십오분)

12시 35분 15초(열두시 삼십오분 십오초)

5) 《원, 전》, 《년, 월, 일》, 《개년》, 《도, 분》, 《%》를 읽을때 —《일, 이, 삼, …》체계로 읽는다.

례: 14원 58전(십사원 오십팔전)

1948년 9월 9일(일천구백사십팔년 구월 구일)

7개년계획(칠개년계획)

38°5′(삼십팔도 오분)

115%(백십오 퍼센트)

6) 수자사이의 부호 《~》는 《내지》로 읽는다.

3~5년(삼내지 오년)

70~80만톤(칠십내지 팔십만톤)

련 습

1.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여보시오.

갈다→같이, 같은	최우등
천대받다	근로자
착취하다	천리마
빼앗다	옛날
그렇기때문에	작년
농촌	압박
직장장	

2.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오늘 우리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2)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누가 《주인》노릇을 합니까?

3)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왜 잘살수 없습니까?

4) 동무의 가정에 대하여 말하시오.

3. 본문에서 《하다》, 《받다》가 명사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동사를 찾고 이 단어의 뜻을 말하시오.

4. 본문에서 형용사를 찾고 이 단어가 어떤 형태로 쓰이였는가를 말하시오.

5. 본문에서 두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동사를 찾고 그 뜻을 말하시오.

6. 다음 문장에서 빈 자리에 알맞는 말을 써넣으시오.

1) 오늘 우리 나라에서 나라의 …옛날 …던 근로자들입니다.

2)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열매를 지주, 자본가들이 다…

3) 나는 지금 김일성종합대학에…

4) 누님은 선반직장에서…

5) 작년에 공장대학을 …아버지는 지금 기사로 일하고계십니다.

6) 형님은 지난조국해방전쟁시기 원쑤미제 승냥이놈들을… 공화국…

7. 다음 문장에서 빈자리에 알맞는 토를 써넣으시오.

1)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몇몇 지주, 자본가놈들이 나라의 《주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2) 우리 가정은 일하… 공부… 행복한 가정입니다.

3) 공장대학… 다니는 누님… 아버지… 같은 공장… 선반직장 천리마기수… 일하고있습니다.

4) 우리 가정… 기사, 전문가가 세명… 됩니다.

5) 녀동생은 인민학교… 모범소년단원… 최우등생… 공부하고 있습니다.

8. 본문에서 토《—로(으로)》가 있는 문장을 찾으시오. 《—로(으로)》의 뜻을 아는대로 말하시오.

9. 다음 단어의 앞에 문장을 써넣으시오.

본보기; …우리 나라→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공부하는 <u>우리 나라</u>

1) …근로자	4) …사회주의사회
2) …지주, 자본가	5) …아버지
3) …자본주의사회	6) …어머니

10. 짧은 글 짓기

이룩하다	노릇
빼앗다	…기 때문에
굶주리다	…나(이나)
잘	…이며

11. 동무의 가정에 대하여 학습장에 써보시오.

제 8 과

미제는 승냥이

지금도 나의 얼굴에는 하나의 커다란 흠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열한살때 미국선교사 《허시몬》이란 놈이 낸 흠집입니다.

그때 우리 마을옆에는 미국선교사 《허시몬》이란 놈이 살고있었습니다. 당시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강점하고있을 때였습니다. 미국선교사놈들은 조선의 가는곳마다에 기여들어 일제놈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인민들에게 《하느님》과 《자선》을 선전하였습니다. 그놈들은 모두다 사람의 가죽을 쓴 승냥이놈들이였습니다.

나는 일찌기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의 품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나는 어린 몸이지만 매일 어머니를 도와 김도 매고 나무도 해왔습니다.

어느날 나는 나무하러 산에 갔습니다. 나는 나무를 한짐 해지고 《허시몬》이란 미국놈의 사과밭옆을 지나게 되였습니다.

그때 가을바람에 새빨간 사과 한알이 떨어져 울타리밖으로 굴러나왔습니다.

이때 《허시몬》이란 놈이 울타리옆을 지나다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놈은 사냥개를 데리고 나의 앞으로 왔습니다.

그놈은 나의 빰을 막 때리며 두팔을 비틀어 사과나무에 꽁꽁 매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승냥이 같은 그놈은 사냥개를 세워놓고 집으로 달려가 청강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놈은 청강수로 나의 이마에 《도적》이라고 쓴 다음 《이것은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벌이다.》라고 지껄였습니다. 나는 너무도 쓰리고 아파서 정신을 차릴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놈은 오히려 좋다고 너털웃음까지 쳤습니다. 나의 이마에 《도적》이라고 쓴 그 승냥이놈을 보는 나의 눈에서는 막 불이 이는듯하였습니다. 죄없는 사람의 이마를 청강수로 지지는 그날강도 승냥이놈을 두고 어떻게 참을수 있겠습니까? 내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 마귀같은 놈의 손에서 빠져나와 이마를 두손으로 움켜쥐고 집으로 달려왔을 때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너무도 격분하여 낫을 들고 그 승냥이놈을 찔러죽이겠다고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자 모두다 도끼와 낫, 몽둥이를 들고 그 승냥이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놈은 벌써 두려워서 어디로 숨어버렸습니다. 《허시몬》이란 놈은 그후에 자기의 죄가 온 나라에 알려지자 일본놈들의 비호를 받아 제나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미제놈들이란 모두다 이 《허시몬》이란 놈과 같이 가장 야만적인 승냥이들입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승냥이의 본성이 변할수없는것처럼 미제놈들도 예나 지금이나 자기의 야수적본성을 버릴수 없습니다.

오늘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승냥이놈들은 자기들의 야수적인 본성을 드러내놓고 온갖 만행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놈들은 대낮에 남의 집에 뛰여들어가 물건

을 빼앗고 죄없는 인민들을 함부로 죽이는 날강도놈들입니다. 이 날강도놈들은 산에서 나물캐는 아이들을 과녁삼아 총질을 하며 배고파 길가에서 헤매는 아이들을 《도적》이라고 쏴죽이고있습니다. 또한 그놈들은 어린이들과 늙은이들을 자동차와 땅크로 깔아죽이고 녀성들의 머리를 가위로 모조리 자르는 만행을 감행하고있습니다.

이처럼 미제국주의자들은 력사적으로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이며 사람의 가죽을 쓴 승냥이놈들입니다.

우리는 미제승냥이놈들과 한 하늘을 이고 절대로 같이 살수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을 이 세상에서 모조리 쓸어버리지 않고는 하루도 편안히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미제승냥이놈들을 남녘땅에서 몰아내야 하며 이 세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려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반드시 멸망할것이며 남녘형제들이 공화국북반부인민들처럼 김일성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 행복하게 살 그 날은 꼭 오고야 말것입니다.

단 어

지금
얼굴
커다랗다
흠집
—ㄹ때
선교사
내다
당시
제국주의
제국주의자
강점하다
—마다
기어들다
비호
—하다
—를 받다
선전하다
모두다
가죽(을 쓰다)
일찌기
잃다
어렵다
돕다→도와
나무를 하다
한짐
사과밭
울타리
밖
굴다
  굴러나오다
사냥개
데리다
앞
  앞으로
뺨
막(부)
때리다
팔
비틀다
꽁꽁(부)
매놓다
세우다
  세워놓다
달리다→달려가다
청강수
지껄이다
쓰리다
차리다
오히려
웃음
  너털웃음
증오
불타다
도적
지지다
날강도
참다
겨우
마귀
빠지다
  빠져나오다
이마
움켜쥐다
너무도
격분하다
낫
찍다
죽다→죽이다
도끼
몽둥이
도망치다
  도망쳐버리다
죄
—고 말다
야만적
그때
끓다
오르다
  끓어오르다
본성

변하다	늙은이
—ㄴ것처럼	깔다
예←옛날	너성
야수적	가위
버리다	모조리
드러내놓다	감행하다
만행	력사적으로
다하다	흉악하다
뛰여들다	가죽
물건	절대로
함부로	쓸어버리다
땅크	편안히
길가	남녀
헤매다	남녀명
나물	끝까지
캐다	멸망하다
과녀	～ㄹ것이다
삼다	안기다—안다
총질	～고야 말다
～하다	

단어만들기

사냥개, 사냥군, 사냥총
세워놓다, 눕혀놓다, 올려놓다, 받아놓다, 내려놓다
길가, 강가, 바다가, 우물가
자애롭다, 슬기롭다, 영예롭다
총질, 빨래질, 마당질
커다랗다, 높다랗다, 넓다랗다

표 현

정신을 차리다
정신을 잃다

눈에서 불이 이는듯 하다
치가 떨리다

회 화

—나는 대학생입니다.
—나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합니다.
—나는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나는 아침 일찌기 일어납니다.
—나는 아침에 체조를 합니다.
—나는 이를 닦고 세수를 합니다.
—나는 동무들과 함께 학교에 갑니다.
—나는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갑니다.
—매일 하루에 두강의씩 받습니다.
—이 사전을 좀 빌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옷(외투)을 입습니다(입다≠벗다)
—넥타이를 맵니다(매다≠ 풀다)
—모자를 씁니다(쓰다≠ 벗다)
—신(양말)을 신습니다(신다≠ 벗다)
—문을 엽니다(열다≠ 닫다)
—책을 폅니다(펴다≠ 접다)
—전등을 켭니다(켜다≠ 끄다)
—밥(빵)을 먹습니다(먹다)
—물을 마십니다(마시다)

문 법

1)—란(이란)

명사 }
수사 } + 란(이란)
대명사 }

—이번 시험에서는 영남이란 학생이 가장 우수하였습니다.(이라고 하는)

—미제놈들이란 사람의 가죽을 쓴 승냥이놈들입니다.(이란)

2)—마다

명사 }
대명사 } + 마다

—사람마다,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집집마다, 시간마다

—나라마다, 거리마다

—저마다

3)—처럼

명 사 }
수 사 } + 처럼
대명사 }

—그는 번개처럼 빠릅니다.

—래일도 오늘처럼 더울것입니다

4)—자　　동사+자

—종이 울리자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공격명령이 내리자 전사들은 앞으로 달려나갔다.

5)—다가　　동사+다가

—학교에 가다가 김동무를 만났다.

—리수복영웅은 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6)—나(이나)

명 사 }
수 사 } + 나(이나)
대명사 }

—교과서나 학습장

—학습장이나 연필

—셋이나 다섯

7)—ㄹ(을)때, ㄹ(일)때,

동 사 }
형용사 } + ㄹ(을)때,　　명 사 / 수 사 / 대명사 } ㄹ(일)때

—쓰(다)+ㄹ때←쓸때

—읽(다)+을때→읽을때

—크(다)+ㄹ때→클때

—작(다)+을때→작을때

—학생일때

—다섯일때

—기사ㄹ때(기사일때)

—하나ㄹ때　(하나일때)

—항일유격대원들은 행군할때도 훈련할때도 학습을 계속하였습니다.

8)—러(으러)가다　　동사+러(으러) 가다

—나는 공부하러 학교에 간다(오다)

—인민군대용사들은 원쑤와 싸우러 전선으로 떠났다.

—배들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간다.

9)—듯하다

—가는듯하다 읽는듯하다 (현재)

—간듯하다 읽은듯하다 (과거)

—갈듯하다 읽을듯하다 (미래)

10) 지시대명사

대상 \ 거리	이야기하는사람에게 가까이	이야기듣는사람에게 가까이	멀리
일반적	이	그	저
물 건	이것	그것	저것
장 소	여기	거기	저기
방 향	이리	그리	저리

11) 단위명사

개—책상 두개	벌—옷 여섯벌
그루—나무 세그루	자루—연필 일곱자루
권—학습장 네권	장—종이 여덟장
대—자동차 녀대	채—집 열채
마리—소 다섯마리	켤레—신 한켤레
	알—사과 한알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이 일은 〔내가〕 몇살때 있은 일입니까?
   2) 지금 〔나의〕 얼굴에 있는 흠집은 어떻게 생긴것입니까?
   3) 열한살때 〔나의〕 생활은 어떠하였습니까?
   4) 우리 나라에 기여든 미국선교사놈들은 누구의 비호를 받으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5) 어느날 〔나는〕 무엇하러 산에 갔습니까?
   6) <허시몬>이란 놈은 사과밭옆을 지나가는 나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7)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님과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8) 미국선교사놈은 왜 숨어버렸습니까?
   9) 미국선교사놈은 자기 죄가 온나라에 알려지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10) 지금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의 만행을 말하시오.
   11) 왜 이 세상에서 미제를 쓸어버리지 않으면 하루도 편안히 살수 없습니까?
   12) 우리들이 모두다 편안하게 살려면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13) 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사람의 가죽을 쓴 네발가진 승냥이라고 합니까?
2. 다음 빈자리에 알맞는 토를 써넣으시오.

   1) 나는 매일 어머님… 도와 김… 매고 나무… 해왔습니다.
   2) 가을 바람… 새빨간 사과한알이 떨어져 울타리 밖… 굴러나왔다.
   3) 나는 겨우 정신… 차리고 마귀같은 놈의 손… 빠져나와 집… 달려왔다.
   4) 승냥이의 본성이 변할수 없는것… 미제놈들은 예나 지금…자기의 야수적본성을 버릴수 없다.
   5)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은 력사적…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사람… 가죽… 쓴 승냥이놈들입니다.
3. 괄호안의 단어들을 알맞는 형태로 만드시오.
   1) 지금도 나의 얼굴에는(커다랗다) 흠집이 하나 있습니다.
   2) 나는 일찌기 아버지를(잃다)어머니의 품에서(어렵다)살았습니다.
   3) 어머니는 너무도(격분하다)낫을(들다)그 승냥이놈을 찔러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4) 나는 너무나 (쓰리다)(아프다) 정신을 차릴수 없었습니다.
   5) 나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생각하다) 가슴에서 피가 끓어오릅니다.
   6) 미제승냥이놈들은 대낮에 남의 집에(뛰여들어가다) 물건을(빼앗다)죄없는 인민들을 함부로(죽이다) 날강도놈들입니다.
4. 아래의 단어들을 뜻이 비슷한 단어로 바꾸고 문장을 지으시오.
   가는곳마다, 어린몸이지만, 몹시, 집으려고하다, 오히려, 목숨, 온갖, 함부로.
5. 다음 단어들을 리용하여 문장을 지으시오.
   자애롭다, 하루도, 쓸어버리다, 본성, 예나 지금이나, 겨우, 알려지다.
6. 다음 문장을 읽고 외우시오.
   1) 미제국주의는 세계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입니다.
   2)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국제헌병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전세계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다.
   3)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인민들에게 독립을 선사할수 없다.
   4) 제국주의의 본성은 변할수 없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이다.

5) 피압박인민들은 오직 투쟁에 의해서만 자기자신을 해방할 수 있다.
6)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
7)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후 이 20여년동안 미제가 일으킨 침략과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은 날이란 하루도 없다.
8) 미제국주의야말로 력사상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략탈자이다.
9)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국주의에 공격을 집중하는것이 필요하다.

제 9 과

담요에 깃든 이야기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부모형제들을 원쑤들에게 빼앗기고 빨찌산대오에 들어온 나어린 전사들을 친어버이와 같이 사랑하여주시였고 키워주시였습니다.

1939년 가을, 안도현 어느 숲속에서 부대가 숙영하던 때의 일입니다.

전령병들은 원수님이 계실 천막을 치고 그이께서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숙영하는 여러 부대들을 돌아보시러 나가신 원수님께서는 밤이 퍽 깊었으나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님이 계시지 않는 천막안은 텅 빈것만 같았습니다.

《왜 안 오실가?》

《이제 돌아오실거야》

《또 먼저번처럼 련대지휘부에서 주무시면 어쩌나?》

전령병들은 원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천막을 들락날락하였습니다.

《그럼 어디 계시는지 내가 알아보마》하고 한 전령병이 성급히 밖으로 뛰여나갔습니다.

어두컴컴한 수림속은 잠든듯이 고요하였습니다. 유격대원들은 여기저기에 피워놓은 불무지 곁에서 모두 곤히 잠들고있었습니다. 그는 잠든 대원들이 깨여날가 두려워서 발자국소리를 죽이며 수림속을 걸어갔습니다.

가실만한곳을 다 찾아보았으나 원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사이에 원수님께서 천막으로 돌아오시지 않았을가 하여 그는 다시 천막쪽으로 발길을 돌리였습니다.

늦은 가을, 북방의 깊은 숲속의 밤날씨는 소름이 끼칠만큼 몹시 찼습니다. 대원들은 땅에 떨어진 나무잎들을 긁어모아 이불삼아 덮고 잠들고있었습니다. 전령병동무는 잠든 동무들의 사이를 조심조심 걸으며 맞은편 수림속으로 갔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허리를 굽히시고 흩어진 나무잎들을 모으시며 잠든 대원들을 덮어주고 계시는 원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포를 가져오시오.》원수님은 곁에서있는 다른 전령병에게 나직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담요는 … 사령관동지의 것밖에 없습니다.》 전령병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천막이면 충분하오. 이 동무는 감기에 걸렸으니 든든히 덮어줘야겠소. 어서 가져오시오.》

인자하시고도 엄격하신 원수님의 말씀에 못이겨 전령병은 더는 아무말도 못하고 사령부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시 허리를 굽히시고 나무잎을 모으시는 원수님의 모습이 불무지의 불빛속에서도 조용히 움직이고있었습니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잠든 대원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시며 빙긋이 웃으시였습니다.

대원들에 대한 원수님의 이 깊고 넓은 사랑과 배려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잠든 대원들을 한명한명 돌아보시며 찬 이슬을 막아주시기 위해 흩어진 나무잎들을 쓸어모으고계시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들의 가슴속에 별처럼 빛나고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태양보다 뜨겁고 바다보다 깊은 어버이 수령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라고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서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자라나는 우리들은 끝없이 행복합니다.

단 어

담요
깃들다
부모
형제
원쑤
빼앗기다
들어오다
나어리다(나이+어리다)
전사
어버이
—와(과) 같이
키워주다
(크다—키우다)
숲
무대
숙영
숙영하다
숙영지
일
전령병
계시다(존)—있다
천막
치다
돌아오다
기다리다
돌아보다
나가다
밤
퍽(부)
깊다
안
왜
이제
먼저번
텅비다
련대
지휘부
주무시다
어쩌나?
(어떻게 하겠는가?)
들락날락하다
그럼=그러면
성급하다
뛰여나가다
어둑컴컴하다
수림
잠들다
고요하다
여기저기
피우다(불을~)
불무지
곁
곤하다
곤히
깨다
깨여나다
두렵다
발자국소리
그사이에
발길〔발낄〕
돌리다
늦다
늦은 가을
북방
쪽
소름
끼치다
몹시
차다(날씨가~)
떨어지다
나무잎
긁다
긁어놓다
이불삼아
잠들다
덮다
조심조심
맞은편
허리
굽다

굽히다
흩어지다
모습
모포
가져오다
나직이
충분하다
사령관
동지
감기에 걸리다
든든하다
　든든히
인자하다
엄격하다
말씀(존)←말
못이기다〔몬니기다〕
　～에 못이겨
조용하다
　조용히

불빛
움직이다
들여다보다
대원
빙긋이
어찌
한명
표현하다
이슬
막다
쓸다
　쓸어뭉다
별
태양
자애롭다
마음껏
자라다
충직하다
끝없이

단어만들기

△먼저번, 지난번, 이번, 여러번, 한번.
△전령병, 련락병, 포병, 땅크병.
△지휘부, 사령부, 련대부, 중대부.
△천막쪽, 동쪽, 남쪽, 왼쪽, 오른쪽.
△맞은편, 건너편, 저편
△북방, 남방, 동방, 서방
△마음껏, 힘껏, 열성껏, 능력껏, 정성껏.
△돌아오다, 돌아보다.
△들락날락하다, 보일락말락하다, 들릴락말락하다.

표 현

△천막을 치다.
△밤이 깊다.
△잠든듯이 고요하다.
△발자국소리를 죽이다.
△발길을 돌리다.
△소름이 끼치다.
△감기(병)에 걸리다.
△아무말도 못하다.
△말로 다 표현할수 없다.

회 화

○동무는 어디에서 생활합니까?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동무의 기숙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에서 멀지않은 곳에 있습니다.
○동무는 몇층에 있습니까?
—3층에 있습니다.
○동무는 몇호실에 있습니까?
—315호실에 있습니다.
○방안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까?
—침대, 책상, 걸상, 책장, 옷장, 이불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아침체조를 합니다.
—치솔로 이를 닦습니다.
—세수를 합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씻습니다.
—빗으로 머리를 빗습니다.
—구두를 닦습니다.
—방안의 먼지를 털고 청소를 합니다.

○식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식당은 기숙사에 붙어있습니다.
○동무는 어떤 준비를 하고 학교에 옵니까?
—저는 교과서와 학습장을 책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은 다음 모자를 쓰고 학교에 옵니다.
○학교에서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책가방을 열고 책과 학습장을 꺼내여 책장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걸상에 앉아서 신문도 보고 복습도 합니다. 우리는 저녁마다 배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합니다.
○일요일은 어떻게 지냅니까?
—일요일에는 기숙사에서 숙제와 복습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저녁에는 영화도 봅니다.

문 법

1)—나(으나), 이나

동 사, 형용사 } + 나(으나)

명 사, 수 사, 대명사 } + 이나

보았(다) + 으나→ 보았으나
읽었(다) + 으나→ 읽었으나
붉다 + 으나→ 붉으나
푸르다 + 나→ 푸르나
바다이나, 산이나

2) —는지 알다(모르다)

동사 + 는지 알다(모르다)

어디에 가(다)는지 알다.
어디에 갔(다)는지 알다.
무엇을 읽(다)는지 알다.
무엇을 읽었(다)는지 알다.

인지 알다(모르다)

명 사, 대명사 } + 인지 알다(모르다)

누가 천리마기수인지 알다.
그가 누구인지 알다.

3) —ㄴ(은)듯이 동사 + ㄴ(은)듯이
—본듯이, 읽은듯이 (과거)
—보는듯이, 읽는듯이 (현재)
—볼듯이, 읽을듯이 (미래)

4) —ㄹ(을)가 하여 동사 + ㄹ(을)가 하여
—비가 올가 하여 비옷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김동무가 도서관에 있을가하여 나는 그리로 갔다.

5) 어찌…겠는가
—대원들에 대한 원수님의 이 깊고 넓은 사랑과 배려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학생들에 대한 원수님의 육친적사랑과 배려를 어찌 다 말할수 있겠는가!

6) 소리바꿈
《ㅂ》—《오》, 《우》

덥다	더우니
덥네	더우면
덥고	더워서
덥습니다	더웠다
덥지 않다	
돕다	도우니
돕네	도우면
돕고	도와서
돕습니다	도우시오
돕지 않다	도왔다

※ 춥다, 쉽다, 어렵다, 돕다, 곱다, 밉다, 아름답다, 즐겁다, 무섭다.

7) 의문대명사

구분	의문대명사	례	비고
사람	누구(누) 아무	누구입니까? 누가 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누구나 아무나
물건	무엇 어느(것) 아무(것) 무슨 웬	무엇입니까? 어느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일입니까? 웬 일입니까?	무엇이나 어느것이나 아무것이나 — —
수량	얼마 몇	얼마입니까? 몇입니까?	얼마나 몇이나
장소	어디	어디입니까?	어디나
시간	언제	언제 갑니까?	언제나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이 일은 언제 어디에서 있은 일입니까?
   2)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부모를 원쑤들에게 빼앗기고 유격대에 들어온 나어린 전사들을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3) 전령병들이 천막을 쳐놓고 기다릴때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어디에 가셨습니까?
   4)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왜 모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 김일성원수님께서 모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실때 전령병은 왜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6)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모포를 누구에게 덜어 주셨습니까?
   7) 대원들에게 돌려지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하여 말하여 보시오.
2. 다음 단어들의 반대말을 쓰시오.

돌아오다	(나이) 어리다
다르다	(천막을) 치다
충분하다	잠이 들다
행복하다	(불을)피우다
늦은(가을)	(발자국소리를)죽이다
굽히다(허리를)	

3. 다음 단어들과 뜻이 비슷한 단어들을 쓰시오.

성급히	나직히 말하다
곁	고요하다
두려워하다	곤히 잠들다
몹시	사이

4. 다음의 단어들로 문장을 지으시오.

깃들다	엄격하다
몹시	인자하다
성급히	충직하다
나직이	행복하다

5. 다음의 토들로 문장을 지으시오.

—으나	—마	—나(으나)
—ㄴ듯이	—ㄹ만큼	—만
—ㄹ만한	—께서	—아(어, 여)서

6. 본문에서 아래의 뜻을 가진 토들을 찾으시오.

목적	대립
약속	의문
희망	

제 10 과

풍년가을

뜨락또르로 밭을 갈고 기계로 농사짓는 협동벌에 가을이 왔다.

올해에는 풍년이 들었다.

농장원들이 땀흘려 부지런히 가꾼 곡식들과 과실들이 들에도 산에도 무르익었다.

끝없이 넓은 농장벌에 누렇게 익은 벼이삭들이 파도처럼 넘실거린다.

산마다에는 빨갛게 익은 과실들이 주렁주렁 열렸다.

풍년맞은 농장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흥겨운 마음으로 가을걷이를 다그친다.

벼단을 가득 싣은 자동차들이 탈곡장으로 분주히 달린다. 그리고 가을을 끝낸 논밭에서는 뜨락또르들이 줄을 지어 땅을 갈아엎는다.

탈곡기는 쉬임없이 돌아가고 기계로 벼를 훑는 농장원들의 얼굴마다에는 끝없는 기쁨이 어리여있다.

풍년을 맞이한 협동마을에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그칠줄 모른다.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에서는 일하면 일할수록 새힘이 더욱 솟는다.

어제날에는 악독한 일제놈들에게 착취와 압박을 당하던 이 나라 농민들에게 누가 오늘의 이 풍년, 이 행복을 마련하여 주었는가?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마련하여 주셨지요.》농장원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한다.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일제를 때려부시고 우리 나라를 해방시킨후에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땅을 주셨다. 농장원들은 땅을 받던 날 너무나 감격하여 흙을 그러쥐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땅을 주신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천백번 감사를 드리고 또 드렸다.

그 기쁨안고 우리 나라 농민들은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는 일에 달라붙었다.

그들은 그이께서 밝혀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길을 따라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간다.

로동계급은 자기들이 만든 크고 작은 현대적 농기계들과 갖가지 농약들이며 화학비료들을 넉넉히 보내주고있다.

지금은 호미와 보습대신에 뜨락또르로 밭을 갈고 등짐과 지게 대신에 자동차로 벼단을 나른다.

가없이 넓은 논벌에는 관개수가 흘러넘친다. 옛날에는 하늘만 쳐다보며 드레질하던 농민들이 오늘은 양수기로 물을 끌어올린다. 그리고 여름내 허리를 펴보지 못하던 그들이 약으로 김을 죽이고있다.

오랜 세월 오막살이에서 눈물겨운 생활을 하던 농민들이 나라에서 거저 지어준 문화주택에서 행복의 웃음꽃을 피운다.

마을마다에 무상으로 세워진 유치원, 탁아소, 학교들에서는 농민들의 아들딸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공부하며 자란다. 무상치료까지 받게 되니 참말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게 되였다.

더우기 농민들은 돈한푼 들이지 않고 휴양까지 하며 농업현물세마저 없어져 억년세금을 모르고 지낸다.

농촌의 변화는 이것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달리고 또 달리면서 혁명화, 로동계급화해 나아간다.

자연도 변하고 사람들도 달라졌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은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다.

이곳에 가을이 오면 한나라 땅인 남녘에도 가을이 온다.

그러나 해마다 북반부에는 풍년이 드는데 어찌하여 남조선에서는 흉년을 면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략탈과 학살밖에 모르는 미제놈들과 지주놈들 때문이다.

남조선의 논밭은 메마를대로 메말랐고 산과 들은 거칠어질대로 거칠어졌다.

조금만 가물어도 곡식은 타죽고 며칠만 비가 와도 논밭은 큰물에 잠긴다.

남조선 농민들은 여름내 피눈물 흘리며 지은 약간의 곡식마저 가을이면 놈들에게 모조리 빼앗기고 또다시 굶주림에 시달린다.

헐벗고 굶주리는 그들의 생활은 참으로 비참하다.

그러나 남조선 농민들은 더 이상 그런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을것이다. 그들은 해마다 풍년맞는 공화국 북반부를 바라보면서 투쟁의 길에 나서고있다.

조선인민은 기어코 이 땅우에서 미제를 몰아내고야말것이다. 남녘땅 형제들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에서 풍년을 맞이할 그날을 반드시 맞게 될것이다.

단 어

갖가지
농사
짓다
협동농장
올해
들다(풍년이~)
무지런히
가꾸다
무르익다
끝없다
누렇다
이삭
넘실거리다
주렁지다
열다(열매가~)
새벽
흥겹다
다그치다
벼단
가득히(부)
탈곡장
분주히(부)
줄
탈곡기
쉬임없이(부)
돌다
훑다
어리다(기쁨이~)
그치다
~ㄹ줄 알다(모르다)
더욱(부)
어제날
악독하다
고역
시달리다
이렇게
흙
그러쥐다
천백번
감사
달라붙다
밝혀주다
밀다
밀고나가다
수없이(부)
현대적
농기계
약
화학
비료
넉넉히(부)
호미
보습
등짐
지게
대신
나르다
쳐다보다
드레질
양수기
끌어올리다
여름내

허리	락탈(～하다)
펴다	학살(～하다)
세월	메마르다
오막살이	거칠다
눈물겹다	조금
거저	가물
문화주택	타다
웃음꽃	타죽다
참말	며칠
아무런	큰물
근심	잠기다—잠그다
휴양	피눈물
농업현물세	약간
세금	헐벗다
지내다	비참하다
변화	무상
혁명화	이상
로동계급화	그대로
자연	치료
달라지다	손길
남반부	가없이
흉년	아득하다
면하다	넘치다

단어만들기

△벼이삭, 밀이삭, 강냉이이삭.

△오막살이, 머슴살이, 살림살이.

△혁명화, 로동계급화, 전기화,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자동화.

△여름내, 겨우내,

△남녘, 동녘.

아침녘, 저녁녘, 새벽녘

△넘실거리다, 출렁거리다, 반짝거리다, 펄럭거리다.

△싣고가다, 밀고가다, 들고가다, 끌고가다, 메고가다.

△달라지다, 밝아지다, 없어지다, 떨어지다.

표 현

풍년이 들다	일에 달라붙다
파도처럼 넘실거리다	웃음꽃을 피우다
그칠줄 모르다	피눈물 흘리다
감사를 드리다	굶주림에 시달리다
기쁨을 안다	

회 화

—머리깎을 때가 되였습니다.

—오후에 리발관에 가려합니다.

—사흘에 한번씩 면도를 합니다.

—머리를 높이 깎아주십시오.

—면도만 하겠습니다.

× × ×

—판매원동무! 안녕하십니까?

—학습장 네권과 양말 두켤레를 사겠습니다.

—값이 얼마입니까?

—비날신 39문을 좀 보여주십시오.

× × ×

—의사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몸이 좀 아파서 보이러 왔습니다

—저는 열이 나면서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배가 아픕니다.

—주사를 맞습니다.

—알약과 가루약을 먹고 물약을 마십니다.

—상한 발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습니다.
—저의 병은 꽤 낫습니다.
—저의 병은 점점 나아갑니다.
—저는 다 나았습니다. 건강합니다.

× × ×

—오늘저녁 대극장에 가극을 보러갑니다.
—관람권 두장이 있습니다.
—입장시간은 7시까지입니다.
—저의 좌석은 1층 10렬 5번입니다.
—모란봉극장에서 연극 《우리 어머니》를 공연합니다.
—래일저녁 영화관에서 좋은 영화가 상영됩니다.
—천연색예술영화입니다.
—조선시보도 함께 돌립니다.

문 법

1)—ㄹ(을)줄 알다(모르다)

동사+ㄹ(을)줄알다(모르다)

—환호소리가 그칠줄 모르고 들려온다.
—나는 조선말을 할줄 압니다.

2)—ㄹ(을)수록

동 사 } + ㄹ(을)수록
형용사 }

—날이 갈수록 우리 나라는 부강해진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이 빠르면 빠를수록 조국통일의 날은 더욱 더 가까워온다.

3)—에 대하여(에 대한)
—에 관하여(에 관한)

명 사 } + { 에 대하여
수 사 } + { 에 관하여
대명사 }

—우리들은 아름다운 만경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우리들은 아름다운 만경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하여 학습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정신은 우리 나라에서 활짝 꽃피고있다.

4)—게 하다 동사+게 하다

—로동계급의 강력한 지원은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할수 있게 하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나라를 튼튼하게 한다.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책을 읽게 하시였다.

5)—마저

명 사 }
수 사 } + 마저
대명사 }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현물세마저 없어졌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날강도놈들에게 일자리마저 빼앗겼다.

6)—ㄹ(을) 대로

동 사 } + ㄹ(을)대로
형용사 }

—남조선의 논밭은 메마를대로 메말랐고 산과 들은 거칠어질대로 거칠어졌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썩을대로 썩은 양키식문화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다.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1) 풍년맞은 협동벌에서 뜨락또르와 자동차는 무슨 일을 합니까?
2) 누가 이 풍년, 이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3) 농민들은 땅을 받던 날 어떻게 하였습니까?
4) 농민들은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5) 해방전에 농민들은 왜 하늘만 쳐다보았습니까?
6) 해방전에 농민들에게는 어떤 근심걱정이 있었습니까?
7) 농장원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말하시오.
8) 남조선 농촌에서는 왜 흉년을 면하지 못합니까?
9) 남조선농민들은 왜 비참한 생활을 합니까?

2. 빈자리에 알맞는 단어를 써넣으시오.
1) 기계들로 농사짓는 …에 가을이 왔다.
2) 풍년맞은 농장원들의 얼굴마다에는 끝없는 … 어리여있다.
3) 가없이 … 논벌에는 관개수가 넘친다.
4) 남조선 농민들은 미제놈들에게 …와 …을 당하고있다.
5) 조선인민은 … 이땅우에서 미제를 몰아내고야 말것이다.

3. 다음 단어들을 뜻이 비슷한 단어들로 바꾸어넣으시오.
1) 기계로 농사짓는 협동벌에 가을이 왔다.
2) 농장원들은 부지런히 곡식을 가꾼다.
3) 농장원들은 흥겨운 마음으로 가을걷이를 다그친다.
4) 탈곡기는 쉬임없이 돌아간다.
5) 항일유격대는 일제를 때려부셨다.
6) 로동계급은 갖가지 기계들과 농약들을 보내주고있다.
7) 해방전에 농민들은 여름내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일했다.
8) 남조선에서는 조금만 가물어도 곡식들이 타죽는다.
9) 남조선농민들은 피눈물 흘리며 지은 곡식을 미제놈들에게 모조리 빼앗긴다.
10) 남조선농민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바라보면서 싸우고있다.

4. 빈자리에 토를 써넣으시오.
1) 우리 나라 농촌…해마다 풍년이 든다.
2) 우리 나라 농촌…해마다 풍년을 맞이한다.
3) 산…빨갛게 익은 과실들이 가득히 열렸다.
4) 벼단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탈곡장 … 달린다.
5) 농민들은 기계…밭을 갈고 약 …김을 죽인다.
6) 나는 밤이 가… 모르고 공부를 하였다.
7)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공부하였다.

8)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나라를 튼튼…
9) 우리인민은 반드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

5. 다음 괄호안의 동사를 변화시켜 문장을 만드시오.
1) 농장벌에서는 누렇게(익다)벼이삭들이 파도처럼 넘실거린다.
2) 자동차는 벼단을(나르다) 뜨락또르는 밭을 간다.
3) 농장원들은 땅을(받다) 날 너무나(감격하다) 눈물을 흘렸다.
4) 아이들은 마음껏(뛰놀다) 튼튼히 자란다.
5) 공화국북반부에는 풍년이(들다) 남조선에서는 흉년을 면하지 못한다.

6. 다음 토를 가지고 문장을 지으시오.

1)—ㄹ(을)줄 알다(모르다)	5)—(기)때문에
2)—면…ㄹ수록	6)—고야 말것이다.
3)—지 못하다	7)—면서
4)—게 되다	8)—지만

제 11 과

조국의 바다

한없이 맑고 푸른 조국의 바다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을 말해주듯 오늘도 세차게 출렁이고있다.

우리의 바다는 아름다울뿐만아니라 투쟁의 바다, 영웅의 바다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여있는 아름다운 나라이다.

동해는 바다물이 아주 맑고 푸르며 깊다. 해안선은 굴곡이 심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해금강과 원산의 송도원을 비롯하여 아름답고 경치좋은 명승지들과 휴양소들이 많이 있다.

서해와 남해는 동해와 달리 바다물이 얕고 반도와 섬, 만들이 많으며 밀물과 썰물의 차이도 심하다.

바다에는 명태, 고등어, 가재미를 비롯하여 많은 물고기들과 바다풀, 온갖 보물들이 가득차있다.

조선로동당과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수산일군들과 어로공들은 현대적인 고기배와 그물로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아서 인민들에게 보내주고있다. 우리의 청년들은 이 바다에서 자기의 희망과 행복을 찾으며 보람찬 생활을 꽃피우고있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놈들을 등에 업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바다의 자원들을 모조리 빼앗아가면서 제세상처럼 날뛰고있다.

우리는 이것을 참을수 없다.

우리 인민은 온갖 보화가 가득찬 우리의 맑고 푸른 조국의 바다를 지켜 용감히 싸웠으며 원수들의 침공을 그때마다 물리쳐버렸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영웅적조선인민군 해병들과 해안포병들은 조국의 바다를 지켜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웠다.

조선인민군 해군 어뢰정대는 미제침략군의 순양함을 동해의 깊은 물속에 처박아넣었다.

이것은 세계의 어느 해전력사에도 있어본 일이 없는 커다란 승리로서 조선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온세상에 떨친것이다.

1950년 9월,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전쟁에서 제놈들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수많은 함선들과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인천앞바다로 밀려들었다.

조국의 바다를 지켜선 월미도는 적들의 야수적폭격과 함포사격으로 온통 불바다로 되였다.

조선인민군 해안포중대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께 목숨으로 충성을 다할것을 맹세하고 대중적영웅주의와 희생성을 발휘하여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조국의 섬을 지켜 용감히 싸웠다. 월미도의 용사들이 흘린 피와 그들이 남긴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은 오늘 우리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살아 고동치고있다.

전후에도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우리 조국의 바다에 침범하여 계속되는 침략행동을 감행하고있다. 그러나 조국의 바다를 철벽

으로 지켜선 우리의 붉은해병들과 해안포병들에 의하여 침략자들은 그때마다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

침략의 기회를 노리며 기여들었던 적 경호함 56호도 일당백의 우리 해안포병들에 의하여 단발에 물속깊이 처박혔다.

신성한 우리 나라의 령해에 깊이 침입하여 악랄하게 적대행위와 정탐활동을 감행하던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였는가?

1968년 1월 23일, 수령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기에 준비된 우리의 해병들은 대담하고 영웅적인 행동으로 적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였다.

미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침략행동은 날강도적인 해적행위이며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행위이며 조선에서 새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계획적인 책동이다.

우리의 단호한 자위적조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을 미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하였다.

조선인민의 빛나는 승리는 침략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며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자위로선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수령의 전사,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된 우리의 해병들은 맑고 푸른 조국의 바다를 어제도 오늘도 굳건히 지키고있다.

어떤 원쑤가 감히 덤벼들더라도 그놈들은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이렇듯 조국의 바다는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가득차있는 자랑스러운 바다이다.

우리는 우리 조국의 바다를 무한히 사랑하며 자랑한다.

단 어

조국	명례
한없이	가재미
영웅	바다풀
～적	보물
～주의	가득차다
기상	조선로동당
세차게	현명하다
출렁이다	령도
삼면	의하여
바다물	수산
아주	일군
해안선	어로공
굴곡	현대적
심하다	고기배
비롯하여	그물
경치	잡다
경치좋다	청년
휴양소	보람차다
달리←다르다	생활
얕다	꽃피우다
반도	남조선
섬	등
만	엽다
밀물	군국주의자
썰물	자원
차이	날뛰다

지키다
용감히
싸우다
침공
위대하다
조선인민군
해병
해안포병
불멸
위훈
세우다
어뢰정
  어뢰정대
침략군
순양함
처박다
해전
  해전력사
승리
기개
떨치다
괘배
만회하다
함선
밀려들다
폭격
사격
  함포사격
온통
불바다
중대
최고사령관

충성
  충성심
다하다
맹세하다
대중적
희생
  희생성
발휘하다
마지막
남다-남기다
용사
무한하다
심장
길이
전후
정전
협정
란폭하다
유린하다
침범하다
계속되다
행동
철벽
응당하다
징벌
일당백
기회
노리다
기여들다
단발
신성하다
평해

악랄하다
적대행위
정탐(～활동)
간첩선
운명
또
위하다
준비되다
대담하다
뭉땅
나포하다
날강도
해적
주권
일으키다
계획적
책동
단호하다
자위
  자위적

  자위로선
  자위조치
세계
지지
불러일으키다
고무하다
말로
제시하다
얼마나
정당하다
다시금
똑똑히
굳건히
감히
덤벼들다
멸망
운명
면하다
이렇듯
자랑스럽다

단어만들기

△ 휴양소, 야영소, 료양소, 정양소.
△ 충성심, 애국심.
△ 날강도, 날도적.
△ 덤벼들다(덤비다+들다),
  밀려들다, 기여들다, 대들다, 접어들다.
△ 불러일으키다. (부르다+일으키다).

표 현

△ 생활을 꽃피우다.
△ 행복을 누리다.

△ 위훈을 세우다.
△ 영웅적기개를 떨치다.
△ 목숨으로 충성을 다하다.
△ 한사람이 남을때까지 싸우다.
△ 기회를 노리다.
△ …를(을) 위해서라면
△ 멸망의 운명을 면치못하다.

문 법

1) -와(과)달리

명사 ⎫
수사 ⎬ +와(과)달리
대명사 ⎭

—서해와 남해는 동해와 달리 바다물이 얕고 반도와 섬, 만들이 많다.

2) -에 의하여

명사 ⎫
수사 ⎬ +—에 의하여
대명사 ⎭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위업은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창립되였다.

3) -더라도; 동사, 형용사+더라도

—이라도; 명사, 수사, 대명사+이라도

—어떤 원쑤가 덤벼들더라도 그놈들은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일념으로 강도 일제와 싸워서 승리하였다.

—우리는 어떤 강적이라도 능히 물리칠수 있도록 튼튼한 준비를 갖추고있다.

4) 얼마나…-는가를(인가를)

—미제는 조선인민이 얼마나 용감한 인민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전쟁에서의 미제의 패배는 조선인민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5) -ㄹ(을)뿐(만)아니라

동사 ⎫
형용사 ⎭ +ㄹ(을)뿐(만)아니라

명사 ⎫
수사 ⎬ +일뿐(만)아니라
대명사 ⎭

—그는 공부를 잘할뿐만아니라 체육도 잘한다.

—그는 단어를 외웠을뿐만아니라 본문까지 다 외웠다.

—그는 훌륭한 군사지휘관일뿐만아니라 정치일군이기도하다.

6) 문장의 주성분과 부성분

문장성분—
- 주성분—
  - 주어
  - 술어
- 부성분—
  - 보어
  - 규정어
  - 상황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영웅적조선인민군 해병들과 해안포병들은 조국의 바다를 지켜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웠다.

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상황어)
(위대한 →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규정어)

② 영웅적조선인민군 해병들과 해안포병들은 (주어)

③ 조국의 바다를 지켜 (상황어)
(조국의 → 바다를: 규정어; 바다를 → 지켜: 보어)

④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상황어)
(침략자들을 → 물리치는: 보어; 물리치는 → 싸움에서: 규정어)

⑤ 불멸의 위훈을 (보어)
(불멸의 → 위훈을: 규정어)

⑥ 세웠다 (술어)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조선의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2) 조선의 동해에 대하여 말하시오.
   3) 조선의 서해와 남해는 어떻습니까?
   4) 우리 나라의 수산업에 대하여 말하시오.
   5)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는 남조선에서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6) 월미도의 해안포병들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7) 전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떻게 침략행동을 감행하였습니까?
   8)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침입사건은 세계인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2. 괄호안에 있는 단어들에 알맞는 토를 붙이시오.
   1) 조선인민들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나포하다)국방에서의 자위로선의 정당성을 실증하였다.
   2) 우리의 수산일군들과 어로공들은 현대적인 고기배와 그물로 수많은 물고기들을(잡다)인민들에게 보내주고있다.
   3)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 비참한 생활형편에 처하여있다.
   4) 조국의 바다는 우리의 바다를 철벽으로 (지키다) 수령의 전사들로하여 굳건히 지켜지고있다.
   5) 월미도의 용사들은 (미제국주의자들) 치렬한 전투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고상한 희생성을 발휘하였다.

3. 다음 단어와 뜻이 비슷한 단어들을 찾으시오.

물리치다	세차게
덤벼들다	면치 못하다

4. 다음의 단어와 토들로 문장을 지으시오.

보람차다	-와(과)달리
불러일으키다	-가를 보여주라
덤벼들다	-더라도
기여들다	-로 되여있다

유격대 행진곡

1. 동무들아 준비하라 손에다 든 무장
제국주의 침략자를 때려부시고
용진용진 나아가세 용감스럽게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나가자 판가리 싸움에 나가자 유격전으로
　손에 든 무장을 튼튼히 잡고 나갈 때에
　용진용진 나아가세 용감스럽게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2. 우리 대장 사격구령 한번 웨칠때
전대동무 겨냥총을 받들어쥐고서
악악소리 웨치면서 몰사격바람에
적의 군사 정신없이 막 쓰러진다

　나가자 판가리 싸움에 나가자 유격전으로
　손에 든 무장을 튼튼히 잡고 나갈 때에
　용진용진 나아가세 용감스럽게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3. 기세 맞춰 승리의 함성 드높이
전대동무 무장 뺏아 둘러메고서
승전고에 걸음 맞춰 노래부르며
어깨춤을 모두 추며 돌아오누나

　나가자 판가리 싸움에 나가자 유격전으로
　손에 든 무장을 튼튼히 잡고 나갈 때에
　용진용진 나아가세 용감스럽게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4. 썩어가는 제국주의 뚜드려부시고
무너진 그 터전에 새터를 닦고
로농병의 대표정권 건설하고서
붉은기를 휘날리며 나아들 가자

나가자 판가리 싸움에 나가자 유격전으로
손에 든 무장을 튼튼히 잡고 나갈 때에
용진용진 나아가세 용감스럽게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제 12 과

평 양

평양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이다.

예로부터 평양은 산 좋고 물 맑은 천하제일강산이라고 부른다.

민족의 찬란한 문화와 슬기로운 력사를 싣고 인민의 강—대동강의 푸른물이 모란봉을 감돌아 수도의 한복판을 흘러간다.

1500년의 평양의 력사는 미제의 해적선 《샤만호》를 불살라버린것을 비롯하여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친 우리 인민의 투쟁의 력사이며 승리의 력사이다.

만수대우에는 천리마동상이 하늘높이 솟아있다. 말갈기를 날리며 나래 펴고 푸른 하늘 높이 나래치는 천리마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을 상징한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만경대도 평양에 있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이곳에서 혁명의 뿌리를 키우시였다. 만경대는 4천만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다.

수도 평양에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항일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당—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가 자리잡고있다.

혁명의 수도인 평양은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현명한 로선과 정책이 여기에서 흘러나온다.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미제날강도들은 우리의 수도 평양을 완전한 재더미로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미제를 쳐부시고 승리하였다.

승리한 영웅적수도 근로자들은 김일성원수님이 포화속에서 마련하신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들고 새로운 전투장으로 달려나갔다.

영웅적로동계급은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도복구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유명한 《평양속도》를 창조하였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불과 몇년동안에 재더미만 남았던 평양을 웅장하고 아름다운 현대적인 도시로 건설하였다.

오늘 평양에는 웅장하고 현대적인 공장기업소들이 곳곳에 들어앉았다.

여기에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필요되는 크고 작은 기계설비들을 비롯하여 많은것을 생산해 내고있다. 나라의 동맥을 주름잡아 달리는 《붉은기》호 전기기관차도 여기에서 나온다.

평양은 현대적인 공업도시일뿐만아니라 과학과 문

화의 도시이다.

해방전에는 하나의 대학도 없던 여기에 오늘은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웅장한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학들이 일어섰다.

여기에서 과거 일제때 억눌리고 짓밟혔던 수많은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선진과학과 기술을 마음껏 배우고있다.

자라나는 꽃봉오리들이 마음껏 배우며 즐기는 학생소년궁전은 또 얼마나 웅장한가! 어린이들은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부럼없이 자라나고있다.

평양에는 웅장하고 화려한 평양대극장을 비롯한 수많은 극장과 영화관이 있다. 동물원과 식물원이 있는 대성산유원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문화휴식터들에서 근로자들이 휴식의 한때를 즐긴다.

즐비하게 들어선 아담한 다층문화주택의 해빛 밝은 창가에서 근로자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온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김일성원수님의 끝없는 배려와 뜨거운 사랑으로 누구나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아들딸 공부시킬 걱정모르고 행복하게 살고있다.

이 행복, 이 기쁨을 생각할때 눈보라 휘몰아치는 백두의 밀림속에서 15년이란 기나긴 세월 일제와 싸워 나라를 찾아주신 김일성원수님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한날한시에 해방된 남조선인민들은 기쁨과 행복대신 미제놈들의 착취와 압박에 시달리고있다.

그들은 항상 김일성원수님이 계시는 영웅도시 평양을 희망의 등대로 우러러 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원수님의 넓고 따사로운 품에 안길 그날을 위하여 미제와 그의 주구 박정희도당을 반대하는 판가리싸움에 일떠섰다.

남조선인민들의 이 정의로운 투쟁은 누구도 막을수 없다.

그들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우리 조국은 통일되고야 말것이다.

또한 평양은 국제적인 도시이다. 대외적지위가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외국의 벗들이 평양을 찾아오고있다. 친선의 정을 안고 오는 외국의 벗들은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위대성과 그 생활력을 진실로 느끼게 될것이다.

사회주의수도, 혁명의수도, 붉은수도인 영웅도시 평양은 천리마조선과 함께 영원히 번영할것이다.

단 어

수도	절세
천하	애국자
제일강산	백전백승
슬기롭다	강철
목관	명장
외래	국제
불살라버리다	공산주의
갈기	령도자
날리다	문
나래	항일
펴다	잇다
상징하다	이어받다
뿌리	맑스-레닌주의

중앙
위원회
정부
자리잡다
정치
경제
문화
중심
　중심지
주체사상
구현하다
혁명하다
로선
정책
흘러나오다
남강도
완전하다
재더미
처부시다
포화
휘황하다
설계도
펼치다
전투장
달려나가다
로동계급
복구
놀래우다←놀라다
유명하다
속도
《평양속도》
창조하다
멎다

불과
웅장하다
현대적
기업소
곳곳
들어앉다
필요되다
기계
설비
생산하다
동맥
화려하다
극장
　평양대극장
영화관
유원지
공원
즐비하다
아담하다
문화주택
　다층문화주택
해빛
창가
웃음소리
배려
밀림
시달리다
등대
우러러보다
주구
도당
반대하다
판가리

　판가리싸움
정의롭다
주름잡다
전기
기관차
공업
과학
갖추다
봉우리
꽃봉오리
공산주의
소년
궁전
　학생소년궁전
믿음직하다

후비대
통일되다
대외적
지위
나날이
높아지다
벗
친선
정
위대성
생활력
진실로
사회주의
영원히
번영하다

표　현

기나긴 세월
희망의 등대
친선의 정을 안다
천하제일강산
혁명의 뿌리
재더미로 만들다
휘황한 설계도
전쟁의 포화가 멎다
동맥을 주름잡아 달리다
부럼없이 자라다
즐비하게 들어서다

단어만들기

—슬기롭다, 따사롭다, 영예롭다, 정의롭다.
—물줄기, 산줄기, 강줄기.

—꺼꾸러뜨리다, 넘어뜨리다, 깨뜨리다.
—재더미, 산더미, 거름더미.
—처부시다, 때려부시다, 짓부시다.
—들어앉다, 들어서다, 들어차다, 들어가다.
—주름잡다, 사로잡다, 걷어잡다.
—먹음직하다, 믿음직하다.

문 법

1) —를(을) 비롯하여

명사 }
수사 } +를(을) 비롯하여
대명사 }

—평양에는 현대적설비를 갖춘 웅장한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학들이 있다.
—우리 나라에는 백두산, 금강산을 비롯하여 이름난 산들이 많다

2) 를(을) 향하여

명사 }
수사 } +를(을) 향하여
대명사 }

—대학생들은 과학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줄달음치고있다.
—그는 원쑤들의 중기화점을 향하여 힘껏 수류탄을 던졌다.
—뻐스는 어느덧 만경대를 향하여 달리고있었다.

3) 를(을) 따라, ㅁ(음)에 따라

명사 + 를(을) / 에 } 따라

—우리는 수령께서 가리키는 길을 따라 앞으로 힘차게 나아간다.
—날을 따라 번영하는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은 얼마나 좋은가!
—날이 감에 따라 우리 생활은 더 흥겨워진다.

련습문제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1) 평양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하여 말하시오.

 2) 평양의 유구한 력사에 대하여 말하시오.
 3) 천리마동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4) 김일성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에 대하여 말하시오.
 5) 평양을 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고 합니까?
 6) 전후시기 평양시의 복구건설과 《평양속도》에 대하여 말하시오.
 7) 현대적공업도시로서의 평양에 대하여 말하시오.
 8) 과학과 문화의 도시로서의 평양에 대하여 말하시오.
2. 다음의 단어에 여러가지 규정어를 붙이시오.
 본보기 <력사→ 슬기로운 력사>
  만경대, 로동계급, 건물, 싸움.
  문화주택, 투쟁.
3. 다음의 빈자리에 알맞는 말을 써넣으시오.
 1) 산좋고 물맑은 평양은 … 천하제일 강산이라 부른다.
 2) 수도의 … 흘러가는 대동강은 찬란한 민족문화와 슬기로운 력사를 …
 3) 하늘 높이 … 천리마동상은 만수대 우에 있습니다.
 4) 우리 인민의 … 기상을 … 천리마는 말갈기 날리며 푸른하늘 … 솟아 있습니다.
 5) 미제 날강도들은…우리의 수도 평양을…재더미로 만들었다.
 6) 영웅적인 로동계급들은 수도복구건설에서 …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세상사람들을 …
 7) 미제 날강도들의 야수적인…재더미만 남았던 평양이 불과 10년 도… 사이에 오늘과 같은 웅대하고 아름다운 … 도시로 건설되였다.
 8) 평양에서 … 《붉은기》호 전기기관차는 나라의 동맥을 … 달립니다.
 9) 대학들에서는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선진 과학과 기술을 …배우고 있다.
 10) 평양에는 행복의 웃음소리…해빛밝은…다층문화주택들이 가는곳마다…들어섰습니다.
 11) 영웅도시 평양은 … 남조선인민들의 … 등대로 되고있습니다.
 12) 미제의 식민지군사화정책을 반대하여 … 남조선인민들은 반드시 … 조국을 통일하고…

4. 다음의 문장에서 괄호안에 있는 동사, 형용사를 알맞는 형태로 고치시오.

1) 찬란한 민족문화와(슬기롭다)력사를(싣다)인민의 강—대동강이 흐르고있다.

2) (푸르다)하늘 높이(날다) 천리마동상은 만수대우에 높이(솟다) 있습니다.

3) 유서(깊다) 만경대는 평양에 있습니다.

4) 포화속에서(마련하다)설계도를(펼치다, 들다)수도 복구건설에 떨쳐나섰다.

5) 세상사람들을(놀라다)유명한 《평양속도》는 영웅적로동계급에 의하여 창조되였다.

6) 전쟁의 포화가(멎다)불과 10년 동안에 오늘과 같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현대적인 평양이(건설하다).

7) 평양에서(만들다)《붉은기》호 전기기관차는 나라의 동맥을(주름잡다)달립니다.

8) 남조선인민들의(정의롭다)투쟁은 그누구도 그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습니다.

9) 우리 인민은 철천지원쑤 미제를 (때리다+부시다)조국을 (통일하다)말것이다.

5. 아래 문장을 몇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누시오.

1) 우리 나라 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략과 전술도,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도, 미제를 거꾸러뜨린 탁월한 작전도 여기 평양에서 흘러나온다.

2)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그들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조국은 통일되고야 말것입니다.

3) 외국의 수많은 벗들은 친선의 정을 안고 영웅도시 평양을 찾아오며 그들은 여기에서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느끼게 될것이다.

4) 영웅도시 평양에는 유서깊은 만경대가 자리잡고있으며 모란봉을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이 있다.

6. 다음의 단어들로 완전한 문장을 만드시오.

1) 산좋다, 물맑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2) 수도, 한복판, 찬란하다, 민족문화, 슬기롭다, 력사, 싣다, 인민의 강 대동강, 흐르다.

3) 푸르다, 하늘, 높다, 날다, 천리마, 우리 인민, 영웅적기상, 상징하다.

4) 평양, 공화국수도, 우리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

5) 미제날강도,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우리 수도, 평양, 완전히, 재더미, 만들다.

6) 전쟁때, 재더미, 되다, 평양, 불과, 10년, 오늘과 같다, 웅장하다, 아름답다, 현대적, 도시, 건설되다.

7) 평양, 경제건설, 국방건설, 필요되다, 기계설비, 많다, 만들다, 내다.

8) 일제때, 억눌리다, 짓밟히다, 수많은, 로동자, 농민, 아들딸, 과학, 높다, 봉우리, 향하다, 마음껏, 배우다, 있다.

9) 15년, 기나긴, 세월, 눈보라, 휘몰아치다, 백두밀림속, 일제, 싸우다, 나라, 찾아주다.

10) 남조선인민, 미제, 그주구, 박정희도당, 반대하다, 판가리 싸움, 일떠서다.

제 13 과

조국의 사과

1933년 12월, 일제놈들의 《동기토벌》이 끊임없이 벌어지던 때였습니다.

하루는 유격대원들이 아동단원들에게 잘 익고 먹음직한 사과를 가지고왔습니다.

《장군님이 너희들에게 보내신 선물이다.…보아라, 이것은 조선사과다!》

유격대원들에게서 이 말을 들은 아동단원들은 사과를 받아쥐고 너무 기뻐서 《김일성장군님만세!》하고 소리높이 웨쳤습니다.

어느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몸소 유격대원들을 거느리시고 적통치구역에서 원쑤들의 수송대를 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놈들에게서 빼앗아낸 물건가운데는 사과궤짝도 하나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그중에서 잘 익고 먹음직한 몇알을 골라서 먼저 원수님께 드리였습니다.

사과를 보신 원수님께서는 매우 반가와하시면서 그중의 한알을 손에 드시더니

«이 사과는 조선사과요!… 조선에서는 이런 향기롭고 맛있는 사과가 많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선의 사과는 명산의 하나로 빛도 곱고 맛도 좋다는것과 새빨간 사과가 주렁지는 가을철의 조국이 매우 아름답다는데 대하여도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근거지에는 아직 조선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조선의 유명한 사과조차 구경하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소!»

그이는 손에 드셨던 사과를 대원들에게 도로 주시며 많지는 못하지만 아동단원들에게 보내여 맛이나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때 대원들이

«시장하시고 갈증도 나시겠는데 한알이라도 맛보십시오.»라고 아무리 권하였으나 끝내 사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듣고있던 어린이들은 모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어려운 싸움속에서 끼니도 건늬시고 시장기와

갈증을 겪으시는 속에서도 그이께서는 근거지에 남아있는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하시였습니다.

조국땅을 모르고 조선사과도 아직 맛보지못한 어린이들을 생각하시고 이처럼 한알의 사과마저 사양하시였던것입니다.

그날밤 아동단원들은 사과를 안고 오래동안 잠을 이루지못하였습니다.

조선사과를 바라보는 어린이들은 한번도 본 일이 없는 아름다운 조국을 보는것 같았고 그이의 뜨거운 어버이심정이 심장속으로 스며드는듯 하였습니다.

일제놈들에게 집을 불태우고 부모를 잃은후 의지할곳이 없어 아홉살때부터 지주집 아이를 보고 다리가 붓도록 발방아를 찧어주어야 했던 어린이, 그는 원수님의 지극한 사랑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게 된것을 생각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는 추운겨울에도 자신은 돌보지 않으시고 홑옷을 입고 계시면서도 어린이들에게는 솜옷과 이불, 버선과 학습장까지 빼놓지않고 마련하여 주시는 원수님의 깊고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는 아동단원들은 사과를 안고 새로운 결의를 굳게 굳게 다지였습니다.

장군님의 말씀대로 몸을 튼튼히 하고 공부를 잘하여서 커서 그이의 훌륭한 혁명전사가 되겠다고.…

어린이들에 대한 원수님의 바다보다 깊고 태양보다 뜨거운 어버이사랑을 어찌 말이나 글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이 나라의 한 어린이, 한 고아에 이르기까지 따뜻

하게 보살펴주시는 김일성원수님이 계심으로하여 조선의 어린이들은 오늘도 세상에서 부러움없이 행복하게 자라나고있습니다.

단 어

토벌	드리다 (든) ←주다
《동기토벌》	반갑다—반가와하다
끊임없이	향기롭다
벌어지다	맛
유격대	～보다
익다	～있다
먹음직하다	～좋다
너—너희	명산
보내다	빛
선물	곱다
보다→보아라(명령)	새빨갛다
받다	가을철
쥐다	곤거지
받아쥐다	밟다
웨치다	밟아보다
몸소	구경하다
거느리다	시장하다
적	갈증
통치구역	아무리
수송대	권하다
습격하다	끝내
빼앗아내다	사양하다
가운데	뭉클하다—뭉클해지다
궤짝	끼니
알	건늬다
고르다	시장기
	겪다

남아있다	돌보다
아직	얼어터지다
덜다	홀옷
마저	솜옷
오래동안	버선
이루다	빼놓다
잠	마련하다
바라보다	결의
스며들다	다지다
불태우다	튼튼히
의지하다	어서
붓다	혁명전사
발방아	태양
찧다	어찌
지극하다	글
감격	고아
눈물	이르다.
박달나무	

단어만들기

△ 홀옷, 홀이불, 홀섬.
△ 수송대, 운수대, 선동대, 가창대.
△ 눈물, 비물, 샘물, 우물.
△ 새빨갛다, 새노랗다, 새하얗다.
△ 발방아, 물방아, 가루방아.
△ 갈증, 허기증, 어지럼증.

표 현

△ 말지는 못하다.
△ 가슴이 뭉클해지다.
△ 끼니를 건늬다.
△ 잠을 이루지못하다.

△ 심장속으로 스며들다.
△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는 추운 겨울.

문 법

1) —조차

명사, 수사, 대명사 } + 조차

—유격근거지에는 조선의 유명한 사과조차 구경하지못한 아이들이 많았다.

—전쟁이 끝났을때 조선인민에게는 한장의 벽돌, 한줌의 쎄멘트를 만들 설비조차 없었다.

2) —라도(이라도)

명사, 수사, 대명사 } + 라도

—항일유격대원들은 사령관동지께 사과 한알이라도 맛보시라고 드렸으나 그이께서는 어린이들을 생각하시면서 끝내 사양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이 사과를 아동단원들에게 보내여 맛이라도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3) —(으)로서, —(으)로써

명사, 수사, 대명사 } + —(으)로서, —(으)로써

—조선사과는 명산의 하나로서 빛도 좋고 맛도 좋다.

—원수님께서는 한알의 사과로써 갈증을 더는것마저 사양하시였다.

—평양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현대적도시로서 온 세계에 빛을 뿌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을 총칼로 탄압함으로써 남조선땅을 피로써 물들였다.

4) —더니

동사, 형용사 } + 더니

—원수님께서는 사과 한알을 손에 드시더니 이런 향기롭고 맛있는 사과가 조선에서 많이 난다고 말씀하시였다.

—날씨가 흐리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였다.

5) —도록

동사, 형용사 } + 도록

—아홉살때부터 지주집 아이를 보고 다리가 붓도록 말방아를 찧어주어야 했던 한 어린이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과를 받아쥐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과를 받아쥔 아동단원들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원수님께서는 사과를 아동단원들에게 보내여 맛이나 보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도록 하다=—게 하다).

6) —면서도(—으면서도)

동사, 형용사 } + 면서도

—원수님께서는 추운 겨울에도 자신은 홑옷을 입고 지내시면서도 어린이들에게는 솜옷과 이불을 보내주시였다.

—두 아동단원은 일제놈을 대단히 미워하면서도 순사놈을 업고 강을 건느기로 하였습니다.

7) —로(으로)하여

명사, 수사, 대명사 } + 로(으로)하여

—김일성원수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끊임없는 배려로 하여 오늘 조선의 어린이들은 세상에서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나고있다.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의 천리마 조선이 있다.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이 이야기는 어느때 있었던 일입니까?
 2) 대원들은 원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며 사과를 권하였습니까?
 3) 유격근거지에는 어떤 어린이들이 있었습니까?
 4) 김일성원수님은 아동단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과를 보내셨습니까?
 5) 아동단원들은 유격근거지에 들어오기전에 어떤 생활을 하였습니까?
 6) 추운 겨울에 아동단원들은 원수님께서 어떤 배려를 받았습니까?
 7) 아동단원들은 감격하여 어떤 결의를 다지였습니까?
2. 다음 빈자리에 알맞는 단어를 써넣으시오.
 1) 유격대원들은 …고 먹음직한 사과를 …골랐습니다.
 2) 이야기를 …던 어린이들은 …이 뭉클해졌습니다.
 3) …들은 사과를 안고 새로운 …를 다지였습니다.
 4) 조선의 어린이들은 오늘도 세상에서 … 행복하게 자라고있습니다.
 5) 산에는 사과가 ……지고 벌판에는 ……이 설레입니다.
 6) 아동단원들은 유격대원에게서 사과를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3. 다음 빈자리에 알맞는 토들을 써넣으시오.
 1) 아동단원들은 몸… 튼튼히 하고 공부를 잘하여 훌륭한 혁명전사… 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2) 유격대들은 일제놈 … 완전히 소멸시키고야 말았습니다.
 3) 놈들… 빼앗은 많은 물건가운데… 사과도 있었습니다.
 4) 이야기를 듣고있… 어린이들은 모두 … 뭉클해졌습니다.
 5) 조선의 사과는 빛 … 곱고 맛… 좋습니다.
 6) 사과… 받은 아동단원들은 오래동안 잠… 이루… 못하였습니다.
 7) 어린이들은 사과… 안고 감격… 눈물… 흘렸습니다.

 8) 박달나무… 열어터지는 추운겨울 … 유격대원들은 일제놈 … 용감히 때려눕혔습니다.
4. 다음 괄호안의 동사를 알맞는 형태로 바꾸어 문장을 만드시오.
 1) 아동단원들은 사과를 (안다) 오래동안 잠을 (이루다) 못했습니다.
 2) 어린이들은 피눈물 (나다) 과거를 (돌이켜보다) 새로운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3) 조선의 어린이들은 세상에 부러움 (없다) 행복하게 (자라다) 있습니다.
 4) 나는 어제 동물원에 (가다) 않고 혁명박물관에 (가다)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5) 아버지는 책방에 (가다)《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사오셨습니다.
6. 다음의 토와 단어로 문장을 지으시오.

—던	끊임없다
—로	스며들다
—까지	마련하다
—나(이나)	보살피다
—도록	부러움없다
—로서, 로써	얼마나
—에게서	사양하다
—조차	겪다
—더니	뜨겁다
—중에서	돌보다
—마저	도로
—는데	

제 14 과

조선인민군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대를 직접 창건하시였습니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백두의 밀림에서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며 현대적정규무력을 준비하여오신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구상의 빛나는 실현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자랑이며 영광입니다.

조선인민군대는 정규군대로서 비록 1948년에 창건되였지만 오랜 력사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1932년에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써 우리 나라 혁명무력의 첫대오인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시였습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진정한 자기의 군대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그의 혁명적애국전통과 고귀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창건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입니다.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것은 인민군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입니다.

인민군대는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 조직되였

으며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보위하는 조선로동당의 군대입니다.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무조건 관철하는것은 인민군대의 첫째가는 생명입니다.

조선인민군대는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할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있습니다.

조선인민군대는 자본주의국가군대와는 전혀 다른 새형의 군대입니다.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인민군대는 언제든지 인민과 같이 살고 인민을 위하여 싸웁니다. 인민들은 군대를 자기의 친아들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적극 돕습니다. 그리하여 인민과 군대는 하나로 굳게 뭉쳐있습니다.

인민군대내에서 장병들 사이에는 조그만한 간격도 없으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하나와 같이 단결해서 같이 싸우고 같이 살며 서로 아끼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수립되여있습니다.

인민과 군대가 하나로 뭉쳐있고 지휘관과 병사들이 서로 아끼고 존경하는것은 항일유격대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은것으로서 이것은 인민군대의 특성중의 하나이며 또 승리의 원천입니다.

인민군대는 그 어떠한 침략군대도 단매에 쳐물리칠수 있는 불패의 군대입니다. 바로 지난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인민군대의 불패의 힘과 영웅적기개를

온세상에 떨치였습니다.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은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가장 포악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민과 군대를 굴복시키고 우리 나라를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미제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해방 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시련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승리에로 인도하시였습니다. 적탄이 비발치는 전선에서 위험도 마다하시고 친히 작전을 조직하시고 전투를 지휘하시면서 싸우는 전투원들을 고무하여주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그이의 위대한 혁명정신만을 따라배운 인민군용사들은 원쑤격멸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명령에 무한히 충직한 인민군 용사들은 피끓는 청춘의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었으며 두팔다리에 중상을 입자 입에 수류탄을 물고 적진에 뛰여들어 원쑤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으며 끊어진 통신선을 몸으로 이어 부대전투지휘를 보장하였습니다. 탄알이 떨어지면 바위돌을 굴려 기여드는 적을 족쳤고 고지를 뒤덮는 불바다속에서도 불사조와 같이 거연히 일어나 전쟁력사에서 패전을 모른다던 미제침략군대를 때려눕혔습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을 통하여 인민군대는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군대와 싸워이긴 영웅의 군대로 되였으며 더욱더 단련되고 풍부한 전쟁경험을 가진 불패의 군대로 자라났습니다.

전후에도 인민군장병들은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지켜 조국의 초소에 굳건히 서있습니다.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침략책동을 일삼고있습니다. 그러나 영웅적인민군용사들은 원쑤놈들의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는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입니다.

인민군대내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있으며 혁명적골간이 수많이 자라났습니다. 인민군대는 현대적군사과학과 기술기재로 무장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자라났습니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인민군대는 필승불패이며 그가 지키는 우리 나라는 철벽의 요새입니다.

단 어

앞날	실현
내다보다	비록
무력	전통
정규무력	혁명전통
구상	자유

독립
선진적
청년
　애국청년
대오
조직하다
바로
불길
세련되다
투사
　혁명투사
골간
경험
토대
직접적
계승자
불패
원천
우수하다
위업
보위하다
수만
사수하다
견결히
옹호하다
무조건
관철하다
첫째가다
전리품
적극적
달성하다
숭고하다
사명

지니다
국가
형— 형태
리익
대표하다
언제든지
적극
뭉치다
장병
사이
조그마하다
간격
단결하다
아끼다
존경하다
수립되다
지휘
지휘관
병사
서로
특성
단 —하나
매
정의
반동
원흉
포악하다
방법
굴복시키다
삼키다
준엄하다
시련
운명

적탄
비발치다
전선
위험
마다하다
친히
전투
지휘하다
따라배우다
격멸
무비
용감성
대중적
남김없이
명령
무한히
충직하다
끓다
청춘
가슴
화구
돌격로
중상
수류탄
적진
뛰여들다
무리
죽음
　무리죽음
끊어지다←끊다
통신선
탄알
떨어지다

바위돌
굴리다←굴다
족치다
고지
뒤덮다
불사조
거연히
괘전
가렬하다
통하다
더욱더
풍부하다
초소
굳건히
둥지
틀다
일삼다
도발
분쇄하다
바라다
결코
보복
전면
　전면전쟁
유일
체계
　유일사상체계
팍 (부)
들어차다
군사
기술
기재
간부

천재적　　　　　　철벽
군사전략가　　　　요새
필승불패

단어만들기

△ 용감성, 영웅성, 당성, 계급성, 인민성, 사상성, 참을성, 희생성.
△ 돌격로, 진격로.
△ 중상, 경상, 부상, 치명상.
△ 통신선, 전화선, 해안선.

표　현

△ …를(을) 골간으로하다.
△ …를(을) 수반으로 하다.
△ 목숨으로 사수하다.
△ 중상을 입다.
△ 무리죽음을 주다.
△ 미쳐날뛰다.
△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책동을 일삼다.

문　법

1) —므로(으므로); 동사, 형용사+므로
—이므로; 명사, 수사, 대명사+이므로
—자기의 군대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될 수 없으므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군대를 가져야 한다.
—비가 오므로 그들은 비옷을 입고 떠났다.
—조선인민군은 인민의 군대이므로 인민들로부터 두터운 사랑과 지지를 받는다.

2) 결코…지 않다 (부정)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국주의는 결코 자진하여 력사무대에서 물러가지 않는다.

3) 비록 ……더라도(—나)(양보)
—비록 래일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들은 오늘 밤까지 건설을 계속할것이다.
—제국주의는 비록 강한것 같이 보이나 사실은 사상루각과 같은 것이며 그 멸망은 불가피하다.

4) —로(으로)하다
—조선인민군은 항일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그의 혁명적애국전통과 고귀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창건되였다.
—조선인민군은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있다.

5) 동사의 피동형과 사역형
①타동사

원　형	피 동 형	사 역 형
먹　다	먹 히 다	먹 이 다
쓰　다	쓰 이 다	씌 우 다
읽　다	읽히우다	읽 히 다
보　다	보 이 다	보 이 다
업　다	업 히 다	업 히 다
알　다	알 리 다	알 리 다
쌓　다	쌓 이 다	—
바 꾸 다	바 뀌 다	—
덮　다	덮 이 다	—
묻　다	묻 히 다	—
막　다	막 히 다	—
밟　다	밟 히 다	—
빼 앗 다	빼앗기다	—
맡　다		맡 기 다
건설하다	건설되다	건설시키다

② 자동사

속　다	—	속이다
붙　다	—	붙이다
놀　다	—	놀리다
나타나다	—	나타내다
녹　다	—	녹이다
오르다	—	올리다
숨　다	—	숨기다
눕　다	—	눕히다
자　다	—	재우다
살　다	—	살리다
굴　다	—	굴리다
남　다	—	남기다
피　다	—	피우다
발전하다	발전되다	발전시키다
운동하다	운동되다	운동시키다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조선인민군은 누구에 의하여 언제 창건되였습니까?
   2) 왜 조선인민군대를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라고 합니까?
   3) 왜 조선인민군대는 자본주의나라군대와 전혀 다른 새형의 군대입니까?
   4) 조선인민군대의 사명을 말하시오.
   5) 미제와 그의 주구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에 대하여 말하시오.
   6)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을 통하여 조선인민군대는 어떤 군대로 자라났습니까?
   7) 우리는 전쟁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합니까?
   8) 오늘 조선인민군대는 어떤 군대로 자라났습니까?

2. 다음 빈자리에 알맞는 단어를 써넣으시오.
   1) 조선인민군대의 창건은 우리 민족의 … 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 영광입니다.
   2) 조선인민군은 비록 1948년에 창건되였지만 오랜 … 와 … 혁명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혁명투사들을 … 하여 조직되였습니다.
   4)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 은 인민군대의 … 의 힘의 원천입니다.
   5) 조선인민군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아들딸로…
   6) 조선인민군대는 그 어떠한 …군대도…에 물리칠수 있는 불패의 군대입니다.
3. 다음 빈자리에 알맞는 토를 써넣으시오.
   1) 조선인민군대는 자본주의나라군대…전혀 다른 새형… 군대입니다.
   2) 조선인민군대는 인민들…두터운 사랑… 존경을 받습니다.
   3) 조선인민은 자기의 군대… 친아들딸…아끼고 사랑합니다.
   4)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 반대하는 정의의조국해방전쟁은 우리…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습니다.
   5) 리수복영웅은 피끓는 청춘의 가슴…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 돌격로… 열었다.
   6) 조선인민군용사들은 탄알… 떨어지면 바위돌… 굴려 기여드는 적… 족쳤다.
4. 다음 단어들로 문장을 만드시오.
   앞날, 능히, 비록, 전결히, 바로 숭고하다, 단매, 일삼다.
5. 다음 토로 문장을 지으시오.
   로, 로서, 에서도, 로부터(으로부터)
6. 다음 문장들에서 도움토와 접속토를 찾고 그 뜻을 말하시오.
   1)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귀중한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자기 조국을 떠나서 살수 없으며 행복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조국의 륭성과 번영을 통해서만 자기의 행복한 앞길을 개척할수 있습니다.

2) 자기 나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며 동시에 세계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전세계공산주의자들의 의무입니다.

3) 조선인민군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로써 조직되였으며 조선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행복을 위하여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여 싸우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입니다.

4) 자본주의국가군대는 소수의 자본가, 지주를 위하여 절대다수인 근로인민을 압박하고 착취하는 제도를 무력으로 옹호유지하며 다른 민족과 남의 나라 령토를 침략할 목적에서 조직된 군대입니다.

5) 항일빨찌산들은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구호밑에 항상 인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혁명가

1. 우리는 누리에 붙는 불이요
   첩쇄를 마스는 마치라
   희망의 표대는 붉은기요
   웨치는 구호는 투쟁뿐
      개결든 소리에 목이 쉬리
      우리 피 짜내던 놈들아
      맹렬한 최후의 전투에서
      우리의 대오는 백배해

2. 무기를 잡으라 억눌린자들아
   명예를 벗어라 종된자
   우리의 앞에는 희망뿐이요
   나가세 앞으로 앞으로
      개결든 소리에 목이 쉬리
      우리 피 짜내던 놈들아
      맹렬한 최후의 전투에서
      우리의 대오는 백배해

제 15 과

대 의 원

1947년 8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커다란 나무상자를 든 한 아주머니가 평양역앞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김일성원수님이 계시는 곳을 물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어 끝내 김일성원수님이 계시는 집을 찾고야 말았습니다. 원수님이 계시는 집에서 한 간부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어디서 무슨 일로 왔는가고 물었습니다. 이리하여 아주머니는 원수님을 찾아오게 된 아래와 같은 사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주머니의 이름은 리계산이라고 불렀는데 강원도에서도 험한 산골인 평강군 옥동리에 살고있었습니다.

머슴군의 딸로 태여난 아주머니는 열여섯살 나던 해에 벌써 지주놈의 빚에 끌려가 부엌데기노릇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후 아주머니는 시집을 갔는데 남편도 머슴군이였습니다. 그런데 1942년에 기둥처럼 믿어오던 남편은 일제의 《보국대》에 끌려가 원통하게도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러던 아주머니는 해방을 맞아 김일성원수님으로부터 땅과 집을 받았습니다. 이리하여 난생처음 제땅에서 열성껏 농사를 지어 아주머니네 뜨락에는 산더미같은 낟가리가 솟았습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낟가리

를 바라보는 계산아주머니의 가슴에는 머슴군인 자기에게 땅과 집을 주어 이처럼 잘 살게 하여준 원수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마음이 꽉차고 넘쳤습니다.

이듬해 1947년에도 아주머니는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원수님의 은덕을 언제나 가슴뜨겁게 느끼면서 아주머니는 밀밭에 나가 제일 잘 익은 밀 이삭을 잘라다 밀 두말을 장만했고 감자밭에 나가 제일 굵은 알을 캐다 감자도 한말 마련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밀과 감자를 상자에 넣어 들고 원수님께 감사드리러 평양에 올라왔던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난 간부선생님은 계산아주머니의 지극한 정성에 감탄하여 이 일을 김일성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윽고 아주머니는 원수님이 계시는 방으로 안내되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방에 들어서자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웃음을 지으시고 마주 걸어오시더니 못이 박힌 아주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하고 반갑게 맞아주시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원수님앞에서 너무나 감격하여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인사의 말씀을 올렸으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한참후에야 아주머니는 겨우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군님, 장군님이 주신 땅에서 제손으로 지은 밀과 감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남의 종노릇을 하던 제가 장군님덕에 오늘은 제집을 쓰구 제농사를 짓구 떳떳이 살게 되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목이 꽉 메여서 더 말을 못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울먹이고있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아 걸상에 앉히시면서 다른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 올해 농사는 잘 되였습니까?》

《예, 올농사가 잘 되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말씀드리자 원수님께서는 아주 만족해하시며 이번에는 마을 농민들의 생활형편을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마을농민들도 땅을 받고 모두 잘 살게 되였다고 말씀드리자 원수님께서는 《마을에 학교가 있습니까? 중학교는 있습니까?》하고 물으셨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인민학교밖에 없다는 계산아주머니의 말을 들으시고,

《내게 낟알을 가져온것도 좋지만 마을에다 학교를 짓는데 도왔으면 더 좋았을걸 그랬소.… 모든 농민들이 농사도 잘 짓고 힘을 합쳐서 학교를 잘지어 후대들을 잘 교육해야 합니다.》하고 일러주시였습니다.

그리고는 계산아주머니의 곁에 와앉으시면서 《동무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있습니까? …신문은 읽고있습니까?》하고 물으셨습니다.

《장군님, 저는 아직 글을 모릅니다.》아주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조선사람들이 다 우리 나라글을 보고 읽을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공부를 해야지요.…》

《장군님말씀대로 글을 배우겠습니다.》아주머니는 숙였던 고개를 쳐들고 힘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하고 약속합시다. 지금부터 석달후에 문맹을 퇴치하고 동무의 손으로 편지를 써서 그 소식을 보내

주시오, 어떻습니까? 할수 있습니까?»

«예, 장군님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산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원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는것이였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이밖에도 계산아주머니에게 여러가지를 가르쳐주시였습니다.

다음날 아주머니는 자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아주머니는 원수님앞에서 다진 맹세를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돌아온날 밤부터 아주머니는 학교선생님을 찾아가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짬만 있으면 글을 읽었습니다. 비오는 날에는 기름종이에 책을 싸가지고 밭에 나가 쉬는 때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또한 학교짓는데도 열성껏 나섰습니다. 평양에서 내려올 때 원수님께서 려비로 쓰라고 주신 돈도 학교 짓는데 내고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짓는 일터에 나가 일했습니다.

어느덧 원수님앞에서 약속한 석달이 되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며칠밤을 새워가면서 원수님께 드릴 편지를 썼습니다. 쓰고 지우고 또 쓰고 하면서 한자, 한자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원수님의 덕분에 글까지 배우고 신문을 읽을수 있게 되였다는 이야기, 마을에 학교가 새로 일떠서 중학생만 하여도 6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 자기집을 비롯한 마을농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늘어 재미가 난다는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원수님께 보내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안되는 어느날 아주머니는 정말 뜻밖에도 원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아주머니가 약속한대로 석달동안에 문맹을 퇴치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준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일을 더 잘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여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는 내용이 씌여져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얼마후 계산아주머니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표창장과 시계를 또 받았습니다.

아주머니의 감격은 그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수 없을만큼 컸습니다. 아주머니는 원수님의 이 두터운 배려와 지극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바쳐 일하였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온 나라가 불바다에 잠겼을 때도, 전후에 재더미만 남았을 때도 아주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리하여 아주머니는 그후 최고인민회의대의원으로, 로력영웅으로 되였습니다.

또한 아주머니는 대학까지 나오고 협동농장관리위원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이상의 이야기는 비단 리계산아주머니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김일성원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사회주의제도아래에서 그이의

두터운 배려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제도야말로 가장 살기좋은 사회제도입니다.

단 어

대의원
나무상자
들다
아주머니
역
붙잡다
끝내
무슨←무엇
사연
험하다
산골
머슴군
태여나다
빚
끌려가다
부엌데기
기둥
남편
《보국대》
원통하다
난생처음
열성껏
뜨락
산더미
낟가리
흐뭇하다
넘치다

은덕—덕
가슴뜨겁다
밀
자르다
장만하다
감자
굶다
캐다
감사드리다
정성
감탄하다
이윽고
안내되다
웃음짓다
마주
못
박히다←박다
반갑다
맞아주다
말씀올리다
한참
작년
재작년
종노릇
떳떳이
울먹이다
앓히다←앓다

올해
올농사
형편
자세히
낟알
합치다—합하다
일러주다
신문
붉히다—붉다
숙이다
고개
약속하다
문맹
퇴치하다
편지
실천하다
짬
기름
싸다
더미
담다
덕분

살림살이
뜻밖에
성과
거두다
내용
표창장
시계
표현(～하다)
만큼
두텁다
보답하다
몸바치다
최고
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로력영웅
농장
관리
관리위원장
비단
제도

단어만들기

△ 머슴군, 일군, 살림군, 농사군, 사냥군
△ 산더미, 쌀더미, 비료더미, 낟알더미,
△ 올해, 올농사
△ 로력영웅, 전투영웅

표 현

△ 열여섯살나다
△ 기둥처럼 믿다
△ 난생처음

△ 웃음을 짓다
△ 말씀을 올리다(드리다)
△ 못이 박히다
△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다.
△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수 없다.
△ 밤낮을 가리지 않다.

문 법

1) —느라고, 동사+느라고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학생들은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읽느라고 밤가는줄 모른다.

2) —자면 동사+자면
—혁명을 하자면 대담성이 있어야한다.
—김일성원수님께 충실하자면 우선 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

3) 도움토《—만큼》
명사 / 대명사 } +만큼
—《아버지, 형님만큼 크면 나도 인민군대에 나갈수 있나요?》
—나도 너만큼 읽을수 있다.
※동사일때
현재—는만큼; 쓰는만큼, 읽는만큼
과거—ㄴ(은) 만큼; 쓴만큼, 읽은만큼.
미래—ㄹ(을) 만큼; 쓸만큼, 읽을만큼.
—원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표창장과 시계를 받은 아주머니의 감격은 표현할수 없을만큼 컸다.
—비가 내릴만큼 내렸으니 이제는 개일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읽은(것) 만큼 말하여보시오.

4) —야(이야)말로
명사 / 대명사 } +야(이야)말로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제도야말로 가장 살기 좋은 사회제도이다.
—바다야말로 청년들의 보람찬 일터이다.

5) —고야말다, 동사+고야말다.
—아주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어 김일성원수님을 만나뵙고야 말았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고야 말것이다.

6) —고나서 동사+고나서(고난)
—오늘 숙제를 다 하고나서 나는 신문을 읽기시작하였다.
—오늘 숙제를 다 하고난 나는 신문을 읽기시작하였다.

7) —는지(현재), —ㄴ(은)지(과거)
동사+는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은지 얼마안되는 어느날이였다.
—나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지 3년째 된다.
—아버지는 이 공장에서 일하시는지 오래다.

8) 전달법
① 직접전달법
—원수님께서는《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하고(라고) 반갑게 맞아주시였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울먹이고있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아 걸상에 앉히시면서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시였다.
《그래, 올해 농사는 잘 되였습니까?》
《네, 올농사가 잘되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말씀드리자 원수님께서는 아주 만족해하시며 이번에는 마을농민들의 생활형편을 자세히 물으셨다.

② 간접전달법

—아주머니는 마을농민들도 땅을 받고 모두 잘 살게 되였다고 원수님께 말씀드렸다.

—아주머니는 원수님의 덕분에 글까지 배우고 신문을 읽을수 있게 되였다는 이야기, 마을에 학교가 새로 일떠서 중학생만 하여도 6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 자기 집을 비롯한 마을농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늘어 재미가 난다는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원수님께 보내드렸다.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에는 아주머니가 약속한대로 석달동안에 문맹을 퇴치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준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일을 더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여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는 내용이 씌여져있다.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1) 리계산아주머니는 해방전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2) 해방을 맞은 리계산아주머니는 어떻게하여 잘 살수 있게 되였습니까?
   3) 리계산아주머니는 왜 밀 두말과 감자 한말을 마련하였습니까?
   4) 김일성원수님앞에서 리계산아주머니는 왜 목이 콱 메여 말을 못하였습니까?
   5)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리계산아주머니의 말을 들으신 후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6) 김일성원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리계산아주머니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7) 리계산아주머니는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에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8) 김일성원수님의 두터운 배려와 지극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리계산아주머니는 어떻게 일하였습니까?

   9) 리계산아주머니가 어떻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로력영웅으로 되게 되였습니까?

2. 아래의 동사를 피동형과 사역형으로 고치시오.

앉다	부르다
서다	빼앗다
오르다	쓰다
붙잡다	읽다
보다	들다

3. 다음 단어를 리용하여 문장을 지으시오.

난생처음	비단
다지다	끝내
비롯하여	너무
지극하다	흐뭇하다
몇몇이	

4. 다음의 말과 뜻이 비슷한 말을 쓰시오.

기둥처럼 믿다—
아무말도 못하다—
난생처음—
맹세를 다지다—
밤낮을 가리지 않다—
성과를 거두다—

5. 다음의 토를 리용하여 문장을 지으시오.

—느지	—더니
—다가(다)	—고야말다
—는데	—야말로
—느라고	—ㄹ(을)만큼
—대로	—에다.

6. 본문에서 격토 《에》를 가진 문장들을 찾고 그 뜻을 말하시오

제 16 과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신 유서깊은 모란봉기슭에 웅장하게 솟아있다.

종합대학은 1946년 10월 1일 김일성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새조선의 학원의 맏아들로 태여났다.

종합대학의 창립은 조선에서 인민의 대학의 기원을 열어놓은 거대한 력사적사변이다. 종합대학이 창립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오랜 력사적숙망이였던 과학의 최고전당을 가지게 되였으며 민족간부양성의 강력한 기지를 꾸리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지난날 압박과 천대만을 받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이 매달 장학금을 받으며 철따라 교복을 받으면서 선진과학을 마음껏 배울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전체 조선인민들은 종합대학의 창립을 무한한 감격과 기쁨속에서 맞이하였으며 그에 대한 전 민족의 념원과 기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대학의 창립자이시며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과 결부시켜 이 대학을 김일성종합대학이라고 부르고있다.

수령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닌 종합대학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대학을 직접 창립하여주시였으며 배움의 넓은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충성의 마음담아 원수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있다.

종합대학은 창립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화국의 품속에서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다.

종합대학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품속에서 과학의 최고전당으로, 민족간부양성을 위한 강력한 거점으로 되였다. 종합대학은 당과 수령의 높은 뜻을 받들고 혁명의 붉은 대학, 조국과 인민의 충복을 길러내는 진정한 로동계급의 대학으로 되였다.

학생들은 종합대학의 력사학부, 경제학부, 어문학부, 물리학부, 생물학부를 비롯한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부들에서 자기들의 과학적재능을 마음껏 키우고 있으며 로동계급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는 혁명가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다.

대학에는 일하면서 배우는 통신 및 야간학부들이 있으며 제대군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제대군인예비과가 있으며 대학은 인민들로부터 높은 신임을 받는 로동계급의 대학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고있다.

대학은 정치사상적으로 무장되고 과학리론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전문가들을 해마다 수천명씩 양성하여 인민경제 각분야에 내보내고있다.

조선인민은 자기가 양성한 기술간부의 대부대를 가지고 현대화된 사회주의공업과 농촌경리를 훌륭하게 관리운영해 나가고있다.

종합대학이 이룩한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의 교육정책과 김일성원수님의 탁월한 교육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다.

이것은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의 결과이며 그이의 육친적배려와 지도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김일성원수님은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십차례나 대학을 현지지도하시고 대학발전의 기본방향과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으며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원수님은 훌륭한 교사에 현대적설비를 갖춘 실험실들과 교실들, 연구실들을 충분히 마련해주시였고 학생들이 과학의 진리를 마음껏 탐구할수 있도록 큰 도서관을 건설해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평양으로부터 멀리 깊은 산속에 자리잡고있는 대학을 몸소 찾으시여 초막에서 교원, 학생들과 밤을 새우시며 전시에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후 사회주의건설에서의 과학자들의 임무에 대하여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반토굴집 기숙사와 식당을 돌아보시고 학생들의 숙식문제와 교과서, 학용품 등 모든것들에 대하여 일일이 걱정해주시였다.

원수님은 외국류학생들이 생활하고있는 기숙사들을 친히 방문하시고 그들이 학습과 생활에서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깊이 보살펴주시였다.

원수님은 심지어 진귀한 동물이나 식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학생들의 학습과 과학연구에 리용하도록 대학에 보내주시였다. 지금 대학에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진귀한 동물들로 하나의 큰 생물과학관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후대교육과 과학발전을 위한 김일성원수님의 극진한 배려의 표시로서 대학에서 배우는 학생들을 무한히 고무하고있다.

수령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닌 종합대학에서 배우며 생활하는 학생들은 세상에 부러움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 끝없는 행복과 기쁨에 대하여 어버이 수령님께 충성으로 보답할 결의로 가득차있다.

대학본관에는 김일성원수님의 지난 40여년간의 빛나는 혁명투쟁력사를 보여주는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연구실과 우리 대학에 대한 어버이수령의 높으신 배려를 보여주는 현지교시판이 훌륭하게 꾸려져있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그이의 높은 덕성을 심오히 연구하면서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높으신 덕성을 따라 배우고있으며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자라날 충성의 굳은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진다.

종합대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활짝 꽃피우면서 더욱더 번영할것이며 영광스럽고도 자랑찬 자기 이름을 빛낼것이다.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온 인민의 종합대학은 날로 륭성발전하는 조국과 함께 당과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와 영광의 길에서 영원히 번영하리라!

단 어

전당	발기
터전	지도
잡아주다	학원
기숙	맡아볼

창립
창립자
기원
거대하다
력사적사변
숙망
양성
강력하다
기지
꾸리다
기쁨
념원
기대
표시하다
결부시키다
신뢰
동상
모시다
이후
거점
받들다
충복
걸러내다
어문
물리
생물
학부
재능
혁명가
통신
야간
제대
군인

제대군인
특별히
설치하다
예비과
신입
면모
리론
리론적
유능하다
전문가
인민경제
분야
대부대
농촌경리
운영하다
구현
결과
육친적
바쁘다
차례
현지
현지지도
발전
기본
방향
웅대하다
설계도
걸리다
문제
풀다
교사
실험실
연구실

진리
탐구하다
교원
전시
과학자
임무
토굴집
숙식문제
학용품
불편
심지어
진귀하다
생기다
리용하다
동물

과학원
후대
본관
력성
교시
정결하다
현명성
심오히
연구하다
구상
번영하다
빛내다—빛나다
날로
륭성(∼하다)

표 현

—기원을 열어놓다.
—걸린문제를 풀다.

문 법

규정토

동 사	형용사	명사	시간상의 의미
—는	—ㄴ(은)	—ㄴ(인)	현재
—ㄴ(은)	—	—	과거
—던	—던	—던(이던)	과거지속
—았(었, 였)던	—았(었, 였)던	—(이였던)	과거완료
—ㄹ(을)	—ㄹ(을)	—ㄹ(일)	미래

비교

① —내가 타는 뻐스 —내가 읽는 책
—내가 탄 뻐스 —내가 읽은 책
—내가 타던 뻐스 —내가 읽던 책
—내가 탔던 뻐스 —내가 읽을 책
—내가 탈 뻐스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1) 김일성종합대학은 어떻게 창립되였습니까?
   2) 종합대학의 창립은 조선인민들에게 왜 력사적사변으로 됩니까?
   3) 종합대학은 창립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습니까?
   4) 당과 수령의 높은 뜻을 받든 종합대학은 어떠한 대학으로 되였습니까?
   5) 종합대학에는 어떤 학부들이 있으며 학생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고있습니까?
   6) 종합대학은 어떤 사람들을 양성하여 인민경제 각 분야에 보내고있습니까?
   7) 김일성원수님은 종합대학사업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배려를 돌려주시였습니까?
   8)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배우며 생활하는 학생들은 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2. 다음 빈자리에 알맞는 단어를 써넣으시오.
   1) 종합대학에서는 로동자, 농민… …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이 …껏 배우고있다.
   2) 종합대학은 공화국의 …에서 빛나는 …와 영광의 …을 걸어왔다.
   3) 종합대학은 …들로부터 …은 신임을 …는 인민의 대학이며 로동계급의 대학입니다.
   4) 종합대학에서 …며 생활하는 학생들은 세상에 …없는 가장 …한 사람들이다.
   5) 학생들은 혁명에 … 충실한 붉은 전사로 자라날 굳은 …를 …고있다.
3. 다음의 빈 자리에 알맞는 토를 써넣으시오.
   1) 우리는 김일성종합대학 류학생 예비반… 조선말… 공부하고 있다.
   2) 대학생들은 당과 국가로… 매달 장학금과 철… 교복을 받으… 마음… 배우고있다.
   3) 종합대학은 민족간부양성을 … 강력… 거점… 되였다.
   4) 종합대학에는 일하… 배우는 통신 및 야간학부들… 있다.
   5) 종합대학에는 제대군인들… 특별히 설치… 제대군인예비과… 있다.
4. 다음 괄호안의 동사, 형용사를 변화시켜 문장을 만드시오.
   1) 대학은 자기가 (키우다) 수많은 민족간부들을 사회에 내보냈다.
   2) 대학을(졸업하다)학생들은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3) 오늘 조선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를(가지다)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되였다.
   4) 종합대학의 오늘도 (좋다) 래일은 더욱 좋을것이다.
   5) 당의 품속에서 종합대학은 더욱더 (번영하다) 영광스럽고도 (자랑차다) 자기 이름을 빛낼것이다.
5. 다음의 단어와 토로 문장을 지으시오.

—게 되다	활짝
—으로 되다	모시다
—에 의하여	양성하다
—를(을) 가지다	펼치다
웅장하다	일일이
꾸리다	보살피다

제 17 과

이 총을 혁명동지들에게!

지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빨찌산대원들이 김일성원수님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강도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싸워이긴 불멸의 업적들은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고동치고있다.

유격대를 조직하던 초기에 놈들의 무기를 빼앗는 싸움에서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서슴없이 혁명에 바친 항일투사들의 그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들을 감동시키고있다.

1933년 9월 어느날이였다.

벌써 두만강연안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눈까지 내리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 령도하시는 빨찌산 대원들인 오일파, 박세홍, 한태연동지들은 두만강을 건너오는 한 나루배에 올라탔다. 이들은 놈들의 무기를 빼앗기 위하여 강을 건너오고있었다. 이 배에는 다른 사람들도 열뒤명가량 앉아있었다.

배는 푸른 두만강의 흐름을 따라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배가 강기슭에 닿자 일제순사 세놈이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검열하는것이였다. 놈들은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끌어다 차고 때리고 하였다. 놈들의 이런 행동을 보는 세대원들의 가슴속에서는 증오와 격분이 끓었다. 그들은 제일 마지막에 배에서 내리면서 놈들의 행동을 살펴보았다.

세대원은 제각기 놈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바로 이때였다.

오일파동지가 일제순사 한놈을 즉시에 권총으로 쏘아눕혔다. 그러자 다른 두대원도 일시에 순사 한놈씩을 재빨리 쏘아눕혔다.

용감한 세대원은 놈들의 파출소에 뛰여들어가 많은 무기를 빼앗아가지고 급히 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들은 뜻밖의 난관에 부닥쳤다. 그것은 배 우에 있던 노가 없어졌기때문이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부근에 있던 일제놈들이 추격해오기 시작했다.

가까운 곳에서 적들의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은 강물을 헤여건널 생각도 해보았으나 그중 한태연동지는 전혀 헤염을 치지 못하였을뿐만아니라 다른 동지들도 로획한 무기를 가지고는 두만강을 건늘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위급한 순간에도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다.

무기를 배에 실은 다음 헤염을 잘치는 두동지는 물에 들어서서 배를 밀고 한태연동지만 배에서 적들을 감시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강 절반쯤 왔을 때에 적들은 벌써 강가에 나타나서 총질을 하였다.

바람이 불고 눈이 내려서 적들은 처음에 세동지가 타고 건너가는 위치를 알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얼마를 못가서 적들은 우리의 배를 발견했고 그놈들도 배를 타고 뒤따라오기 시작했다.

적들의 총탄은 점점 더 배주위로 집중되였다. 이때부터 세동지는 배를 내버리고 강물에 들어섰다. 빼앗은 무기는 오일파동지가 메고 박세홍동지는 헤염을 칠줄 모르는 한태연동지를 업고 건느게 되였다.

적들은 세동지가 물속으로 건느는것을 보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배만 보고 그쪽을 향해 총을 쏘고있었다.

이틈에 세동지는 적들의 총탄을 피하였고 그중 오일파동지는 무기를 메고 이미 강을 건너갈수 있었다.

오일파동지는 강가에 대기하고있던 네동지에게 빼앗은 무기를 넘겨주고 적들을 향하여 사격을 계속하였다.

한태연동지를 업은 박세홍동지는 강이쪽 언덕에 거의 다달았을 때에 불행하게도 적탄에 맞고 물속에 가라앉게 되였다.

그들을 따라 내려가며 적을 방어하던 오일파동지마저 적탄에 맞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상처를 생각할 사이도 없이 다시 총을 잡고 일어나 적들을 향해 계속 불을 뿜으면서 물속에 빠진 동지들을 구원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기여내려갔다.

잠시후에 물속에서 다시 머리를 추켜든 박세홍동지는 자기의 부상을 돌아볼 사이도 없이 등에 업었던 한태연동지부터 찾았다. 헤염을 치지 못하고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의 머리가 두서너발 아래쪽에서 솟구쳤다가 또다시 물속에 파묻히는것이 보였다. 박세홍동지는 힘을 다하여 그를 따라잡았다. 그는 몹시 애를 써서 한태연동지를 업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가쁜 숨을 내쉬며 다시 돌아서서 강언덕쪽을 향해 헤

염을 치기 시작했다. 그는 겨우 머리를 들고 앞을 건너다보았다. 이미 먼저 건너간 오일파동지와 그곳에서 기다리고있던 네명의 동지들이 빼앗은 무기를 손에 잡고 적들을 향해 맹렬한 불을 뿜고있는것이 보였다.

이 순간 박세홍동지에게는 새로운 힘이 솟았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무기가 생겼다.—

그는 한시바삐 건너가고싶었다.

새로 빼앗은 무기를 잡고 그전보다 더 대담하게 적을 짓부시는 대렬에 다시 서고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더 힘있게 팔다리를 내저었다.

이때 강가에서는 적들과 싸우는 동지들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들렸다.

《박동무! 한동무!》

동지들의 안타까운 부름소리와 적아간의 격렬한 총소리가 한시에 그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러나 이미 그는 많은 피를 흘려 기운이 없어져갔다. 안타깝게 팔을 젓고 다리를 걷어찼으나 한태연동지를 등에 업은 그의 몸은 점점 강물을 따라 떠내려갈뿐이였다.

《박동무! …나를 놓아두게…》

등에 업힌 한태연동지는 두손으로 박세홍동지의 등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박세홍동지는 숨이 차서 입에 물고 있는 권총마저 물속에 떨어드릴 형편이였다.

그는 입에 문 권총을 가까스로 바른손에 옮겨쥐였다.

그는 두세번 거듭 급한 숨을 쉬면서 등에 업힌 한태연동지에게 말하였다.

«참게… 동무는 헤염을 잘못치니까 …나를 놓으면 죽네! …꼭 붙들게! 살아야 해!»

그러나 이미 손발에는 맥이 빠지고 몸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흐려여가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물이 들어찬 목구멍에서는 한마디말도 더 나오지 못했다.

겨우 정신을 차려가며 또다시 강바닥을 발끝으로 찼다.

팔을 내젓고 몸을 뒤흔들며 다시 가라앉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어떻게 해서든지…이 동무와… 그리고 이 총을…»

그러나 손발은 점점 굳어지고 적들은 곧 뒤머리를 잡을듯 배를 저어 건너오고있었다.

이때 강언덕에서 부상을 당한 오일파동지가 벼랑끝으로 계속 기여오며 그들을 향해 소리를 쳤다.

박세홍동지는 숨가쁘게 웨치는 오일파동지의 목소리를 들었고 무엇인지 자기 어깨에 와닿는것을 느꼈다. 그것은 오일파동지가 강언덕에 엎드려서 내미는 총탁이였다.

«박동무! 어서 이걸 붙잡게! …»

어렵고 위급한 때일수록 자기 보다도 혁명동지를 먼저 생각하는 항일유격대원인 박동지는 그 총탁을 등에 업힌 한태연동지에게 먼저 넘겨주고 물우에 몸을 솟구며 그의 몸을 떠올렸다.

이때 거듭 날아오는 적탄이 박세홍동지의 등을 꿰뚫었다. 이것을 본 오일파동지가 다급한 소리를 지르며 그옆에 있는 다른 동지를 불렀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박세홍동지는 겨우 손을 내밀어 권총을 던지면서 «혁명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하는 마지막부탁을 남기고는 물속에 파묻혀버렸다.

오일파동지는 가까스로 한태연동지를 언덕에 끌어올려놓고는 계속 강굽이쪽을 기여내려가며 박세홍동지를 불렀다. 그러나 적아간의 맹렬한 총소리뿐 그의 부름에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박세홍동지의 모습도 다시는 물우에 떠오르지 않았다.

오일파동지는 사랑하는 전우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 힘자라는데까지 강기슭을 기여내려갔다.

«박동무! …»

«박세홍동무! …»

박세홍동지는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혁명의 승리를 보지 못하였다.

혁명투사는 갔으나 혁명가의 뜨거운 피가 스며있는 그 총은 오늘 사회주의 전취물을 지켜선 우리 인민의 손에 튼튼히 쥐여져있다.

우리 인민은 항일투사들이 물려준 이 총을 튼튼히 틀어쥐고 이땅에서 미제를 족치고 우리 세대에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고야 말것이다.

단 어

업적
고동치다
초기
고귀하다
바치다
감동하다(감동시키다)
연안
나루배
~가량
닿다
검열하다
때리다
증오
무기
제각기
다가가다
즉시에
파출소
급히
난관
부닥치다
노
부근
추격하다
전혀
헤여건느다
로획하다
위급하다
순간
당황하다
감시하다

절반
~쯤
총질
위치
발견~하다
~되다
주위
집중~하다
~되다
~시키다
떠내려가다
틈(~을 타다)
피하다
대기하다
넘겨주다
방어하다
방어진투
언덕
거의
다다르다
가라앉다
상처
뿜다
빠지다
구원하다
무릅쓰다
추켜들다
휩쓸다
휩쓸리다
발(한~, 두~)
솟구치다

파묻다
파묻히다
성공하다
가쁘다
가쁜 숨
내쉬다
들이쉬다
겨우
맹렬하다
한시바삐
따라잡다
짓부시다
간절하다
악물다(앙물다)
이를~
젓다
내~
안타깝다
적다
두드리다
기운
걷어차다
놓아두다
밀어내다
물다
떨어뜨리다
가까스로

옮겨쥐다
거듭
참다→참게(명령)
붙들다
맥이 빠지다
애쓰다
숨가쁘다
목구멍
강바닥
뒤흔들다
벼랑
웨치다
엎드리다
내밀다
총탁
위급하다
케뚫다
다급하다
다닿다
무탁
남다
남기다
강굽이
힘자라다
스며있다
물려주다
틀어쥐다

단어만들기

△ 고동치다, 고함치다, 소리치다, 족치다, 헤염치다
△ 다가가다, 다가오다, 다가들다, 다가붙다, 다가서다
△ 절반쯤, 세시쯤, 이틀쯤, 십리쯤, 백명쯤

△ 총질, 낚시질, 마치질, 가래질, 낫질, 손질

△ 휩쓸다, 휩싸다

△ 짓부시다, 짓밟다, 짓찧다, 짓이기다(진니기다)

△ 내젓다, 내던지다, 내버리다, 내밀다, 내가다, 내놓다, 내닫다, 내두르다, 내대다, 내보내다, 내쉬다, 내주다, 내뜨리다, 내빼다, 내뿜다, 내쏘다, 내쫓다, 내놓다

△ 놓아두다, 넣어두다, 가져다두다

△ 떨어뜨리다, 넘어뜨리다, 깨뜨리다

△ 옮겨쥐다, 옮겨가다, 옮겨놓다, 옮겨심다, 옮겨주다

△ 붙잡다, 붙들다, 붙안다

△ 강굽이, 산굽이

△ 물려주다, 물려받다

△ 끌어올려놓다(끌다+올리다+놓다), 떠내려가다(뜨다+내리다++가다), 넘겨주다(넘기다+주다), 파묻히다(파다+묻히다)

△ 뒤흔들다, 뒤놓다, 뒤덮다, 뒤바꾸다, 뒤섞다

표 현

△ 난관에 부닥치다	△ 이를 악물다
△ 시간을 보내다	△ 심장을 두드리다
△ 불행하게도	△ 숨이 차다
△ 생각할 사이도 없이	△ 맥이 빠지다
△ 불을 뿜다	△ 정신을 차리다
△ 위험을 무릅쓰다	△ 어떻게 해서든지
△ 힘을 다하다	△ 손발이 굳어지다
△ 애를 쓰다	△ 부상을 당하다
△ 숨을 쉬다	△ 소리를 지르다

문 법

1) —니까(—으니까), 이니까

동사, 형용사+니까(으니까)

명사, 수사, 대명사+이니까

—꼭 붙들게…동무는 헤엄을 잘못치니까 나를 놓으면 안되네…

—우리들은 청년들이니까 어떤 일에서든지 앞장서야 한다.

—집에 가니까 김동무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있었다.

2) —든지(—이든지)

동사, 형용사 }+든지

명사, 수사, 대명사 }+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총을 동무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일은 꼭 해내야 한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꼭 가겠습니다.

—연필이든지 만년필이든지 아무것이나 주십시오.

3) 수사

한둘, 두셋, 두서넛, 너덧, 서너너덧, 너더댓, 대여섯, 예일곱, 여나문, 스무나문, 서르나문, 마흐나문, …아흐나문, 열대여섯, 아흔서너너덧

4) 구를 가진 문장

1) 주어구를 가진 문장

—항일유격대원 세명이 왜놈들의 무기를 빼앗기 위하여 두만강을 건는것은 1933년 9월 어느날이였다.

—동무들이 학교로 간지가 얼마지나지 않았다.

2) 술어구를 가진 문장

—우리 나라는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다.

—박세홍동지는 많은 피를 흘려 기운이 없어져갔다. 그러나 그는 한태연동지를 더 힘있게 업었다.

3) 규정어구를 가진 문장

—김일성원수님께서 령도하시는 빨찌산대원들인 오일파, 박세홍, 한태연동지들은 두만강을 건너가는 한 나루배에 올라탔다.

—오곡이 무르익은 무연한 협동벌이 눈앞에 보인다.

4) 보어구를 가진 문장

—한태연동지는 박세홍동지가 자기를 내려놓고 갈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세홍동지는 혁명동지를 두고 갈수는 없었다.

—우리는 동무들이 학습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5) 상황어구를 가진 문장

—항일투사들의 투쟁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의 가슴속에 뜨겁게 안겨온다.

—오일파동지는 두동지가 잡게 총탁을 내밀었다.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이 이야기는 어느때의 이야기입니까?
   2) 왜 항일빨찌산대원들은 두만강을 건너가는 나루배를 탔습니까?
   3) 배에서 내린 항일빨찌산대원들은 일제놈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4) 항일빨찌산의 세대원들이 적들의 무기를 빼앗아가지고 강기슭에 나왔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5) 적들이 추격해 왔으나 세 항일빨찌산대원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6) 위험한 환경속에서도 항일빨찌산대원들은 서로 어떻게 혁명적 동지애를 발휘하였습니까?
   7) 박세홍동지의 숭고한 혁명정신은 어떻게 표현되였습니까?
   8) 무엇을 위하여 항일빨찌산대원들은 고귀한 청춘을 바쳐 싸웠습니까?
2. 다음 단어들과 뜻이 반대되는 말을 쓰시오.

초기에	넘겨주다
당황하다	방어하다
쥐다	잡다
밀다	

3. 다음 단어들과 뜻이 비슷한 말을 쓰시오.

가슴속에	가지가지
영원히	뜨겁다
틈	닿다
강기슭	대기하다
제각기	벌써
즉시	추켜들다
부닥치다	한시에
참다	숨이차다
빼앗다	가까스로
주위	거듭

4. 다음의 단어들로 문장을 지으시오.

서슴없이	불멸
간절하다	족치다
스며있다	세차다
—고싶다	—에 바치다
뜻밖에	—기로 하다

5. 다음의 토들로 문장을 지으시오.

—면…ㄹ수록	—만
—까지	—(이)라도
—을(를) 따라	—는데
—자	—보다 더
—씩	—든지
—았(었, 였)던	—인지
—(으)나	—(으)므로

6. 밑줄을 그은 동사와 접두사, 접미사를 가지고 단어들을 만드시오.

<u>올라</u>타다	<u>옮겨</u>쥐다
뛰여<u>들다</u>	알아<u>내다</u>
총<u>질</u>	<u>뒤흔</u>들다
<u>짓</u>부시다	<u>다가</u>가다

7. 다음의 말과 뜻이 비슷한 말을 쓰시오.

1) …을 생각할 사이도 없이	6) 이를 악물다
2) 불을 뿜다	7) 맥이 빠지다
3) 위험을 무릅쓰다	8) 정신을 차리다
4) 가쁜 숨을 쉬다	9) 애를 쓰다
5) 힘이 솟다	10) 소리를 지르다

8. 다음 문장의 빈자리에 알맞는 단어들을 써넣으시오.

1) 그는 … 숨을 내쉬며 다시 돌아서서 강… 향해 헤염을 … 시작했다.

2) 그는 새로 … 무기를 잡고 그전보다 더 … 적을 짓부시는 대렬에 다시 서고싶은 … 간절했다.

3) 동지들의 … 부름소리와 적아간의 맹렬한 총소리가 한시에 그의 … 두드렸다.

4) 놈들의 … 만행을 직접 보게된 세대원들의 …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다.

5) 용감한 항일유격대원들은 일제경찰놈들의 파출소에 … 많은 무기를 빼앗아가지고 … 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6)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고 그 … 받들기 위해서는 생명도 … 바치여 투쟁하는것이 바로 혁명전사의 ….

7)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의 … 위해 몸바쳐 싸운 … 오늘도 우리들에게 … 어떻게 살며 싸워야하는가를 가르쳐주고있다.

9. 빈자리에 알맞는 토를 넣고 괄호안에 있는 단어를 알맞는 형태로 바꾸어 문장을 완전히 만드시오.

1) 강건너 기슭… (기다리다) 네동무… 빼앗은 무기…넘겨주었다.

2) 곤난과 위험이 두려워서 어려운 일…(못하다) 혁명을 수행할 수 없다.

3) 눈은 허리… 넘어 가슴을 (치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다) 못한다.

4) 헤염… 치지 못하고 물살에 (휩쓸다) 떠내려가는 그의 머리가 (두서너발 아래쪽… (솟구치다) 또다시 물속… (파묻다) 것이 보였다.

10. 본문에서 《포함》 및 《제한》의 뜻을 가진 도움토들을 찾고 같은 뜻을 가진 도움토들을 아는대로 쓰시오.

1) 항일유격대는 일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자기의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와 준비가 되여있는 그러한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로서 조직되였다.

2) 혁명이란 목숨을 걸고 싸우는 투쟁이다. 혁명을 한다는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3) 우리들에게는 혁명의 리익외에 다른 어떤 리익이란 있을수 없다. 개인의 리익보다 먼저 혁명의 리익을 생각하자!

4)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미래를 사랑할줄 알아야 한다.

5) 우리 빨찌산들은 원쑤에게는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인민들에게는 순한 양처럼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야 한다.

우리는 총창을 더욱 굳게 잡으리

1. 피끓는 가슴마다 총창을 안고서
우리들은 번영하는 조국을 지켜간다
영광, 영광의 길에 항일투사 물려준 그 총
오늘은 수백만 어깨에 빛난다
어깨에 빛난다

2. 내조국 온나라가 철벽의 요새다
우리들은 일당백의 용감한 초병이다
영광, 영광의 길에 원쑤치던 승리의 총검
오늘은 수백만 어깨에 빛난다
어깨에 빛난다

3. 내조국 남녘땅에 원쑤가 있는한
우리들은 총창을 더 굳게 잡으리
영광, 영광의 길에 자랑떨친 혁명의 무장
오늘은 수백만 어깨에 빛난다
어깨에 빛난다.

제 18 과

김일성원수님의 어린시절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12년 4월 15일 유서깊은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였다.

김일성원수님의 가정은 대대로 내려오며 혁명적가정이였다.

훌륭한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자라나신 원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원쑤를 미워하시는 붉은 마음이 싹터 자라났다.

무지개를 잡으려고 오르셨다는 들메나무와 만경봉의 아름드리 푸른소나무며 《썰매바위》와 《군함바위》, 《씨름터》와 《샘물터》, 《낚시터》와 《학습터》등에 깃든 사연들은 원수님께서 남다른 포부를 안고 혁명의 큰 뜻을 키우셨음을 감회깊이 이야기하여준다.

만경대 고향집 산밑에는 크고 작은 바위가 형제처럼 나란이 앉아있다. 푸른 잔디밭에 우뚝 솟은 바위는 두둥실떠가는 군함과도 같았다. 그래서 이 바위를 《군함바위》라고 불렀다.

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데리고 이 《군함바위》에서 일제놈을 치는 군사놀이를 즐겨하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원수님은 혁명활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신 아버님을 따라 강동군 봉화리에 가시게 되였다.

그런데 여기서 혁명활동을 줄기차게 전개하시던 아버님 김형직선생님이 일제군경에게 붙잡혀 가셨다.

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이 일제놈들에게 붙잡혀가시는

것을 직접 보시였으며 그날 또다시 일제경찰들이 달려들어 집을 들출 때 놈들에게 항거하여 굳세게 싸우시는 어머님의 강의한 모습을 보시였다.

그때 원수님께서는 여섯살밖에 안되였으나 가슴속에서는 일제에 대한 증오심이 타번졌다.

그후에 원수님께서는 만경대 고향집에 오셨다.

원수님께서는 일곱살 되시였을 때 어머님을 따라 아버님을 뵈옵기 위해 평양감옥에 찾아가셨다. 거기에서 일제의 혹독한 고문으로 형색을 분간할수 없게 된 아버님을 만나뵌 원수님은 원쑤 일제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셨다.

가을에 붙잡혀가신 아버님은 대동강얼음이 다 녹고 나무잎이 푸르러도 돌아오시지 못하였다.

어머님 강반석녀사께서는 어린 원수님을 데리고 《그네터》에서 그네를 뛰워주시며 어서 크고 자라서 조선인민의 원쑤를 갚기 위하여 일제와 싸워야 한다는것을 이야기하여주셨다.

이 말씀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일제의 철창속에서 신음하고계시는 아버님에 대한 생각이 북받쳐올라 두주먹을 부르쥐며 맹세를 다지셨다.

《어머님, 내손으로 기어코 아버지의 원쑤를 갚겠습니다.》

원수님께서는 군사놀이를 더 세차게 벌리시였다. 그러나 군사놀이를 하시는것만으로 성차하시지 않았다. 원쑤 일제와 정말 한번 맞서 싸우고싶었다.

그러던 어느날 일제놈들은 만경대 고향집에까지 달려들어 마구 행패질을 했다.

밖에서 노시다가 이것을 보신 원수님은 치밀어오르는 분을 참을수 없어 울바자밖에서 고무총으로 놈들을 들이쏘셨다.

일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3.1인민봉기가 일어나 온나라에 퍼지고있을 때에는 원수님께서 여덟살 잡히는 어린몸이였으나 평양을 향한 시위대렬에 끼워 보통문밖까지 따라가시며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셨다.

그후 감옥에서 나오신 아버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새로운 계획을 품으시고 몸을 추세울 사이도 없이 중국동북지방으로 떠나가셨다.

얼마 지나서 원수님께서도 이미 떠나가신 아버님을 따라 중강진을 거쳐 동북으로 건너가셨다.

그리하여 원수님께서는 여덟살때부터 열한살때까지 중강진과 중국동북땅인 림강, 팔도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 여기에서 원수님은 아버님과 함께 손잡고 투쟁하는 여러 독립운동자들을 자주 만나시였으며 아버님을 도와 련락임무 등을 수행하셨다.

어느덧 원수님께서 그곳 팔도구소학교를 마치시게 되였다. 그때는 열두살때였다.

아버님께서는 원수님을 부르시고 앞으로 어데서 어떤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는가고 물으셨다.

원수님께서는 늘 생각해오시던대로 조선에 가서 학교에 다니고싶다고 대답하시였다.

아버님은 늘 원수님께 조선의 력사와 지리, 조국을 빼앗긴 조선인민이 당하고있는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조선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조국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들으시면서 원수님은 조선에 가서 학교에도 다니고 조국의 형편을 직접 보고싶은 생각을 품어오셨던것이다.

원수님의 대답을 들으신 아버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원수님의 먼길떠날 차비를 해주시면서 어린 원수님을 혼자 떠내보내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시였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떻게 가고 어디에서 자고, 이렇게 가는 길에 대하여 자세히 수첩에 적어주시고 나서 원수님을 혼자 떠나가라고 하시였다. 그날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1월 30일이였다.

이런 겨울 천리길에 아들을 혼자 떠내보내기가 괴로웠지만 어머님도 애처로운 생각을 누르시고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성있게 어서 떠나라고 하시였다.

이리하여 원수님께서는 열두살 어린 나이에 혼자 천리가 넘는 먼길을 걸어 만경대에까지 오셨던것이다.

만경대로 오신 천리길, 그것은 어린 원수님에게 있어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배움의 천리길이였다.

원수님께서는 이 천리길을 걸어오시면서 일제에게 짓밟힌 조국과 억눌린 조선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게 되였다.

만경대로 오신 원수님께서는 칠골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시였다. 원수님은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원수님이

공부하시는 맨 웃방에는 밤늦게까지 항상 등불이 켜져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칠골 외가에 찾아가면 그때 원수님이 공부하시며 켰던 남포등을 볼수 있다.

원수님께서는 장소를 가리시지 않고 그 어디를 가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셨다. 널리 알려진 만경봉기슭의 《학습터》, 창덕학교뒤의 《독서터》도 원수님께서 해저무는줄도 모르시고 책을 읽으시던 곳이다.

원수님께서는 학습과 로동, 운동과 휴식도 잘 배합하셨고 배운 지식을 꼭 실천에 옮기시면서 산지식으로 다져가셨다. 참으로 원수님의 학습은 혁명의 큰 뜻을 키워가시는 보람찬 과정이였다.

창덕학교는 김일성원수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원수님이 우리 나라 교육을 처음으로 받으신 뜻깊은 학교이다.

원수님께서 걸으신 배움의 길,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길로만 된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원수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에로 나서시는 길이였으며 혁명의 래일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길이였다.

원수님이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신지 2년이 지나고있을 때 뜻하지 않은 놀라운 소식이 전해왔다. 그것은 혁명의 임무로 압록강을 건너오셨던 아버님께서 후창군 포평에서 일제경찰에게 또다시 체포되였다는 소식이였다.

이 놀라운 소식을 받으신 원수님께서는 반드시 아버님의 원쑤를 갚고 아버님의 뒤를 이어 싸우리라는 굳은 결의를 다지시였다. 원수님이 그때 결의를 다지

신 그곳은 《결의터》로 알려져있다.

원수님께서는 다시 천리길을 걸으시여 며칠후 압록강가에 다달으셨다.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피눈물에 젖은 조국의 산과 들을 몇번이나 돌아보시며 반드시 일제를 쳐부시고 조선을 해방하고야 말리라는 혁명의 큰 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시였다.

원수님께서는 그때를 회상하시여 해방후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열네살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나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이렇게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도 슬픔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원수님이 압록강을 건너가신 이듬해 1925년 6월 5일, 그처럼 열렬히 그리며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오신 조국해방의 그날을 보시지 못하신채 아버님께서 32세를 일기로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나셨다.

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이 다 하시지 못하고 가신 조국광복의 큰뜻을 빛나게 이어 일제를 쳐부시고 기어이 조선을 해방하고야 말리라는 불같은 념원과 투지를 한몸에 지니시고 벌써 열다섯살나이에 나라를 위해 한몸을 바쳐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

단 어

대대로
내려오다
싹트다
무지개
아름드리
들메나무
썰매
바위
군함
씨름터
샘물터
낚시터
학습터
포부
감회깊다
나란히
잔디밭
우뚝
두둥실
떠가다
군사놀이
즐겨하다
확대
발전
군경
경찰
들추다
항거하다
굳세게
강의하다
모습

타번지다
고향집
뵈옵다
감옥
혹독하다
고문
형세
분간하다
증오심
사무치다
　뼈에～
뛰우다
칠창
북받치다
기어코
갚다
벌리다
성차다
정말
행패질
치밀어오르다
분
고무총
들이쏘다
인민봉기
시위
대렬
끼우다
계획
추세우다
거치다

손잡다
련락
수행하다
만족해하다—만족하다
수첩
적다—쓰다
괴롭다
애처롭다
결단성
등불
남포
알려지다—알다
독서(—하다)
저물다
배합하다
실천

과정
회상
단순히
뜻하다
전해오다—(전하다＋오다)
체포되다
다다르다
젖다
선조
무덤
슬픔
그리다
일기
해석하다
조국광복
투지

표 현

—마음이 싹트다
—남다른 포부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다
—그네를 뛰다
—학교를 마치다
—큰 뜻을 품다

문 법

1) —리라(으리라)

동사 ⎫
형용사 ⎭ ＋리라

—원수님께서는 반드시 일제를 치부시고 조선을 해방하고야 말리라는 혁명의 큰 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시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열네살 되실 때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시고 압록강을 건느셨다.

2) —ㄴ(은)채

동사 }
형용사 } +ㄴ(은)채

—아버님께서는 그처럼 열렬히 그리며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오신 조국해방의 그날을 보시지 못하신채 32세를 일기로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나셨다.

—그는 추운날 모자도 쓰지 않은채 밖으로 나갔다.

3) 완전하지 않은 문장

① 명명문

—유서깊은 만경대는 참으로 아름답다. 푸르른 소나무숲, 만경봉기슭을 적시며 흘러흐르는 대동강.

—아버님께서 원수님을 데리시고 삼촌들과 함께 심으신 집옆의 백양나무.

—원수님께서 무지개를 잡으시려고 한달음에 달려와 오르셨다는 소나무.

② 단어문장

○—학교에 갑니까?

—예

○—오늘이 월요일입니까?

—아닙니다. 화요일입니다.

③ 주어 없는 문장

—음력 정월 그믐날이였다.

—행군도중의 어느날이였다.

—어두워졌다. 유격대원들은 전투준비를 갖추고 명령을 기다리고있었다.

④ 불완전문

《동무, 만경대에 가보았습니까?》

《가보았습니다.》

《언제?》

《지난 봄에》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1)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 탄생하시였습니까?

2) 김일성원수님께서 남다른 포부와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사적지들을 말해보시오.

3) 《군함바위》에 깃든 사연을 말해보시오.

4)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몇살 되실 때 강동군 봉화리에 가셨습니까?

5)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몇살 되실 때 감옥에 갇힌 아버님을 만나뵈였습니까?

6)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그네터》에서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맹세를 다지셨습니까?

7)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일제놈들이 만경대 고향집에 달려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8) 김일성원수님께서는 3.1인민봉기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9)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팔도구 소학교를 마치시고 아버님의 물으심에 어떻게 대답하시였습니까?

10) 김일성원수님께서 만경대로 오신 천리길은 어떤 길이였습니까?

11)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칠골 창덕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12) 《결의터》에 깃든 사연을 말해보시오.

13) 김일성원수님께서 두번째로 압록강을 건느실 때 어떤 결심을 굳게 다지시였습니까?

14)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몇살 되실 때 나라를 위해 한몸을 바쳐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습니까?

2. 다음의 단어, 표현, 토들로 문장을 지으시오.

① 스며있다 / 뵙다
포부 / 사무치다
싹트다 / 갚다
성차지 않다 / 북받치다
타번지다 / 치밀어오르다

차비
불같다
투지
해석하다
잇다
② 대대로 내려오다
증오심이 타번지다
—살 잡히다
몸을 추세우다

널리 알려지다
한품에 지니다
세상을 떠나다
뜻을 잇다
③ —과(와)도
—를(을) 따라
—것만으로는
—리다
—ㄴ채

포평나루터

1. 노을 비낀 압록강 포평나루터
   출렁이는 물결도 노래하는가
   어린시절 수령께서 건너가시며
   강기슭에 남긴맹세 가슴 울리네
   아 그날의 그 맹세
   사회주의 이 강산에 빛을 뿌리네

2. 동포들의 억울한 눈물에 젖은
   조국의 산과 들을 돌아보시며
   이 땅을 찾기전엔 돌아오지 않으리
   굳은 맹세 다지시며 건너가셨네
   아 그날의 그 맹세
   사회주의 이 강산에 빛을 뿌리네

3. 포평나루 건느신 수령님께서
   눈보라 헤치신 길 몇만리던가
   섬오성상 항일의 기치 높이 드시여
   조국광복 크고큰 뜻 이룩하셨네
   아 그날의 그 맹세
   사회주의 이 강산에 빛을 뿌리네

제 19 과

만 경 대

만경대! 한번 불러만보아도 가슴 뜨거워지는 이름.

만경대! 온인민의 마음이 달려오는 땅.

여기 아름다운 만경봉기슭에 자그마한 초가집 한채가 있습니다.

이 집에서 1912년 4월 15일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시였습니다.

이 집은 나서 자란 고향집같이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는 력사의 집이며 참된 조선의 력사가 시작되였고 오늘의 조선이 태여난 집입니다.

처마밑에 들어서면 이마가 닿는 이 집은 해방전 조선농촌의 어데서나 볼수 있었던 초가집입니다. 이 집은 원낙 평양성안에 살고있던 지주놈의 산당집이였습니다. 100여년전에 원수님의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살림이 너무나 구차하여 평양중성리에서 사시다가 만경대로 이사하시였습니다. 이때 지주놈의 묘를 봐주기로 하고 이 집을 겨우 얻어 소작살이를 하시였습니다.

내땅, 내집이 없었던 원수님의 가정은 참으로 구차하였습니다. 그때는 어두운 세상이라 밤낮없이 흘러가는 대동강물을 발아래에 두고서도 땅이 메말라서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지주놈

들이 사정없이 뜯어가고 일제놈들이 달려들어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렇게되여 반년먹을 죽거리도 남지못하여 타개죽으로도 제대로 끼니를 이을수 없었습니다.

원수님의 삼촌 김형록선생은 그때의 생활형편을 회상하시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생활이란 농사를 하면서 늘 죽으로 끼니를 이었다. 나는 지금도 철모르던 때의 일이지만 손님이 올 때면 축걱정을 하시던 일이 생각된다. 어느날 손님이 왔을 때 나는 부엌에서 일하시는 할머니에게 <오늘 또 나그네가 왔나요? 죽이 적지 않겠나요?>라고 물었다. 이때 할머니께서는 <그래 손님이 왔다. 나그네가 왔으면 어떻게 하겠니, 죽솥에 물 한사발 더 두어서 풀수 밖에 없지>라고 하시던 일이 어제일 같다.…》

원수님의 할아버지께서는 새별도 사라지기전에 들에 나가시여 저녁 어두울 때까지 하루종일 농사일을 하시고 밤에도 집안식구들의 신을 삼으셨습니다.

끝없는 가난은 밤낮으로 밀려들어 아무리 쉬지않고 일을 해도 그 가난에서 벗어날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화로와 부시돌, 허칭간의 모지라진 호미자루를 비롯한 농장기들과 쪼그라진 독등 모든것이 가난에 조들렸던 생활을 지금도 그대로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억눌려있지만 않았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는 대동강에 기여들었던 무장한 미제 승냥이들의 해적선 《샤만호》를 불사른 용감한

인민들의 투쟁의 앞장에서 싸우신 애국자이시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나라 빼앗긴 백성에게는 향거의 길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일제와 지주놈들을 미워하시였을뿐만아니라 늘 자제분들을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셨고 그들의 혁명활동을 적극 도와주셨습니다.

원수님의 아버지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대를 이어 가난했던 이 집에서 1894년 7월 10일에 탄생하시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몹시 총명하셨습니다. 가정생활이 매우 어려웠지만 오직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불타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만경대에서 순화학교를 마치신 후 평양숭실중학교에 입학하여 고학을 하시였습니다.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열렬한 애국심을 키워오신 선생님은 숭실중학교를 다니실 때부터 독립운동에 나서시였으며 뜻을 같이하는 여러 동지들을 조직에 묶기 시작하시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중학교를 학비난으로 부득이 중퇴하시고 순화학교에서 돈 없고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조선글과 조선력사를 가르치시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일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키워주시는 한편 독립운동을 계속하시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16년 초봄에 혁명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평안남도 강동군 봉화리에 자리를 옮기시였습니다. 선생님은 그곳 명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한편 농촌청장년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사상으로 교양하시였습니다.

마침내 선생님께서는 1917년 3월 23일에 국내외에 있는 독립운동지사들을 중심으로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무으시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활동과 군사적활동을 결합하여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조선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시였습니다.

이 조직은 3.1운동이전의 가장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이였으며 반제적이며 민족적인 투쟁과업을 정확히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1917년 가을에 일제 앞잡이놈의 밀고로 《조선국민회》조직이 드러나 김형직선생님을 비롯한 백여명의 성원들이 전국적범위에서 검거되였습니다.

선생님은 1918년 가을까지 평양감옥에서 일제의 야수적인 악형과 갖은 기만술책에도 굴하지 않고 원쑤들을 항거하여 용감히 싸우시였습니다.

1918년 가을에 감옥에서 나오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몸을 추세울 사이도 없이 일제를 반대하는 보다 큰 뜻을 품으시고 고향 만경대를 떠나 압록강연안 국경지대에로 옮기시였습니다. 이때 시 한구절을 남기시였습니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롬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이 노래는 사나운 눈보라속에서도 푸르른 소나무처럼 굽힐줄 모르는 선생님의 굳센 뜻을 읊으신것입니다. 비록 우리 조국이 침략자의 피묻은 발굽아래에서 신음하지만 머지않아 해방의 새 봄을 맞고야 말것이니 온갖 난관을 박차고 끝까지 싸워나가자는 굳은 절개를 노래한것입니다.

허약한 몸을 념려하여 부모님들은 병이 좀 나은 후에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내 몸이 찢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본놈들과 싸워이겨야 하겠다. 내가 싸우다가 실패하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가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독립시켜야 한다.》

비록 혁명활동의 무대를 옮기시였으나 선생님이 뿌리신 혁명의 씨앗은 만경대와 강동, 평양일대에서 싹트고 꽃을 피웠습니다.

3.1인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강동에서는 천여명의 군중이 《조선독립만세!》, 《일본놈들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고 만경대에서는 만경봉에 올라 련사흘동안이나 홰불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실로 선생님께서는 서거하실 때까지 국내와 림강, 팔도구, 무송 등 동북지방의 넓은 지역에서 후대교육을 위해 전력을 다 바쳐 싸운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열렬한 교육가이시였을뿐아니라 일편단심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였습니다.

원수님의 어머니 강반석녀사께서는 1892년 4월 20일 만경대에서 얼마 멀지않는 칠골에서 탄생하시였습니다.

강반석녀사의 아버님 강돈욱선생님은 열렬한 애국자이시였으며 30여년을 후대교육에 바친 참된 교육자이시였습니다.

강반석녀사의 맏오빠인 강진석선생님 역시 일찌기 국내외의 독립운동자들과 함께 손에 무기를 잡고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싸우신 열렬한 반일투사이시였습니다.

이런 혁명가정에서 태여나시고 자라신 녀사께서는 어려서부터 일제에 대한 증오심이 강하시였습니다.

녀사께서는 식구가 많은 큰 가정의 장손며느리로서 알뜰하고 부지런하시였으며 그 성품과 자질이 또한 훌륭하시였습니다. 녀사의 손길이 아침 저녁으로 닿아있던 윤기도는 가마며 다듬이돌, 베틀이며 물레 등 생활도구들은 지금도 근면하고 고결한 녀사의 품성과 알뜰한 일솜씨를 그대로 전해주고있습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혁명가의 안해로서 혁명활동에 모든것을 기울이시는 김형직선생님을 힘껏 도우셨습니다. 선생님의 동지들이 찾아오면 재밤중이든 식량이 떨어졌을 때이든 몇번이고 밥을 지으셨고 그분들의 빨래를 하시였습니다. 자신은 자주 끼니를 건느시며 밤새워 일을 하시면서도 얼굴에 그늘 지으신적이 없으시였습니다.

비단결같이 곱고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지신 녀사이

시였지만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는 견결하고 강의하시였습니다. 원쑤들의 박해와 위협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간고한 처지에서도 조국은 반드시 독립된다는 신념으로 살으셨습니다.

녀사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도 이 신념을 굽히지 않으시였고 남편이 남긴 뜻을 직접 말아나서시였습니다.

녀사께서는 부녀회조직에서 사업하시면서 1928년부터는 백산지구 부녀회회장으로 무송을 중심으로 광범한 지역에서 활동하시였습니다. 녀사께서는 조선녀성들에게 조국광복과 녀성해방을 위한 투쟁정신을 키워 그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시였습니다. 원수님께서 지도하시던 《소년동맹》, 《반제청년동맹》 사업을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시였습니다.

이와 같이 강반석녀사께서는 혁명가의 안해로서 혁명가의 어머니로서, 또한 열렬한 녀성혁명투사로서 빛나는 생애를 남기시였습니다.

원수님의 동생이신 김철주동지도 김일성원수님과 아버님, 어머님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영향밑에서 동생 김영주동지와 더불어 어린 시절부터 반일회와 아동단사업에 참가하시여 적극적인 혁명활동을 하시였습니다.

원수님께서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신 뒤에는 동생과 함께 산으로 오르내리시면서 그이를 만나 임무를 받고 활동하시였습니다. 김철주동지는 그후 김일성원수님을 따라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용감하게 싸우시다가 원쑤놈들에게 희생되였습니다.

원수님의 삼촌 김형권동지와 사촌동생 김원주동지도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녀사의 혁명적영향을 받아 일찌기 열렬한 혁명투사로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고귀한 생애를 바치시였습니다. 특히 김형권동지는 혁명동지들과 함께 국내에 들어와 손에 무장을 잡고 싸우시다가 놈들에게 잡혀 옥사하신 열렬한 혁명투사이시였습니다.

유서깊은 혁명의 땅 만경대에 뿌리를 내린 김일성원수님의 일가는 이처럼 열렬한 애국투사의 가정이였고 대를 이어 모두가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몸을 바친 그야말로 세계에 류례없는 혁명가의 가정이였습니다.

이렇듯 빛나는 혁명적가계에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탄생하셨고 부모님들의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면서 혁명의 넋을 키우시며 어린시절을 보내신 유서깊은 만경대!

불러볼수록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온인민은 가장 친근하고 자랑스럽게 4천만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라 높이 부르고있습니다.

단 어

초가집
~채
참되다
처마
이마
닿다
워낙
성
평양성
산당집
살림
구차하다
묘
소작살이

밤낮없이
사정없이
들어가다
죽
　죽거리
　타개죽
끼니
삼촌
손님
나그네
솥
사발
새별
하루종일
식구
밀려들다
벗어나다-벗다
화로
부시돌
허청간
모지라지다
호미
자루
농쟁기
쪼그라지다
독
쪼들리다
　가난에~
자제분
총명하다
고학
학비난
청장년
지사
독립운동지사
조선국민회
뭇다
결합하다
피어리다
전개하다
지하
　지하혁명조직
내세우다
밀고
성원
범위
악형
기만
술책
굴하다
지대
구절
눈서리
파묻히다-파묻다
천신만고
괴롭받다
양춘
소생하다
사납다
파묻다
난관
박차다
절개
허약하다
념려하다

찢기다
가루
실패하다
손자
무대
씨앗
물러가다
력사들
교육가
불요불굴
알뜰하다
성품
자질
닿다
윤기돌다
다듬다
다듬이돌
베틀
물레
생활도구
근면하다
고결하다
품성
일솜씨
기울이다
밤중
식량

그늘
부드럽다
마음씨
견결하다
박해
위협
그림자
처지
말다
부녀회
회장
품다
품어세우다
조직에~
동맹
반제
생애
영향
더불어
반일회
고귀하다
국내
일가
—야말로
넋
요람
친근하다

표 현

마음이 달려오다
발아래에 두다
…는 길밖에 없다

어제일 같다
가난에 쪼들리다
신념에 불타다

몸을 추세우다
뜻을 품다
무대를 옮기다
혁명의 씨앗
세상을 떠나다

생애를 바치다
뿌리를 내리다
넋을 키우다
희망을 안겨주다
혁명의 요람

문 법

1) —ㄹ(을)지언정

동사, 형용사 } + ㄹ(을)지언정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몸이 찢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제놈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불타는 신념으로 싸우셨다.

—혁명가는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는다.

2) 는 한편 동사+는 한편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청소년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일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키워주시는 한편 독립운동을 계속하시였다.

—우리는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는 한편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3) …밖에 없다

명사, 수사, 대명사 } + 밖에 없다

—나라 빼앗긴 인민들에게는 싸우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

—리수복영웅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을 바쳤다.

—교실에는 지금 우리밖에 없다.

4) —ㄴ(은)적이(있다)없다

동사, 형용사 } + ㄴ(은)적이 (있다) 없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어려운 투쟁속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은적이 없었다.

련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만경대는 어떤 곳입니까?
   2) 과거 원수님의 가정형편은 어떠하였습니까?
   3) 원수님의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였습니까?
   4) 김형직선생님은 어떤 분이시였습니까?
   5) 김형직선생님께서 강동에 자리를 옮기시여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혁명활동을 전개하시였습니까?
   6) 김형직선생님께서 뿌리신 혁명의 씨앗은 어떻게 꽃을 피웠습니까?
   7) 김형직선생님의 굳센 혁명적의지를 어데서 찾아볼수 있습니까?
   8) 강반석녀사께서는 어떤 가정에서 탄생하시였습니까?
   9) 강반석녀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10) 강반석녀사는 김형직선생님께서 다하시지 못한 혁명의 뜻을 이어 어떻게 투쟁하시였습니까?
   11) 김형권동지와 김철주동지는 어떻게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셨습니까?
   12)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적가계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2. 다음 문장의 빈자리에 알맞는 단어를 써넣으시오.
   1) 만경대는 … 조선혁명의 … 요람지이다.
   2) 만경대는 누구나 한번 보고나면 … 나서 자란 … 또다시 오고싶은 우리 인민의 … 고향이다.
   3) 만경대는 우리 인민의 마음의 … 우리 혁명의 …
   4) 그는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고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생명도 … 바치여 용감히 싸우는것이 … 기풍이라고 생각하였다.
   5) 아무리 복잡한 환경이나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은 … 지켜야 할 … 립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3. 다음의 단어와 뜻이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시오.

1) 닿다	4) 사정없이
2) 워낙	5) 사라지다
3) 밤낮없이	6) 뭇다

7) 굴하다	9) 증오심
8) 태여나다	10) 기울이다

4. 다음의 문장에서 괄호안에 있는 단어들의 형태를 바꾸어 문장을 만드시오.
   1) 혁명가들은 몸이 찢기여 (가루가 되다) 곤난앞에서 (주저하다) 물러서서는 안된다.
   2) 만경대에서 (시작되다) 조선혁명의 뿌리가 (자라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영광스럽다) 혁명전통이 이루어졌다.
   3) 만경대에 (오르다+서다) 사방을 (바라보다) 눈앞에는 (아름답다) 경치가 펼쳐진다.
   4) 봉화리는 만고에 길이 (빛나다) 혁명력사가 (깃들다) 영광의 땅이다.
   5) 조선인민은 반드시 자기 손으로 조국을 (통일하다) 말것이다.
5. 다음의 토를 가지고 문장을 지으시오.
   1) 았던(었던, 였던)

2)—(이) 란	5)—(이)든
3)—ㄹ지언정	6)—는 한편
4)—라도	7)—를(을)중심으로

남산의 푸른 소나무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롭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되여도 광복의 한길에서
굴함없을줄 동포야 믿어다오.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양춘을 찾아올제
독립만세를 조선아 불러다오.

만경대의 노래

1. 대동강 푸른 물도 산기여들고
   날아가던 새들도 노래 드리는
   만경대 아름다운 산기슭에는
   혁명의 유서깊은 집이 있다네
   만경대 아름다운 산기슭에는
   혁명의 유서깊은 집이 있다네.

2. 대대로 물려받은 애국의 뜻을
   혁명의 붉은 피로 이어싸우신
   김일성원수님의 요람의 고향
   그이의 사랑속에 새봄이 왔네
   김일성원수님의 요람의 고향
   그이의 사랑속에 새봄이 왔네.

3. 항일의 15성상 눈보라속에
   어느 한때 이 고장을 잊으셨으랴!
   나라의 새봄 찾아 싸우신 보람
   오늘은 이 땅우에 꽃이 피였네
   나라의 새봄 찾아 싸우신 보람
   오늘은 이 땅우에 꽃이 피였네.

제 20 과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기관리론잡지 《뜨리꼰띠넨딸》 창간호에 발표하신 론설, 1967년 8월 12일)

지금으로부터 2년전에 3대륙인민단결기구가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탄생하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이 기구가 추구하는 목적과 리념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사람들의 공명을 불러일으켰으며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있는 위대한 변혁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수세기동안 서방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략탈당하여온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이 용감히 일떠서 력사의 무대에 등장하였다. 민족해방의 세찬 조류가 막을수 없는 힘으로 밀려오고있다. 3대륙의 수억만사람들이 자기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고있으며 이미 쟁취한 혁명의 성과를 고수하기 위하여 싸우고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체계는 급격히 무너져가고있다.

제국주의는 자기의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며 이미 잃어버린 진지를 도로 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제국주의가 죽음에 가까와감에 따라 투쟁은 더욱 치렬하여지고있다. 그러므로 인민들은 반제국주의의 기발을 높이 들고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한 나라들앞에는 민족적독립을 수호하고 혁명을 전진시키며 아직도 제국주의의 예속하에 있는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원할 매우 어렵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의 파괴활동을 분쇄하고 그의 경제적지반을 소탕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수립하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

하여야 할것이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을것이며 제국주의를 매장하기 위한 전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에 이바지할수 있을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지구륙지면적의 71%를 차지하고있다. 거기에는 세계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살고있으며 무진장한 부원이 있다. 제국주의는 이 인민들의 고혈을 빨아내고 그 부원을 긁어내면서 성장해왔으며 살쪄왔다. 오늘도 제국주의는 이 지역에서 해마다 수백억딸라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신구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된다면 제국주의적서구라파도, 제국주의적북미주도 존재할수 없을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인민들의 성스러운 해방투쟁인 동시에 세계제국주의의 이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2대 혁명력량을 이루고있으며 그것들은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하나의 흐름에 결합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인민들에게 독립을 선사할수 없다. 서방세계가 3대륙인민들의 독립과 진보를 도와줄수 있으며 자유롭고 독립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공존할수 있다고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선언이 거짓말이라는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국주의의 본성은 변할수 없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이다. 제국주의는 죽을 때까지 인민들을 착취하고 압박하고 략탈할것이다.

피압박인민들은 오직 투쟁에 의해서만 자기자신을 해방할수 있다. 이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기만선전을 폭로하며 그들이 식민지와 예속국들에서 자기의 지위를 스스로 내주리라는 환상을 철저히 깨뜨려버리는것이 필요하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 피압박인민들이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하다. 제국주의가 폭력으로써 약소민족들을 략탈하고 압박하는 이상 피압박민족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침략자들에 항거하여 투쟁하는것은 빼앗을수 없는 그들의 권리이다.

독립도 좋고 혁명도 좋지만 평화가 더 귀중하다고 하면서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회피하려는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제국주의와의 무원칙한 타협을 추구하는 로선이 그의 침략책동을 조장하며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킬뿐이라는것은 과연 사실이 아닌가? 노예적굴종이 가져다주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평화의 파괴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노예의 평화를 반대하여 억압자들의 통치를 뒤집어엎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수 없다. 우리는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로선을 반대하는 동시에 제국주의를 반대한다고 큰 소리만 치면서 실지행동에서는 제국주의와 싸우기를 두려워하는것을 또한 용납할수 없다. 이것은 뒤집어놓은 타협로선이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진정한 반제투쟁과는 인연이 없으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도움을 줄뿐이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국주의에 공격을 집중하는것이 중요하다. 미제국주의는 전 세계에 침략의 마수를 뻗침으로써 세계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원쑤로 되였다. 지구상에는 미제국주의에 의하여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않고있거나 미제국주의의 침략위협을 받지 않고있는 나라가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으며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다시금 예속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침략행위와 파괴활동을 감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강도적본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사회주의나라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벌려놓고있으며 무력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후 이 20여년동안 미제가 일으킨 침략과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은 날이란 하루도 없다. 미제국주의야말로 력사상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략탈자이다.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자신이 평화와 독립과 진보를 요구하는 지구상의 모든 인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결합시키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공통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며 그들의 반제반미투쟁은 서로 지지하는 관계에 있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가 자유롭지 못하면 아세아가 자유로울수 없으며 아세아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유리하다. 미제를 반대하는 한 전선에서의 승리는 미제국주의의 힘을 그

만큼 약화시키게 되여 다른 전선에서의 승리를 촉진할것이다. 세계 어느곳에서 미제침략세력을 소멸하든지간에 그것은 세계의 모든 인민들에게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가장 광범한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미제를 철저히 고립시키며 그가 침략의 손길을 뻗치고있는 모든 곳에서 련합하여 미제국주의에 타격을 가하는것이 필요하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미제의 힘을 최대한으로 분산약화시킬수 있으며 매 전선에서 인민들은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미제국주의를 때려눕힐수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20년이상 우리 나라 남반부를 강점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으며 남조선을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만들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였음에도불구하고 전조선을 정복하려는 침략기도를 의연히 버리지 않고있으며 조선에서 재전쟁을 도발하려고 끊임없이 책동하고있다. 조선인민의 당면한 최대의 과업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식민지제도를 청산하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 조선인민이 민족해방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세개방면에서 력량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북조선에서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고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장성시키고 축적하여야하며 국제혁명운동을 발전시키고 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조선은 조선혁명의 기지이다. 북조선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고무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준비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우리는 남북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발전시키는 동시에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있으며 그것을 자신의 해방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인정하고있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이 단결하여 공동으로 미제를 반대하여 싸울것을 주장하며 그것을 위하여 시종일관 노력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련합된 힘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한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온갖 술책을 다하여 반미통일전선의 형성을 방해하며 약하고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전략으로 나오고있다. 미제국주의의 이 전략을 철저히 파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은 사회제도를 달리하며 또한 이 나라들에는 정치적견해를 달리하는 많은 당파들이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나라들과 당파들이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데서 일치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사회제도의 차이와 정치적리념의 차이는 힘을 합쳐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며 공동보조를 취하는데 결코 장애로 될수 없다. 자기의 특수한 국가적리익과 당파적리익을 앞에 내세우면서 반미통일전선을 분렬시키거나 공동행동을 거부하는 일이 허용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행동은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에만 리롭고 혁명적인민들에게는 해로울뿐이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이미 승리한 혁명을 보위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꾸바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국제주의적의무이다. 혁명적꾸바는 라틴아메리카의 미래를 대표하고있으며 그 존재자체로써 이 대륙인민들의 해방운동을 고무하고있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우리 시대에 제국주의가 반드시 패망하고 민족해방혁명과 인민혁명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뚜렷한 증거이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미제국주의자들이 이 작은 섬나라를 그처럼 미워하고 무서워하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꾸바공화국을 질식시키려 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은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봉쇄정책을 파탄시키며 꾸바에 대한 그들의 군사적침공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야 한다.

오늘 미국원정군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구국항전은 반제투쟁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세계반제평화애호력량이 웰남에서 대결하고있다. 웰남인민의 영웅적항쟁에 의하여 미국군대는 패배를 거듭하고있으며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타산과는 반대로 웰남전쟁은 침략자들의 무덤으로 되고있다. 웰남인민의 구국항전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독립과 자유를 지킬 결의를 가지고있으며 전세계인민들의 지지를 받고있는 인민은 타승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웰남에서 자기의 군사력을 끊임없이 증강하며 추종국가군대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며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하여 대대적인 폭격과 포격을 감행하면서 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다.

웰남인민은 자기의 영웅적투쟁으로써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흉악한 제국주의의 침략에 항거하여 싸우는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고있다. 웰남인민은 자기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할뿐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여 투쟁하고있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저지시키고 파탄시키게 될때 미제국주의는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게 될것이며 평화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는 더욱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것이다.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웰남인민에게 온갖 형태의 원조를 줄 의무가 있으며 웰남인민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주의국가들과 신생독립국가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은 반미통일전선을 확대하고 웰남인민의 구국항전을 지원하며 일치한 보조로 미제의 침략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그 누구도 웰남인민에게 그들의 내부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미국침략군대는 웰남에서 물러가야 하며 웰남문제는 웰남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의 힘을 과소평가하여도 안되지만 과대평가하지도 말아야 한다. 미제국주의는 아직도 많은 죄행을 저지를수 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는 내리막길을 걷고있다. 미제국주의가 가장 횡포하게 행동하는 오늘 그의 취약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가 어떤것인가를 알고있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싸워보았으며 그의 침략으로부터 자기의 조국을 수호하였다. 조선전쟁은 미제가 결코 무적이 아니며 그와 능히 싸워이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우리와는 다른 조건에서 이 진리를 다시금 증명하였다. 웰남인민의 구국항전도 역시 이 진리를 명백히 증명하고있다.

미제국주의의 완전한 패망은 불가피하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단결하여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건설할것이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해방에 위대한 기여를 할것이다.

단 어

라틴아메리카	추구하다
단결기구	리념
기관	공명
～지	변혁
창간호	심각하다
발표	세기
론문	무대
의의	등장하다
대륙	조류
사변	쟁취하다

고수하다
식민지체계
급격하다
무너지다
종전
지위
유지하다
잃어버리다
진지
도로
필사적으로
발악하다
치렬하다
지구
소멸하다
기반
수호하다
전진하다
예속하다
지원하다
증대하다
외래—
파괴
반동세력
분쇄하다
지반
소탕하다
력량
진보적
수립하다
자립적민족경제
매장하다
공동투쟁

이바지하다
룩지
면적
인구
무진장하다
부원
고혈
빨아내다
성장하다
살찌다
지역
딸라
리윤
짜내다
신구식민주의
청산되다
존재하다
성스럽다
생명선
선사하다
공존하다
선언
거짓말
증명하다
확증하다
단순하다
명백하다
폭로하다
스스로
환상
철저히
반항
불가피하다

폭력(폭동)
약소민족
회피하다
무원칙하다
타협
조장하다
증대시키다
과연
노예적굴종
뒤집어엎다
용납하다
인연
두목
마수
뻗치다
가혹하다
로골적으로
드러내놓다
벌려놓다
내정
간섭하다
파렴치하다
공동전선
리해관계
유리하다
약화시키다
촉진하다
소멸하다
고립시키다
형성하다
련합하다
분산시키다
최대한으로

결정적으로
우세하다
실시하다
수치스럽다
침략기도
의연히
축적하다
련대성
반미구국투쟁
청산하다
이바지하다
인정하다
주장하다
시종일관
술책
정복하다
담리하다
견해
두목
일치하다
리념
보조
취하다
당파
앞잡이
특수하다
분렬시키다
거부하다
리롭다
해롭다
국제주의적의무
뚜렷하다
증거

까닭	저지르다
질식시키다	내리막길
봉쇄정책	취약성
좌절시키다	무적
미국원정군	신생독립국가
구국항전	형태
초점	원조
대결하다	반미통일전선
구렁텅이	일치하다
타산	저지시키다
타승하다	최대한
추종국가	해결책
증강하다	강요하다
계단식	해결되다
부담	죄행
걸머지다	횡포하다
저지시키다	수호하다
서산락일	능히
파탄시키다	능하다
과소평가	인류
과대평가	기여(~하다)

단어만들기

△ 나서다, 나가다, 나다니다, 나오다.
△ 뒤집어엎다, 뒤집어놓다, 뒤집어입다, 뒤집어쓰다.

표 현

△ …에 영향을 미치다.
△ 력사무대에 등장하다.
△ 세찬 조류가 밀려오다.
△ 파업이 나서다.

△ …에 이바지하다.
△ 독립을 선사할수 없다.
△ 빼앗을수 없는 진리.
△ 침략의 손길을 뻗치다.
△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다.
△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다.
△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다.
△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다.
△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다.
△ 내리막길을 걷다.

문 법

1) —는 동시에, —인동시에
동사+는 동시에
명사+인 동시에
—우리는 경제건설을 잘하는 동시에 국방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그는 최우등생인 동시에 축구선수이다.

2) —ㅁ(음)에도 불구하고, 동사+ㅁ(음)에도 불구하고
—(임)에도 불구하고,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새전쟁을 도발하려고 끊임없이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가장 야수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우고있다.

3) —는 이상. 동사+는 이상(—는 한)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이상 인민들은 자유로울수 없다.
—나의 심장이 뛰는 이상 이 고지에서 물러설수 없다.

4) —ㅁ(음)으로써 동사+ㅁ(음)으로써
—미제국주의는 전세계에 침략의 마수를 뻗침으로써 세계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원쑤로 되였다.
—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당의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이 공고

히 되고 나라의 경제적자립성과 군사적위력이 더욱 강화되였다.

5) 전개된 문장성분

—제국주의는 죽을때까지 인민들을 <u>착취하고</u> <u>압박하고</u> <u>략탈할</u> 것이다.

—조선인민의 당면한 최대의 과업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식민지제도를 청산하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

—항일빨찌산들은 <u>조국과</u> <u>인민을</u> 위하여 <u>간고하고도</u> <u>영웅적인</u> 투쟁을 전개하였다.

6) 복합문

① 병렬복합문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이 세차게 일어나고있으며 제국주의의 식민지체계는 급격히 무너져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 농민이 나라의 주인이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몇몇 부르죠아놈들이 <주인>행세를 하고있다.

② 종속복합문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

—제국주의가 죽음에 가까와감에 따라 투쟁은 더욱 치렬하여지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죽는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신념을 버려서는 안된다.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과거 처지와 현재 처지는 어떻습니까?
   2) 새로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앞에 나서는 과업은 무엇입니까?
   3) 피압박인민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4)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에 대하여 어떤 립장을 가져야 합니까?

   5) 미제국주의는 왜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입니까?
   6) 조선인민이 민족해방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7)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8) 꾸바혁명의 승리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있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있습니까?
   9) 웰남전쟁에서 미제는 어떤 처지에 빠지고있습니까?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웰남전쟁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10)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립장과 그 정당성은 무엇입니까?
2. 본문을 읽으면서 《—내다》, 《—놓다》와 결합되여 이루어진 동사를 찾고 그 뜻을 정확히 설명하시오.
3. 본문에서 토 《—에》, 《—로(으로)》를 찾고 이 토가 어떤 단어와 결합되였으며 뜻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보시오.
4. 《받다》, 《당하다》와 합할수 있는 동사들을 아는대로 쓰시오.

결사전가

1. 착취당코 압박받는 무산대중아
   혁명의 결전에 달려나오라.
   다닫았네 다닫았네 온 천지에
   무산혁명시기가 다닫았네.
      여지없이 부셔내자, 부르죠아사회를
      날날이 박멸하자, 제국주의아성을

2. 로동자는 망치를 둘러메고
   농민은 괭이와 호미를 메고
   부르죠아 박멸하는 최후결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나오라.
      여지없이 부셔내자, 부르죠아사회를
      날날이 박멸하자, 제국주의아성을

3. 장쾌하다, 시가전은 곳곳에 일고,
   류산탄은 적진우에 파렬되누나

부르죠아 더런피는 땅을 적시고,
무산혁명시기에 다달았네
　　붉은기는 중천에서 펄펄 날리고
　　부르죠아 낡은 기는 빛을 잃고 찢겼네.

4. 우리 땀과 우리 피로 배를 채우고
탐욕과 향락으로 진탕거리던
부르죠아소굴인 궁전우에는
무산혁명 정부기가 나붓긴다.
　　붉은기는 중천에서 펄펄 날리고,
　　부르죠아 낡은 기는 빛을 잃고 찢겼네.

5. 전세계 무산자는 서로 도웁고
모두 다 단결하여 싸워나가자.
고초도 죽음도 두려움없이
광명에 싸여서 힘을 다넌다.
　　최후의 결승전에 승리할 때에
　　새사회의 주인공은 우리 모두다.

6. 서로 뜯는 부르죠아와 군벌들은
단두대에 목을 잘라 복수하고
평화와 자유의 기발아래서
승전고를 울리는 우리의 세상
　　최후의 결승전에 승리할 때에
　　새사회의 주인공은 우리 모두다.

부　록

1. 조선어의 품사

조선어의 단어들은 다음과 같은 아홉개의 품사로 나누인다.

1) 명사—어떠한 사람, 물건,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들.

례; 로동당, 농민, 학생, 학교, 비행기, 땅, 물, 과학, 기술…

2) 수사—어떠한 사람, 물건, 현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들.

례; 하나, 둘, 셋, 넷, 백, 천, 만, 첫째, 둘째, 셋째…

3) 대명사—이야기나 글가운데서 사람, 물건, 현상 등을 가리켜 말할 때 쓰이는 단어들.

례; 나, 너, 우리, 너희, 이, 그, 저, 누구, 무엇…

4) 동사—어떠한 사람, 물건, 현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들.

례; 가다, 오다, 만들다, 읽다, 쓰다, 움직이다, 생산하다, 학습하다, 수행하다, 건설하다.

5) 형용사—어떠한 사람, 현상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

례; 붉다, 희다, 바르다, 높다, 깊다, 가깝다, 멀다, 훌륭하다, 용감하다.

6) 관형사—항상 어떠한 명사앞에서만 쓰이면서 그 명사가 가리키는 사람, 물건, 현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들.

례; 여러, 모든, 새, 온갖.

7) 부사—어떠한 사람, 물건, 현상의 움직임, 성질, 상태를 특징지어 나타내는 단어들.

례; 모두, 반가이, 빨리, 매우, 용감히, 천천히.

8) 상징사—어떠한 사람, 물건, 현상의 소리, 움직임, 성질, 상태를 특별한 말소리의 결합으로써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들.

례; 반짝반짝, 펄펄펄펄, 무럭무럭, 졸졸, 출렁출렁.

9) 감동사—이야기하는 사람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태도를 직접 나타내는 단어들.

례; 아!, 오!, 예!, …

2. 불완전명사

조선어의 명사에는 완전명사와 불완전명사가 있다.

완전명사란—그것만으로도 문장안에서 자립적으로 쓰일수 있는

명사다.

례; 조선은 천리마의 나라다.

불완전명사란—그것만으로서는 문장안에서 자립적으로 쓰일수 없는 명사다.

례; 《것》—새것은 승리하고 낡은것은 멸망한다.

《데》—청년건설자들이 일하는데로 갑시다.

동무가 공부하는데는 어딥니까?

《리》—그렇게 노력하면 안될리가 없습니다.

《분》—이분이 저의 선생님입니다.

오늘 회의에 몇분이 오셨습니까?

《수》—그 문제는 저도 알수 있습니다.

《적》—공부할적에는 방안이 조용합니다.

《줄》—조국을 사랑할줄 알고 원쑤를 미워할줄 알아야 한다.

《쪽》—자동차는 길 오른쪽으로 달립니다.

글을 쓸때 불완전명사는 그앞에 오는 단어와 붙여쓴다.

3. 단위명사

불완전명사가운데 단위명사라고 하는 단어의 무류가 있다.

단위명사는 수량의 단위를 나타내면서 항상 수사의 다음에만 쓰인다.

례;《그루》—소나무 한그루가 서있다.

《개》—우리 교실에는 걸상 서른개가 있습니다.

《권》—나의 책장에는 《김일성선집》이 1권부터 6권까지 있다.

《대》—자동차 넉대가 서있다.

《마리》—소 열마리가 풀을 뜯고있다.

《벌》—해마다 봄과 가을이 오면 당과 정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새 교복 한벌씩 줍니다.

《자루》—어머니는 영옥에게 《연필은 몇자루나 있느냐》라고 물으시였습니다.

《장》—종이 여덟장

《척》—배 두척

《채》—집 열채

《컬레》—신 두켤레

《톤》—석탄 두톤

글을 쓸때 단위명사는 그 앞에 오는 수사와 붙여쓴다.

4. 인칭 대명사

인 칭	상대편 / 수	웃사람에게	대등한 사람에게	아래 사람에게
1인칭	단수	저 (제)	나 (내)	나 (내)
	복수	저희 저희들	우리 우리들	우리 우리들
2인칭	단수	※당신	자네 그대	너 (네)
	복수	※당신들	자네들 그대들	너희 너희들
3인칭	단수	그		
	복수	그들		

※ 《저, 나, 너》는 《제, 내, 네》로 쓰일 때가 있다.

례; 저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입니다.
제가 《로동신문》사설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제 교과서입니다.
나는 중학교학생입니다.
내가 신문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 책입니다.
너도 오늘부터 소년단원이 되였다.
네가 《소년신문》을 읽어라.
이것은 네 책이다.

5. 지시대명사

대상 / 거리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이야기듣는 사람에게 가까이	멀 리
일반적	이	그	저
물 건	이것	그것	저것
장 소	여기	거기	저기
방 향	이리	그리	저리

6. 의문대명사

구 분	의문대명사	례
사람	누구(누) 아무	누구입니까?누가 읽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물건	무엇 어느(것) 아무(것) 무슨 웬	무엇입니까? 어느것입니까? 아무것도없습니다 무슨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수량	얼마 몇	얼마입니까? 몇입니까?
장소	어디	어덥니까?
시간	언제	언젭니까?

※ 의문대명사는 불확정한것을 나타낼때도 쓰인다.

례; {저기 누가 옵니까?(의문)
{저기 누가 옵니다. (불확정)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의문)
{여기 무엇이 있습니다. (불확정)

{웬 사람이 옵니까? (의문)
{웬 사람이 옵니다. (불확정)

{얼마 있습니까? (의문)
{얼마 있습니다. (불확정)

{몇사람 있습니까? (의문)
{몇사람 있습니다. (불확정)

{어디 갑니까? (의문)
{어디 갑니다. (불확정)

7. 자립적동사와 보조적동사

동사는 자립적동사와 보조적동사로 나눌수 있다.

자립적동사란 그것만으로도 문장안에서 자립적으로 쓰일수 있는

동사다.

례; 우리 나라는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공부하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보조적동사란 그것만으로는 문장안에서 쓰일수 없고 반드시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서만 쓰이는 동사다.

보조적동사에는 다음의 두가지가 있다.

1) 자립적동사와 결합하여 쓰이는것

례; 싶다

—유치원에 다니는 선영이는 빨리 커서 학교에 가고싶다고 말하였다.

일부 동사들은 자립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보조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동 사	자립적으로 쓰일때	보조적으로 쓰일때
가다	나는 강의가 끝나면 도서관에 갑니다. 나는 서점에서 책을 사가지고 기숙사에 왔다.	해마다 9월이 되면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나는 새로운 기술을 많이 배워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장으로 떠난다.
보다	유화 《진격의 길에서》를 보았다.	나는 어제 실습공장에서 부속품을 깎아보았다.
주다	나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1)을 김동무에게 주었다.	김동무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1)의 내용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주다	김동무는 나에게 국어책을 주었다.	김동무는 나에게 두아동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오다	나는 오늘도 일찌기 학교에 왔습니다.	나는 수령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2) 명사의 격토와 결합하여 쓰이는것

례; —대하여(대한)

○그는 용감한 소년유격대원들의 투쟁에 대하여 재미있게 이야기했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한홉의 미시가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격동시킨다.

—말미암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폭격으로 말미암아 평양시는 재더미로 되였었다.

—비롯하여

○평양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하여 많은 대학들이 있다.

○우리 나라에는 금강산을 비롯한 명승지들이 많이 있다.

—비하여(비한)

○사회주의제도는 자본주의제도에 비하여 매우 우월하다.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다 말할수 없다.

—즈음하여

○공화국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반제반미투쟁월간》에 즈음하여 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향하여

○두아동단원은 일제경찰놈의 총을 빼앗아가지고 유격근거지를 향하여 달려갔다.

○천리마기수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달리고 있다.

—인하여(인한)

○미제의 강점으로 인하여 남반부인민들은 커다란 불행속에서 신음하고있다.

○미제의 강점으로 인한 남반부인민들의 불행은 말할수 없이 크다.

—의하여(의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조되였다.

—위하여(위한)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원수님의 령도밑에 조국의 해방을 위

하여 15성상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다.

○무기획득을 위한 투쟁은 실로 피어린 싸움이였다.

8. 동사의 사역형과 피동형

1. 동사의 사역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등이 리용된다.

1) 《—이》가 들어가 이루어진것

보다—보이다

먹다—먹이다

녹다—녹이다

속다—속이다

썩다—썩이다

2) 《—히》가 들어가 이루어진것

업다—업히다

읽다—읽히다

눕다—눕히다

앉다—앉히다

3) 《—리》가 들어가 이루어진것

알다—알리다

날다—날리다 놀다—놀리다

돌다—돌리다 마르다—말리다

오르다—올리다

4) 《기》가 들어가 이루어진것

넘다—넘기다

맡다—맡기다

숨다—숨기다

웃다—웃기다

5) 《—이우》가 들어가 이루어진것

타다—태우다

자다—재우다

서다—세우다

피다—피우다.

2. 동사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밖에 다음과 같은 방법들도 리용된다.

1) 《—게하다, —도록하다》를 만든다. 이 방법은 모든 동사에 다 가능하다.

례. 가다—가게 하다, 가도록 하다.

오다—오게 하다, 오도록 하다.

2) 《하다》동사의 경우에는 《—시키다》로 만든다.

례. 해방하다—해방시키다

연구하다—연구시키다

공부하다—공부시키다

3. 동사의 피동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접미사 《—이—》,《—히—》, 《—리》, 《—기—》 등이 리용된다.

1) 《—이—》가 들어가 이루어진것

나누다—나누이다

놓다—놓이다

덮다—덮이다

묶다—묶이다

보다—보이다

바꾸다—바뀌다

2) 《—히—》가 들어가 이루어진것

가두다—갇히다 뒤집다—뒤집히다

닫다—닫히다 막다—막히다

잡다—잡히다 뽑다—뽑히다

3) 《—리—》가 들어가 이루어진것

갈다—갈리다 날다—날리다

듣다—들리다 열다—열리다(열매)

열다—열리다

밀다—밀리다 멀다—멀리다

4) 《—기—》가 들어가 이루어진것

감다—감기다 신다—신기다

빼앗다—빼앗기다 쫓다—쫓기다

안다—안기다

4. 동사의 피동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밖에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리용된다.

1) 《—하다》동사의 경우에 《되다》로 만든다.

례; 이룩하다—이룩되다

창조하다—창조되다

건설하다—건설되다

2) 《—하다》 동사의 경우에 《—받다》 《—당하다》로 만든다.

례; 주의하다—주의받다

존경하다—존경받다

착취하다—착취당하다

략탈하다—략탈당하다

침략하다—침략당하다

3) 《—아—지다. (어지다, 여지다)》로 만든다.

례; 열다—열어지다(문이～)

끊다—끊어지다

변하다—변하여지다

9. 격 토

조선어격토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격 토	받침이 없을때	받침이 있을 때
주격토	—가	—이
대격토	—를	—을
속격토	—의	—의
여격토	—에 —에게	—에 —에게
위격토	—에서 —에게서	—에서 —에게서
조격토	※ —로	※ —으로
주격토	—와	—과
호격토	—야 —여 —시여	—아 —이여 —이시여

※₁ 〈ㄹ〉받침일때 받침이 없을 때 ※₂ 〈ㄹ〉받침을 제외한 받침

10. 도움토

도움토를 그 뜻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주체를 나타내는것	—란(이란)—께서
2	객체를 나타내는것	—께, —더러, —한테
3	지정 또는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것	—는(은)
4	렬거하는 뜻을 나타내는것	—하고, —랑(이랑)
5	비교하는 뜻을 나타내는것	—처럼, —보다
6	시작의 뜻을 나타내는것	—부터
7	제한의 뜻을 나타내는것	—만
8	포함의 뜻을 나타내는것	—도,—마저,—까지,—조차
9	개별의 뜻을 나타내는것	—마다
10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것	—나(이나), —나마(이나마) —라도(이라도)
11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것	—야(이야), —라야(이라야) —야말로(이야말로), —나(이나)—도

11. 종결토

종결토를 서술식, 의문식, 명령식, 권유식, 감탄식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서술식	의문식	명령식	권유식	감탄식
—ㅂ니다 (습니다, 입니다)	—ㅂ니까 (습니까 입니까)?	십시오(으십시오)	ㅂ시다(읍시다)	—구려(는구려)(이구려)
—아요(어요, 여요)	아요(어요, 여요)?	세요(으세요)		—군(는군, 이군)
—지요	—지요?	아요(어요, 여요)		
—소	—소?	—오		구나(는구나, 이구나)

서술식	의문식	명령식	권유식	감탄식
—ㄴ다(는다)	—는가, ㄴ가	—개		
—마(느마)	—ㄹ가(을가)?	—구려	—자구	
—아(어, 여)	—느냐?, 냐?	—아라(어라, 여라)	—자구나	
—야(이야) —지	—아(어, 여) —지?	—아(어, 여) —지		

2) 종결토를 높인말, 보통말, 낮춘말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높 인 말	보 통 말	낮 춘 말
—ㅂ니다(입니다, 습니다)	—오,	—아(어, 여)
—ㅂ니까(입니까, 습니까)	—소	—지
—십시오	—시오	—ㄴ다(는다)다 (이다)
ㅂ시다(읍시다)		—니
—아요, (어요, 여요)	—네, 이네	—느냐
—지요	—는가, 인가	—ㄹ가(을가, 일가)
—나요	—개	—아라(어라, 여라)
—는가요, ㄴ가요	—구려(이구려)	—려무나
ㄹ가요(을가요, 일가요)	—세, 세나	—자
—세요, (으세요)	—자구	—자꾸나
—군요(는군요, 이군요)	—군(는군, 이군)	—마(으마)
	—구려	—구나(는구나)

12. 접속토

접속토를 그 뜻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련결의 접속토	주로 두개 사실을 단순히 렬거하는데 쓰인다	—고, —며(으며), —는데, —거니와
2	선택의 접속토	두개 사실중에 어느 하나가 일어날수 있음을 나타낸다	—거나(이거나), —든지, —든가, —나(으나, 이나) —든
3	대립의 접속토	두개 사실이 서로 대립됨을 나타낸다	—나(으나), —지만, —아도(어도, 여도) —는데

4	원인의 접속토	두개 사실중 첫째 사실이 둘째 사실의 원인, 리유가 됨을 나타낸다	—므로(으므로), —니(으니), —니까(으니까), —기에
5	조건의 접속토	두개 사실중 첫째 사실이 둘째 사실을 위한 조건이 됨을 나타낸다	—면(으면), —거든, —아야(어야, 여야)
6	양보의 접속토	두개 사실중 첫째 사실을 양보하여 더 불리하게 되면서도 둘째 사실을 반드시 실현할것을 나타낸다	—더라도, —ㄹ지라도 (을지라도) —ㄹ망정 (을망정) (을지언정), —ㄹ지언정
7	시간의 접속토	두개 사실이 시간적으로 같이 또는 련이어 일어남을 나타낸다	—더니, —다가, —자, —고서, —면서(으면서)
8	목적과 의도의 접속토	두개 사실중 첫째 사실이 둘째 사실의 목적이나 의도로 됨을 나타낸다	—러(으러), —려(으려), —려고(으려고), —고저
9	방식과 정도의 접속토	두개 사실중 첫째 사실이 둘째 사실의 방식이나 정도로 됨을 나타낸다	—아(어, 여), —아서, (어서, 여서) —게, —도록, —ㄹ수록 (을수록), —ㄹ뿐더러 (을 뿐더러)

13. 규정토

규정토에는 《—는》, 《—ㄴ(은)》, 《ㄴ(인)》, 《던(이던)》, 《—ㄹ(을)》, 《—ㄹ(일)》이 있으며, 품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쓰인다.

동 사	형 용 사	명 사	시간상의 의미
—는	—ㄴ(은)	—ㄴ(인)	현 재
—ㄴ(은)			과 거
—던	—던	—던(이던)	과거지속
—ㄹ(을)	—ㄹ(을)	—ㄹ(일)	미 래

14. 능동문장, 사역문장, 피동문장

1. 능동문장이란 주어가 제 힘으로 움직임을 일으키는 문장을 말한다, 능동문장의 기본형식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1) [주어]—[술어]

례; 천리마가 달린다.

나는 공부한다.

2) [주어]—[직접보어]—[술어]

로동자들이 공장을 건설한다.

3) [주어]—[간접보어]—[직접보어]—[술어]

례; 나는 동생에게 책을 주었다.

2. 사역문장이란, 주어가 다른것으로 하여금 움직임을 일으키도록 시키는 문장을 말한다. 사역문장의 기본형식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가 있다.

1) [주어]—[직접보어]—[술어]

례; 로동자들이 쇠를 녹인다.

선생님이 그림책을 보인다.

3) [주어]—[간접보어]—[직접보어]—[술어]

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본문을 읽힌다.

이때 사역으로 된 술어들을 《…게하다, …도록 하다》의 형식으로 바꾸어놓을수도 있다.

례; 읽혔다→읽게 하였다—읽도록 하였다.

연구하게 하다, 건설하게 하다.

3. 피동문장이란 주어가 다른것에 의하여 움직임을 입는 문장을 말한다. 피동문장의 기본형식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있다.

1) [주어]—[술어]

해가 바뀐다.

종소리가 들린다.

2) [주어]—[간접보어]—[술어]

공장은 로동자들에 의하여 건설되였다.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는 조선인민군 해군에게 사로잡혔다.

3) [주어]—[간접보어]—[직접보어]—[술어]

—미제침략자들은 영웅적조선인민에게 코대를 꺾이였다.

—항일빨찌산대원들은 일제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4) 같은 사실을 능동문장으로 나타낼수도 있고 피동문장으로 나타낼수도 있다.

례; —흰눈이 온 벌판을 덮었다. (능동문장)

[주어]—[직접보어] [술어(타동사)] (능동문장)

(눈이) 벌판을 덮었다

[주어]—[직접보어] [술어(피동사)] (피동문장)

(벌판이) (눈으로) (덮이였다)

5. 사역문장을 피동문장으로, 피동문장을 사역문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례; —한개 분대는 중기화점을 파괴하게 하였다. (사역문장)

중기화점은 한개 분대에 의하여 파괴되였다. (피동문장)

—전후 우리 당은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켰다.

—농촌경리는 전후 우리 당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였다.

15. 문장에서의 단어들의 맞물림

문장안에서 앞부분의 단어와 토의 성질에 따라 뒤부분의 단어와 토도 그것과 맞물려야 하는 일이 있다. 이제 단어들의 맞물림에서 중요한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어에 존경해야 할 단어가 올 경우에는 술어도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례; —선생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어머님께 이 책을 드립시다.

2. 이야기 듣는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일 경우에는 술어가 높인말로 되여야 한다.

례; —선생님, 제가 지은 문장을 좀 보아주십시오.

—형님, 저는 다음 학기에 꼭 최우등생이 되겠습니다.

3. 자기와 관련하여서는 겸손하게 말하여야 한다.

례; —이 본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찌기 일어나 달리기를 합니다.

4 《마땅히》, 《응당》 등이 앞에 오면 그 뒤에 《—아야(어야, 여야)한다》가 맞물려야 한다.

례; —학생들은 응당 공부를 잘 해야 합니다.
—미제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 선원들은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한다.

5) 《결코, 도저히, 조금도, 도무지, 전혀, 여간》 등이 앞에 오면 그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맞물려야 한다.

례; —우리앞에는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란 결코 있을수 없다.
—적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을 도저히 막지 못한다.

6. —《만일》 《만약》 등이 앞에 오면 그뒤에 《—면》 《거든》 등 가정의 뜻을 나타내는 토가 맞물려야 한다.

례;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함부로 덤벼든다면 일격에 처부실것이다.
—만약 래일 형님이 오시면 이 책을 주십시오.

7. 《아마》 등이 앞에 오면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 맞물려야 한다.

례;—아마 래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발표모임이 있을것 같습니다.

8. 《가령, 혹시, 비록》 등이 앞에 오면 그 뒤에 《—더라도》,《나》 등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토가 맞물려야 된다.

례;—가령 래일 당장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오늘까지는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
—혹시 래일 비가 오더라도 실습지로 갑시다.
—비록 날씨가 춥더라도 몸 단련(아침체조는)은 계속해야 한다.

9. 《아무리》 등이 앞에 오면 그뒤에 《—더라도》, 《—라도》,《—아도》, 《—ㄴ들》, 《—ㄹ망정》, 《—지라도》 등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토가 맞물려야 한다.

례;—미제가 아무리 발악하더라도 그놈들은 멸망의 운명을 면치못할것이다.
—아무리 일이 힘들더라도 노력하면 꼭 해낼수 있다.

10. 《설마》 등이 앞에 오면 그뒤에 의문을 나타내는 토가 맞물려야 한다.

례; 설마 소년들이 미국놈을 잡았겠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설마 그 동무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11. 《부디, 아무쪼록, 제발》 등이 앞에 오면 그뒤에 요구나 희망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 맞물려야 한다.

례; 부디 몸건강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몸건강하여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조선인민군의 용감한 행동앞에서 겁을 먹은 미국놈은 손을 들고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면서 벌벌 떨고있었다.

12. 《비단》이 앞에 오면 그 뒤에 《—ㄹ(을)뿐만아니라》가 맞물려야 한다.

례; 수상님의 은덕아래 지난날의 머슴군이 대의원이 된 이야기는 비단 리계산아주머니뿐만이 아니다.
—그는 비단 공부만 잘할뿐 아니라 체육도 잘한다.

13. 《어찌, 왜, 어째서, 무엇, 누구, 이리, 언제, 무슨, 웬, 어떻게》 등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앞에 오면 그뒤에 의문을 나타내는 토가 맞물려야 한다.

례; 한 피줄을 이은 우리가 어찌 남녘형제들과 떨어져 살수 있으랴?
—어째서 김동무가 찾아왔습니까?
—어느놈들이 남녘땅을 암흑의 땅으로 만들어놓았습니까?

16. 전달법

1. 전달법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의 말이나 글을 다시 옮겨서 누구에게 전하는 방법을 전달법이라고 한다.

《형님! 저는 김일성원수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겠습니다.》하고 영철이는 말하였다.

여기서 《 》안의 말은 사실 영철이가 형님께 한 말이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영철이의 말을 다시 옮겨다가 우리들에게 전하고있다.

전달법에는 직접전달법과 간접전달법이 있다.

2. 직접전달법

직접전달법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조금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정확히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례; 형님은 나에게 《너는 커서 훌륭한 기술자가 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우의 문장에서 보는바와 같이 직접전달법에는 반드시 인용표가 있어서 전하려는 말이나 글이 다른 말이나 글과 분명히 구분된다.

직접전달법에는 전달해야 할 내용을 리해시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누가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태도로 말하는가하는 설명을 할수 있다. 이를 전달자의 말이라고 한다.

우의 례문에서 《—하고 영철이는 말하였다》는 전달자의 말이다.

직접전달법에서 전달자의 말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들이 있다.

1) 직접전달의 뒤에 《하고 말하다, 라고 말하다, 고 하다》 등의 술어가 붙는다.

례; 강연자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학습을 잘 해야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가 된다》고 말하였다.

2) —하고, —라고, —라, —고 등이 생략되고 《말한다》, 《한다》 등의 동사만 붙는다.

례; 그는 《비록 새싹은 약하지만 그것이 성장하면 큰 힘으로 된다.》하였다.

△ 전달자의 설명은 문장에서 다음과 같은 위치에 놓인다.

(1) 전달자의 설명이 전달의 뒤에 오는 경우

례;《나의 심장이 뛰는 한 원쑤 미제를 모조리 때려부시겠습니다.》하고 그는 불같은 심정을 뿜었습니다.

《미제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요.》하고 그는 웨쳤다.

(2) 전달자의 설명이 전달의 앞에 오는 경우

례; 리계순동지는 힘있게 웨쳤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김일성장군유격대선전원인 내 말을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3) 전달자의 설명이 전달의 앞뒤에 오는 경우

례, 김일성동지께서는 외투를 벗으시여 친히 부상당한 동무를 덮어주시고는 《추운 때에는 가만히 앉아서 휴식을 하는것보다 운동을 하는것이 더 좋거던…》하고 말씀하시면서 손수 도끼를 드시고 마당 한 가운데로 걸어나오셨다.

3) 간접전달법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그 내용만 가지고 자기의 말로서 전하는 방법이다.

례, 원수님께서 항일유격대는 인민을 위한 군대라고 하시였습니다. (간접전달)(《항일유격대는 인민을 위한 군대입니다》라고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직접전달).

—사람은 일을 해야 사는 재미가 있고 밥맛도 더 좋다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말씀하셨다. (간접전달)

(《사람은 일을 해야 사는 재미가 있고 밥맛도 더 좋습니다.…》라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직접전달)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다. 인민들이 다 하는 일을 내라고 어찌 못하겠는가고 그이께서는 말씀하셨다. (간접전달)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랍니다. 인민들이 다 하는 일을 내라고 어째 못하겠습니까!》라고 그이께서는 말씀하셨다). (직접전달)

간접전달법에는 인용표가 없다. 그러고 련이어 《고 말한다》, 《고 물었다》, 《고 명령하였다》… 등과 같은 설명어가 붙는다.

4. 직접전달을 간접전달로 고치는법

전달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따라 직접전달로 말할수도 있고 간접전달로 말할수도 있다.

직접전달을 간접전달로 고치기 위해서는

1) 직접전달에 표현된 계칭은 다 《해라》의 계칭으로 바꾼다.

례; 그는 대원들에게 《끝까지 살아서 사령부를 찾아야 한다. 모두 나를 따르시오》하고 웨쳤다. (직접전달)

(그는 대원들에게 끝까지 살아서 사령부를 찾아야 한다. 모두 나를 따르라고 웨쳤다). (간접전달)

—《우리는 혁명과업을 끝까지 해낼 결심입니다》하고 그는 말했다. (직접전달).

(그는 혁명과업을 끝까지 해낼 결심이라고 하였다).(간접전달)

2) 직접전달에 있는 인용표를 풀고 《라고하다》, 《고 말하다》를 붙인다.

례; 《우리들은 사회주의청년건설자요》하고 청년들은 말했다. (직접전달)

—청년들은 자기들이 사회주의 청년건설자라고 말하였다. (간접전달)

3) 직접전달에 있는 인칭을 바꾼다.

《대대장동지! 이 전투과업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하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대대장동지에게 이 전투과업을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하였습니다). (간접전달)

—《나는 매일 아침 신문을 꼭 읽습니다》하고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접전달)

(자기는 매일 아침 신문을 꼭 읽는다고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간접전달)

—《여기 강선이 천리마의 고향입니다.》라고 수상님께서는 말씀하시였습니다. (직접전달)

(거기 강선이 천리마의 고향이라고 수상님께서는 말씀하시였습니다). (간접전달)

5) 호칭어, 감동어, 삽입어들은 전달하는 사람이 적당한 설명으로 바꾼다.

례. 원수님께서는 환자들에게 《동무들! 우리들이 적과 싸우는동안 병과 싸워이기시오.》하고 격려의 말씀을 하시였습니다(직접전달).

(원수님께서는 환자들에게 대원들이 적과 싸우는 동안 병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격려의 말씀을 하시였습니다.)(간접전달)

17. 소리바꿈

1) 《ㅂ》—《오(우)》의 바꿈

례; 곱다(꽃이 곱다), 굽다(고기를굽다), 집다, 돕다, 덥다, 덥다, 맵다, 쉽다, 춥다, 자유롭다, 가볍다, 즐겁다, 가깝다…

눕다 눕네 눕고 눕습니다 눕지	누우니 누우려고 누우며 누우시오 누워서, 누워라

두렵다 두렵네 두렵고 두렵습니다 두렵지	두려우니 두려운 두려우며 두려우시다 두려워서, 두려워지다

2) 《ㅅ》—О의 바꿈

짓고 짓네 짓다 짓습니다 짓지	지으니, 지은 지으려고 지으며 지으시오 지어서, 지어라,	단어 례 긋다(금을 긋다) 붓다(물을 붓다) 잇다(글을 잇다) 젓다(노를 젓다)

3. 《ㄹ》～О의 바꿈

례; 갈다, 걸다, 길다, 날다, 놀다, 돌다, 멀다, 불다 등 끝소리가 《ㄹ》로 끝나는 모든 동사와 형용사

살고 살며 살려고 살다 살았다	사는 삽시다 사시오 사오	들고 들며 들려고 들다 들었다	드는

4. 《ㄷ》～《ㄹ》의 바꿈

례; 깨닫다, 걷다(길을 걷다) 긷다(물을 긷다)

묻다(이름을 묻다), 싣다(짐을 싣다).

듣고 듣네 듣다 듣습니다 듣지	들으니 들으려고 들으며 들으시오 들어서, 들어라

5. 《르》~《ㄹㄹ》의 바뀜

례; 가르다, 고르다, 기르다, 누르다, 다르다, 모르다, 빠르다, 부르다, 오르다, 자르다, 찌르다.

나르고 나르니 나르다 나르며 나릅니다	날라 날라서 날랐다

6. 《르》~《르ㄹ》의 바뀜

례; 누르다(빛이 누르다).

푸르다 푸르고 푸르니 푸르며	푸르러 푸르러서 푸르렀다
이르다 이르고 이르니 이르면	이르러 이르러서 이르렀다

7. 《ㅎ》—O의 바뀜

례; 그렇다, 이렇다, 높다랗다, 노랗다, 벌겋다, 누렇다, 길다랗다.

커다랗다 커다랗고 커다랗소 커다랗지	커다라서 커다라랴 커다라면 커다라오
하얗다 하얗고 하얗소 하얗지	하야니 하야랴 하야면 하얍니다, 하야오

18. 형태부의 적기

1) 받침일람표

받 침	례
ㄱ	국가, 학교, 막다, 목
ㄴ	손, 눈, 문, 신다, 갇다
ㄷ	굳다, 듣다, 받다, 얻다, 싣다
ㄹ	길, 돌, 물, 갈다, 멀다, 날다
ㅁ	땀, 몸, 심다, 담다, 남다
ㅂ	밥, 집, 입, 잡다, 입다
ㅅ	낫, 옷, 맛, 웃다, 짓다
ㅈ	낮, 맞다, 낮다
ㅊ	낯, 닻, 몇, 빛, 쫓다
ㅋ	남녘, 부엌
ㅌ	겉, 밑, 밭, 솥, 같다, 맡다
ㅍ	늪, 숲, 앞, 깊다, 높다
ㅎ	놓다, 좋다, 쌓다, 퐇다
ㄲ	밖, 겪다, 묶다, 깎다
ㄳ	몫, 넋, 삯
ㄵ	앉다, 얹다
ㄶ	많다, 끊다

받침	례
ㄺ	기슭, 닭, 흙, 굵다, 붉다……
ㄻ	삶, 닮다, 젊다, 삶다……
ㄼ	여덟, 넓다, 밟다, 짧다……
ㄳ	곬, 돐……
ㄾ	핥다, 훑다……
ㄿ	읊다……
ㅀ	옳다, 잃다, 끓다, 싫다……
ㅄ	값, 없다……
ㅆ	있다, 갔다, 했다……

2) 한 형태부안의 두 모음사이에서 나는 자음은 (설측)음이 아닌 조건에서 받침으로 적지 않는다.

례; (옳음) (그름)

겨누다 견으다

더디다 덛이다

미치다 빛이다

시키다 식히다

지키다 직히다

기쁘다 깃브다

아끼다 앗기다

3) 한 형태부안의 두 모음사이에서 나는 《ㄹ》음은 《ㄹㄹ》로 적는다.

례; (옳음) (그름)

놀라다 놀나다

벌레 벌네

빨래 빨내

4) 한 형태부안에서 받침 《ㄴ, ㄹ, ㅁ, ㅂ, ㅇ》다음의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아래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례; (옳음) (그름)

반짝반짝 반작반작

말씀 말슴

벌써 벌서

훨씬 훨신

활짝 활작

깜짝놀라다 깜작놀라다

※ 그러나 토에서는 《ㄹ》뒤에서 된소리가 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례. (옳음) (그름)

—ㄹ가 ㄹ까

—ㄹ수록 ㄹ쑤록

—ㄹ지라도 ㄹ찌라도

—올시다 올씨다

조 선 어
(류학생용)

저자 류학생조선어강좌 교열자 리숙자

1968년 11월 20일 인쇄
1968년 11월 25일 발행

편집겸 발행소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8-3814 50/95 1500 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ㄱ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ㄴ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ㄷ	다	댜	더	뎌	도	됴	두	듀	드	디
ㄹ	라	랴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
ㅁ	마	먀	머	며	모	묘	무	뮤	므	미
ㅂ	바	뱌	버	벼	보	뵤	부	뷰	브	비
ㅅ	사	샤	서	셔	소	쇼	수	슈	스	시
ㅇ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ㅈ	자	쟈	저	져	조	죠	주	쥬	즈	지
ㅊ	차	챠	처	쳐	초	쵸	추	츄	츠	치
ㅋ	카	캬	커	켜	코	쿄	쿠	큐	크	키
ㅌ	타	탸	터	텨	토	툐	투	튜	트	티
ㅍ	파	퍄	퍼	펴	포	표	푸	퓨	프	피
ㅎ	하	햐	허	혀	호	효	후	휴	흐	히